

POSCO

the

GREAT

POSCO
REPORT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About this Report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는(이하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포스코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열한 번째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의 경영 현황, 중장기 전략과 함께 사회, 파트너, 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 등 6대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성과와 주요 활동을 통합적으로 보고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3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재무 정보와 같이 비재무적 정보도 통합해 보고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파밀리* 중 포스코를 포함한 상장기업과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연결기준의 ESG데이터를 통합해 보고했으며, 관련 데이터는 제3자 기관인 삼일PwC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둘째, 2013년 중요성 평가 결과 상위 이슈들을 'KEY ISSUES'로 별도 정리했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선정된 주요 이슈에 대한 상세 비즈니스 사례를 제공해 이해관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이슈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셋째, 보고서 발간 전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중요성 분석에 반영했습니다. 기준에는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보고서 발간 과정 중에 진행해 그 내용을 중요성 분석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발간 기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와 연계해 반영했습니다.

넷째,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CSV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경영 활동 내용 중 CSV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해 보고했습니다.

* 포스코파밀리는 포스코와 국내외 출자사 등을 포함해서 비전/브랜드/기업 문화를 공유하는 포스코 고유의 그룹 경영 체제를 의미합니다.

보고프레임워크

2013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4 가이드라인과 ISO 26000,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원칙과 포스코 고유의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 정보의 보고 기준 및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합니다.

보고기간

포스코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보를 중심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2014년 4월까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 기업지배구조는 2014년 3월 14일 개최한 이사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포항 본사, 서울시무소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단, ESG데이터는 포스코와 포스코파밀리 중 상장기업과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인 9개 회사의 성과를 통합해 보고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 녹색성장 신사업 등 일부 정보는 포스코파밀리 전체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2013 보고서 검증

포스코는 이해관계자가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와 작성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검증기관인 삼일PwC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 기준은 ISAE3000과 AA1000AS Type II를 적용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검증 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

보고서 배포 및 피드백

본 보고서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tel: 02-3457-0198

e-mail: sustainability@posco.com

〈연도별 보고서 특징〉 2003 국내 최초 제3자 검증 / 2004 GRI G2 가이드라인 도입 / 2005 4개 자회사 성과 보고 / 2006 GRI G3 가이드라인 도입 / 2007 중요성 평가 도입, 리뷰패널 운영 / 2008 경영 철학에 따른 목차구성, 주요 해외법인 성과 보고 / 2009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 2010 외부 전문가 의견 수록, 모바일웹 개발 / 2011 재무·비재무 통합 보고서 발간, 시장받는 기업 철학(SPICEE) 적용 / 2012 온라인을 통한 성과 보고 실현 / 2013 연결기준 비재무 성과 보고, CSV(공유가치창출) 사례 보고



CONTENTS

Overview	02
CEO Message	
POSCO 2013 Highlights	
POSCO KPI	
ESG DATA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	
비전	
2013년 성과 및 2014년 계획	
중요성평가	
지속가능경영체계	20
지속가능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의견	
포스코페일리 CSR역량 진단	
기업윤리	
인권경영	
위험관리체계	
Key Issue	
투자자	36
투자자 정보	
업무 혁신	
기술 혁신	
Key Issue	
고객	48
제품 소개	
친환경 신제품	
가치경쟁	
품질경영	
Key Issue	
환경	56
환경경영	
환경성과 관리	
환경리스크 대응	
Key Issue	
환경 파트너쉽	
파트너	66
공정거래	
벤처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	
서플라이 체인 CSR 경쟁력향상	
Key Issue	
직원	79
안전	
보건	
2014년 안전보건 추진전략	
행복한 일터 만들기	
글로벌 인재 육성	
Key Issue	
사회	94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사회공헌체계	
지역사회	
글로벌 인재	
지구환경	
다문화	
문화유산	
Key Issue	
Appendix	112

CEO MESSAGE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포스코'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포스코는 기업시민의 책무를 성실히 실천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포스코가 이해관계자와 가치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펼친 노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았습니다.

포스코는 사회공헌과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가치경쟁과 품질 경영, 인재경영, 환경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3년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지역사회, 지구 환경, 다문화, 문화유산의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포스코 1%나눔재단을 출범하여 나눔운동을 포스코파밀리 전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포스코파밀리 임직원의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나눔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 간의 동반성장활동을 지원하는 포스코윙크(WinC)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성과공유제를 비롯한 37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장기화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가치경쟁, 원가절감, 미래 성장사업 육성, 경영관리 시스템 혁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단독 기준으로 매출액 30조 5천억 원, 영업이익 2조 2천억 원, 연결기준으로는 매출액 61조 9천억 원, 영업이익 3조 원의 경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고객사의 가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돋기 위해 고객사의 원가절감, 생산공정 최적화, 수출활동 지원 등 가치경쟁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경영을 위해 포스코파밀리의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자재 공급사와 외주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포스코형 서플라이어 품질 인증제도(POSQC)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일과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포스코 파밀리가 함께 사용하는 글로벌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직원의 힐링케어와 조직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돋기 위해 힐링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환경리스크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리스크 관리와 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업 기획·투자·건설 단계에서부터 환경전담부서의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투자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4년 연속 1위,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수인 SAM-DJSI는 9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주주와 투자자의 믿음에는 높은 기업가치로,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들의 도움에는 상생으로,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성원에는 자부심으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향한 포스코의 새로운 도전에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회장 권오준



POSCO 2013 HIGHLIGHTS



FEBRUARY

JUNE

1

경쟁력 세계 1위 철강사에 4년 연속 선정

포스코는 2월 1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는 WSD(World Steel Dynamics)가 세계 34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생산 규모·수익성·기술혁신 등 2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로 철강산업 불황으로 경쟁사들의 점수가 낮아진 데 반해 포스코는 지난해 7.48점을 보다 높은 7.76점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위를 고수하다 러시아·인도 철강사들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2010년 6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른 후 4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

광양 1고로 세계 최대 규모로 재탄생

포스코는 6월 7일 108일간의 개수공사를 마치고 세계 최대 규모로 재탄생한 광양 1고로의 학입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양 1고로는 1987년 4월 처음 3,800m³로 준공한 이래, 2대기 3,950m³ 규모를 거쳐 이번에 3대기를 맞아 6,000m³ 규모로 재탄생해 기존 최대 규모인 5,800m³의 중국 사강그룹 1고로를 넘어 세계 최대 고로로 거듭났습니다. 광양 1고로는 노체 손상을 줄여주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과 출선비를 제고하는 고산소부하 조업기술 적용, 고온의 환원가스 사용효율 증대를 통한 연료비 절감으로 원기절감과 친환경 공정을 실현했습니다.

3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생산 개시

대우인터내셔널은 6월 22일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 위치한 미야(Mya)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을 성공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운영권자로 미얀마 정부와 생산을 분배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생산된 가스는 해저 가스관, 해저 생산설비 및 생산 플랫폼에 주입돼 가스 생산과 처리 설비의 기동을 확인한 후 2013년 7월부터 미얀마 서부 해안 짹류(Kyauk Phyu) 지역에 위치한 가스 판매지점에서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CNPC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4

미래·공익·상생의 신윤리경영 선포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1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신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신윤리경영인 '행복경영'의 비전으로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3대 핵심 가치로 미래·공익·상생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행복경영 구현을 위해 국제협력단체, 산학협력기관과 연계해 해외 사회공헌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과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지원 활동을 확대해 산업혁신운동 3.0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SEPTEMBER

NOVEMBER

DECEMBER

5

포스코, 9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선정

포스코가 세계 철강업계 최초로, 샘-다우 존스 평가에서 9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는 전 세계 매출액 기준 상위 2,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해 업종별 상위 10%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2013년 조사에서 철강 부문 총 31개사 중 포스코는 지난해보다 3점 상승한 77점을 기록하며 9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6

파이넥스 공법 세계 첫 수출

포스코는 9월 22일 중국 충청시에서 국영 기업인 충청강철과 파이넥스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합작협약(MOA·합의각서)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와 충청강철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해 연산 3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향후 중국 정부의 비준과 한국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이 이뤄지면 본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

나눔운동 일반직원 확산 · 1%나눔재단 출범

포스코 1%나눔재단이 11월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1%나눔재단은 2011년 10월부터 포스코 임원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는 것에서 시작돼 현재 포스코와 26개 포스코 패밀리 회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1%나눔재단은 2013년 한 해 동안 모은 임직원의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조성한 40억 원의 기금으로 향후 본격적인 나눔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8

동남아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가동

포스코는 12월 23일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용광로에 첫 불을 지피는 화입식을 열었습니다. 크리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 크리카타우스틸이 7대 3 빌로 합작, 설립했으며 제선·제강·후판 공정을 갖췄습니다. 연간 슬래브 180만 톤과 후판 120만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크리카타우포스코는 수출가 대비 가격이 높은 내수 시장의 판매망을 적극 확보해 2014년에 슬래브 150만 톤, 후판 60만 톤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POSCO KPI

주요 성과 데이터(연결기준)

COMMUNICATION CHANNEL

SOCIETY

- CSR위원회
- 사회공헌활동
- 포항/광양 지역협력팀
- 지역 문제 협의
- 포스코 신문
- 기업 이미지 조사
- NGO 대이
-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인터뷰

PARTNER

- 공급사
- 공급사 관계 관리 시스템(SRM)
- 동반성장협의회
- 포스코밀리 공급사 정보 교류회
- 외주파트너사
- 부서별 간담회
- 정보 교류회

INVESTOR

- CEO 포럼(연 1회)
- 기업 설명회(분기 1회)
- 공시(웹 사이트)
- Face to Face Meeting(수시)
- 신용 평가 정례회의

CUSTO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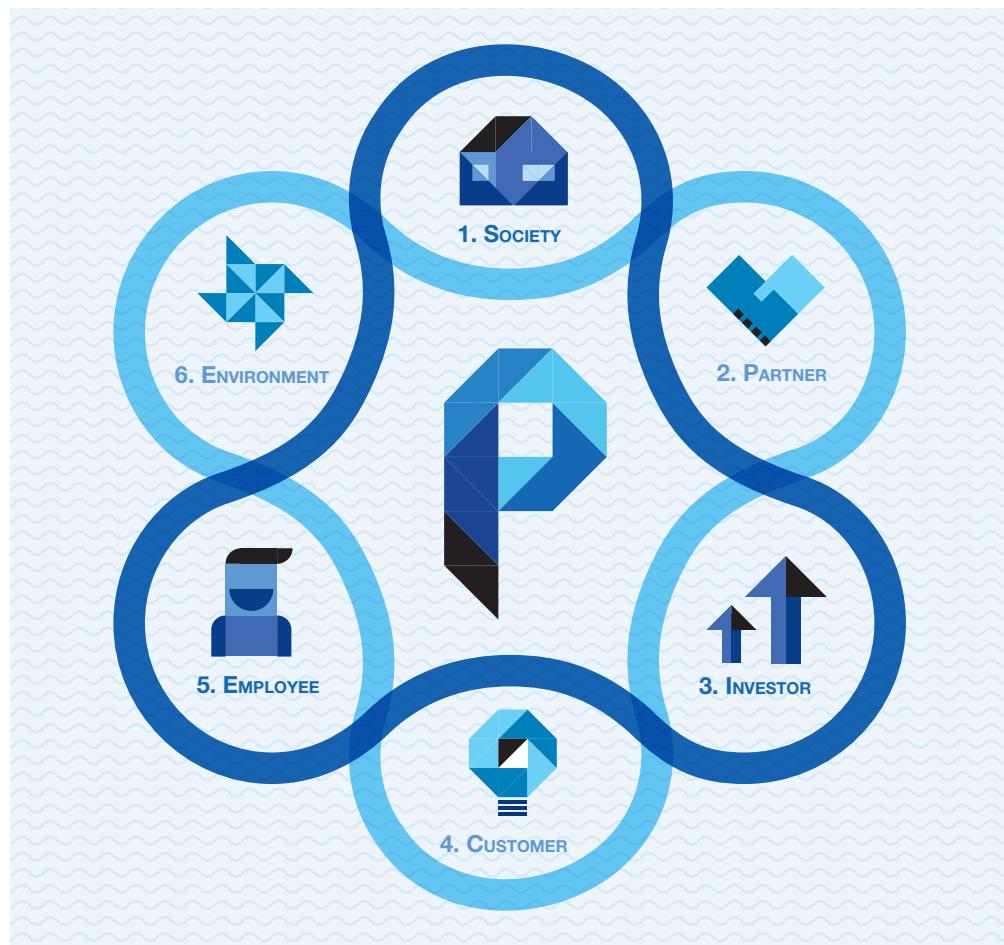
-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CRM)
- 고객 만족도 조사
- 공동 연구(EVI: Early Vendor Involvement)
- 교류회(수시)

EMPLOYEE

- 노경협의회 : 노사 간 협의체
- 영보드, 주니어보드
- PIRI(포스코 사내 트위터)
- POSCO&(사내 블로그)
- 행복지수
- 운영회의

ENVIRONMENT

- 디지털 환경 감시 시스템
- 환경개선협의회(광양)
- 환경 정보 시스템
- 철강 콘퍼런스
- 포스코와 함께하는 그린 스쿨
- 탄소보고서



1. 사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는 포스코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지역사회 인적·물적 지원 활용 등

2. 파트너

든든한 동반자로서 파트너(공급사, 외주사 등 협력사)가 건강해야 기업 생태계가 튼튼해지며,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품질 향상 등

3. 투자자

주주 및 투자자는 포스코의 주인이자 자본의 공급자, 장기적인 파트너입니다.

- 안정적 지배구조, 기업가치 제고 등

4. 고객

고객은 포스코 성장의 원천입니다.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포스코의 노력으로 고객이 지속 성장할 때 포스코도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수익 창출 등

5. 직원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포스코는 인적 자원을 가장 소중한 자원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 인적 자원 확보, 직원 역량 발휘 등

6. 환경

철강산업을 비롯한 소재산업은 에너지 집약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지속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 환경 유망 사업 발굴 등 경쟁력 확보, Compliance 비용 저감 등

재무성과¹

KPI	단위	2011	2012	2013
조강생산량(연결)	1,000 톤	39,074	39,702	38,261
매출액	10억원	68,939	63,604	61,865
영업이익	10억원	5,468	3,653	2,996
영업이익률	%	7.9	5.7	4.8
자산	10억원	78,409	79,266	84,455
부채	10억원	37,679	36,837	38,633
부채비율	%	92.5	86.8	84.3
자본	10억원	40,730	42,429	45,822
ROE	%	9.4	5.7	3.1

¹ 재무 데이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고

² 비재무성과 데이터 범위 : 총 10개사, 포스코 및 포스코파밀리사 9개사(상장기업 및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 -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 특수강,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엠텍)

³ 총 직원 수는 10개사 사업보고서의 직원 현황 데이터를 합산한 자료로 2011년 3만 1,170명, 2012년 3만 2,031명, 2013년 3만 2,207명입니다.

⁴ 포스코건설 데이터 제외 : 건설업의 경우 휴업도수율이 아닌 환산재해율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는 포스코건설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scoenc.com/service/sustain_report.asp)

⁵ 환경 데이터 보고 범위(에너지사용량, 순폐기물량, 온실가스배출량, 물사용량) : 대우인터내셔널은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취합했습니다.

비재무성과²

▶ 잠재적 기업 가치



▶ 자발적 직원 봉사활동

- 재무성과 개선(생산성 향상 : 조직 문화 개선, 업무 물입도 증대)
- 퇴직률 저감, 행복지수 향상(조직 문화 개선)

▶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투자

- 재무성과 개선(사회적 면허 획득 : 지역사회 호감도 상승)
- 재무성과 개선(사회적 인프라 확보 :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 직원 행복지수 향상(기업 이미지 제고)

▶ 연구 개발

- 재무성과 개선(잠재 수익성 확보 : 성장동력 발굴, 신규 시장 확보)
- 재무성과 개선(비용 절감 : 생산·업무 프로세스 개선)



▶ 행복한 일터 조성

- 재무성과 개선(생산성 향상: 근로 의욕 및 업무 물입도 향상)
- 퇴직률 저감(조직 문화 개선, 직원 만족 향상)
- 우수 인재 유치

▶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 직원 행복지수 향상, 퇴직률 감소(소속감 향상, 자기 계발)
- 재무성과 개선(생산성 향상 : 직원 역량 향상, 인재 확보 및 유지)

▶ 퇴직률 감소

- 재무성과 개선(생산성 향상 : 인재 확보 및 유지 강화)
- 재무성과 개선(비용 절감 : 신규 인력 고용 및 육성을 위한 비용)

▶ 안전 재해 저감

- 재무성과 향상(생산성 향상 : 인적 자원 보호)
- 재무성과 향상(비용 절감 : 법률 준수 (compliance) 리스크 저감)
- 직원 행복지수 향상(안전한 일터 조성)



▶ 에너지사용량 저감

- 재무성과 개선(비용 절감 : 에너지 비용 절감)

▶ 순폐기물량 저감

- 재무성과 개선(수의 향상: 폐기물 재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
- 재무성과 개선(비용 절감 : 폐기물을 처리 비용 절감)

▶ 온실가스배출량 저감

- 재무성과 개선(비용 절감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한국, 2015년~) 대응)

▶ 물사용량 저감

- 재무성과 개선(비용 절감 : 물 사용 비용 및 처리 비용 절감)

ESG DATA

(포스코 단독)

지표명	단위	2011	2012	2013
사회				
사회공헌 비용 ¹	총합계	10억 원	69.7	91.9
	기부금	10억 원		9.3
	지역사회 투자 ²	10억 원		36.6
	기타(Commercial initiative) ³	10억 원		4
이웃돕기 성금 기탁 현황 ⁴	10억 원	8	8	8
미소금융 비용	출연금액(누적)	10억 원	10	15
	대출금액	10억 원	6.7	7.3
인당 자원봉사시간	시간	35	36	31
포스위드-취약계층/고용인원	명	173/330	283/466 ⁵	191/369
포스에코하우징-취약계층/고용인원	명	83/110		28/60
포스플레이트-취약계층/고용인원	명	99/189	106/190	97/184
송도SE-취약계층/고용인원	명	151/164	246/272	124/138
자매결연	개	249	240	245
법인세 비용	10억 원	877	623	403
파트너				
출자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현황 ⁶	개사	21(19)	25(22)	34(30)
구매 협력 성과 공유제를 통한 보상금액	억 원	826	1,328	536
민·관 공동R&D펀드	건	6	15	15
테크노 파트너십 기술 자문	회	1,096	1,057	595
포스코 인증 공급자수	개	42	39	41
구매 비용	원료비	10억 원	25,393	22,176
	재료비	10억 원	1,944	1,914
	외주용역비	10억 원	1,944	1,997
	(매출액 비중)	%	74.8	76.7
				70.3
투자자⁷				
조강생산량	1,000 톤	37,325	37,986	36,416
매출액	10억 원	39,172	35,665	30,544
영업이익	10억 원	4,330	2,790	2,215
당기순이익	10억 원	3,189	2,500	1,583
영업이익률	%	11.1	7.8	7.3
ROE	%	8.9	6.5	3.9
자산	10억 원	52,728	52,320	54,242
자본	10억 원	37,598	39,165	42,311
부채비율	%	40.2	33.6	28.2
현금배당금 총액	10억 원	772	618	633
주당 현금배당금	원	10,000	8,000	8,000
	(주당 중간배당금)	원	(2,500)	(2,000)
주당순이익	원	41,279	32,359	20,052
배당 성향	%	24.2	24.7	40.0
고객				
고객만족도(국내고객사)	%	91	88	88
고객만족도(해외고객사)	%	81	81	79
친환경제품 개발 현황	개	19	37	30
제품별 판매량	열연	톤	18,661	18,757
	냉연	톤	14,041	14,479
	스테인리스	톤	1,791	1,812
				1,770

지표명	단위	2011	2012	2013
직원				
행복지수				
직원 수	점	79	82	82
채용	명	17,553	17,623	17,823
퇴직	명	992	818	873
정년퇴직	명	496	1,029	520
퇴직률(Turnover)	%	1	654	0
근속연수	년	2.94	5.85	2.91
여직원	명	18.5	18	18.5
과장 이상 여직원	명	625	702	778
장애인(포스코)	명	105	146	166
장애인(포스워드)	명	253	254	255
출산휴가 사용자	명	192	220	230
출산휴가 후 복직률	%	15	56	55
육아휴직 사용자	명	100	100	100
육아휴직 후 복직률	%	22	61	77
교육인원	명	100	100	100
인당교육시간	시간	530,086	432,859	523,184
인당교육비용	만 원	252	234	205
학습자 만족도	점	145	101	80
직영 재해 건수	건	4.47	4.48	4.62
직영 사망자	명	12	3	10
외주 재해 건수	건	0	1	1
외주 사망자	명	6	4	4
직영 휴업도수율	명	0	1	1
외주 휴업도수율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0.08	0.26
(휴업도수율 계)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0.15	0.1
인건비 지급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0.23	0.09
직영 휴업도수율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0.33	0.18
외주 휴업도수율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0.15	0.1
(휴업도수율 계)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0.23	0.18
인건비 지급	지불성 급여	10억 원	1,277	1,367
	퇴직충당금	10억 원	144	120
	법정복리비	10억 원	100	104
연금 지원	국민연금(회사 부담금)	10억 원	33.3	35.1
	개인연금 보조금	10억 원	9.1	9.1
	개인연금 수혜 인원	명	13,970	14,317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금액	10억 원	62	59	58
출연누계	10억 원	757.2	816.3	873.9
환경				
부산물 자원화율				
부산물 자원화량	%	98.4	98.4	98.3
조업용 취수량	만 톤	2,666	2,358	2,171
방류량	m ³ /t-S	3.63	3.56	3.71
에너지 사용량	m ³ /t-S	1.60	1.69	1.61
조강 톤당CO ₂ 배출량(직접)	TJ	805,355	798,111	776,115
조강 톤당CO ₂ 배출량(간접)	t-CO ₂ / t-S	2	1.94	1.94
환경설비투자	대기	10억 원	395	480
	수질	10억 원	53	102
	자원화 및 기타	10억 원	35	53
환경 비용	환경설비 운영비	10억 원	285	361
	자원화비	10억 원	225	240
	감가상각비	10억 원	117	146
	일반관리비	10억 원	31	35
	환경R&D	10억 원	12	13
	에너지회수비	10억 원	31	34
	합계	10억 원	701	829

¹ 사회공헌 비용의 분류 기준은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사회공헌 비용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체육문화, 인재양성, 자원봉사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추가로 기부금, 지역사회투자, 기타(Commercial Initiative)로 구분한 내용도 포함함.

² 지역사회 투자: 지역사회 투자는 사회공헌 5대 영역의 지역사회 개념과 다름.
- 지역사회 투자: 포항, 광양 및 해외 사업장에서 사회공헌으로 사용한 비용
- 5대 영역의 지역사회: 5대 영역 구분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요 비용

³ 기타(Commercial Initiative) :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사회공헌 비용

⁴ 포스코 단독 금액이며, 포스코파밀리사 전체는 100억 원임. 과거 수치 수정

⁵ 2012년 포스워드와 포스에코하우징이 포스코휴먼스로 통합, 합병으로 감소한 회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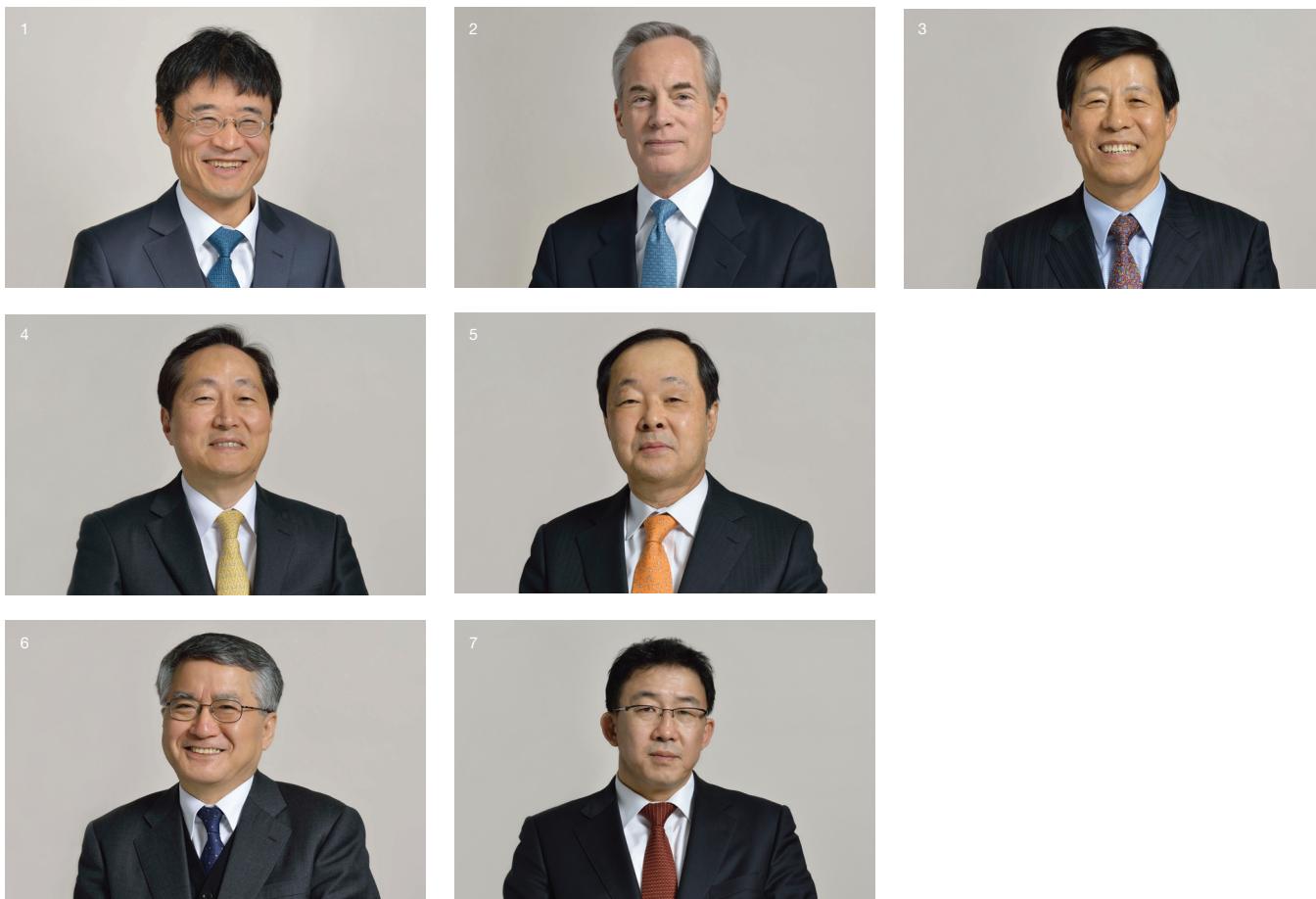
⁶ ()숫자는 합병으로 감소한 회사 반영

⁷ 재무 데이터는 포스코 단독기준임.

BOARD OF DIRECTOR

이사회 구성

사회이사



1 이창희

- 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현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서울대 법학, 하버드대 국제법/석, 박사

2 James Bemowski

- 현 두산 부회장
- 전 말레이시아 서던뱅크 수석부행장
- 전 맥킨지 한국지사장
매케나 칼리지 경제학,
하버드대 MBA

3 신재철

- 전 LG CNS 대표이사 사장
- 전 로고스시스템 회장
- 전 한국IBM 대표이사 사장
서울대 전기

4 이명우

- 현 동원산업 대표이사 사장
- 전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
- 전 소니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서울대 철학,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석사

5 김일섭

-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 전 안진회계법인 회장
- 전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서울대 경영, 서울대 경영/석, 박사

6 선우영

- 현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
-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대 법학

7 안동현

-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전 스코틀랜드왕립은행
Head of Quant Strategy
-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고려대 경영, 뉴욕대 경영/박사

포스코는 기업지배구조의 비전과 원칙을 표명한 '기업지배구조 협장'에 의거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사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해 이사회 의제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채택해 주주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해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을 대표하는 CEO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 CEO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해 2007년부터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신설,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해 실시했고, 사외이사 활동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 윤리 규범도 제정해 공시했습니다. 2011년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으며, 내부거래 안건에 대해 복수의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2012년에는 재정 및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전문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내이사



1



2



3



4



5

1 권오준

- 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 전 포스코 사장
- 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속, 원자재 금속/석사,
피츠버그대 금속/박사

2 김진일

- 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철강생산본부장)
- 전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서울대 금속

3 장인환

- 현 포스코 대표이사 부사장(철강사업본부장)
- 전 포스코P&S 대표이사 사장
고려대 금속

4 윤동준

- 현 포스코 부사장(경영인프라본부장)
-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숭실대 산업공학, 조지워싱턴대 MBA

5 이영훈

- 현 포스코 부사장(재무투자본부장)
-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서울대 경제, 런던대 경제/박사

INTRODUCTION

+ 김진일 대표이사 사장(철강생산본부장)

포스코의 품질경영은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니즈를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 제품 판매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조 설비를 함께 운영하는 외주사를 대상으로도 포스코의 혁신과 안전 교육을 제공해 전체적인 품질과 혁신,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만의 성장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장인환 대표이사 부사장(철강사업본부장)

장기적인 철강 경기 침체로 많은 고객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한단계 발전된 포스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 솔루션, 피플의 프리미엄을 추구함으로써 일등 프리미엄 철강사 이미지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철강 수요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7대 고수익의 산업향 전략제품의 집중 홍보를 통해 초일류 고급 제품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포스코가 보유한 기술과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고객사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철강산업 생태계의 건전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영훈 부사장(재무투자본부장)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코 패밀리의 해외 사업이 확장되면서 해외에서 사랑받는 기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출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철강 산업의 중대한 리스크인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긍정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해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OVERNANCE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포스코 사내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으로부터 선임 예정 이사의 3배수를 제안받고, 이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해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4년 3월 14일에 개최된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는 김일섭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선우영 현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 안동현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신규 선임됐고, 사내이사에는 김진일 사장, 윤동준 부사장, 이영훈 부사장이 신규 선임됐으며,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이창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2013년 포스코 이사회는 총 8회 개최됐으며, 출석률은 사내이사 100%, 사외이사 98%였습니다. 2013년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은 2014년 경영계획, 성진지오텍-포스코플랜텍 합병 추진 계획, 포스코 1% 나눔재단 설립과 매칭그랜트 기금 출연, 연말 이웃돕기 성금 출연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회 주요 역할 및 구성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위원장 이명우)
2013 개최 수 : 4회
주요 심의/의결 : 사내이사 후보자격 심사,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등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2인/ 위원장 김일섭)
2013 개최 수 : 5회
주요 심의/의결 : 중앙아시아 FESIAL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2013년 하반기 자금조달 계획, 로이힐 프로젝트 증자 및 주식 담보 계획 등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4인/ 위원장 신재철)
2013 개최 수 : 1회
주요 심의/의결 : 2012년도 전사경영성과 평가, 장기인센티브 지급방법 개선 등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위원장 김일섭)
2013 개최 수 : 7회
주요 심의/의결 : 2012년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실태, 제45기 내부 및 외부 결산감사 결과 등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5인/ 위원장 권오준)
2013 개최 수 : 13회
주요 심의/의결 : 포상 연계 자사주 처분, 유럽 STS 가공센터 협작설립 계획, POSPIA 3.0 정보화 사업 투자비 증액 등

전문위원회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칠강 투자의 검토와 심의를 담당하는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5개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이사 총 보수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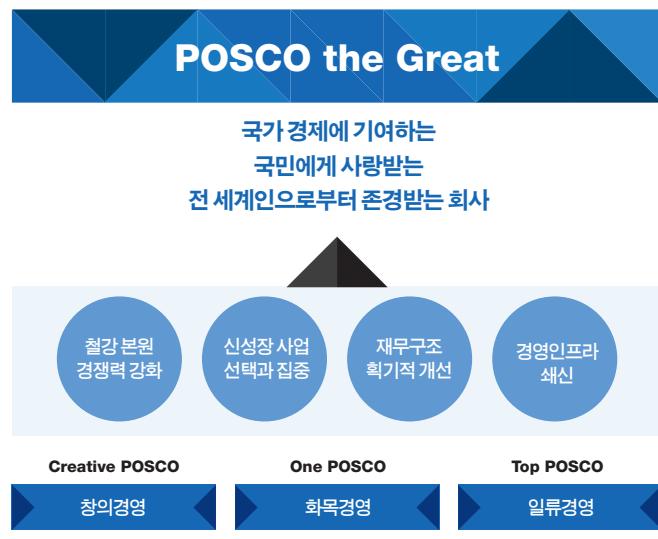
보수 한도	총 지급 보수
70	62

이사회 주요 논의 안건

2.7	45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포상 연계 자사주 처분 계획(안)
2.28	사내이사 후보 추천 등
	제4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등
3.22	이사회 의장 선임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5.10	성진지오텍-포스코플랜텍 합병추진 계획(안)
	광양 합성천연가스(SNG) 프로젝트 사업구조 변경(안)
	중소기업 재무안정 지원펀드 출자(안)
	2013년도 2분기 자금조달 계획
	자기주식 금전신탁 계약기간 연장
	DR 예탁기관 변경(안)
	포스코교육재단 출연 등
8.8	PT KRAKATAU POSCO 자본금 증자 및 지급보증 계획
	2013년 하반기 자금조달 계획
	2013 회계연도 중간배당 실시(안)
	포스코 1% 나눔재단 설립 및 매칭그랜트 기금 출연 등
11.8	태국 도금강판공장(CGL) 신설을 위한 출자 및 지급보증
	일본 요도기와社와의 전략적제휴를 위한 상호 지분투자 등
11.25	승계Council 설치 및 운영(안)
12.20	2014년도 경영계획
	포스코플랜텍 유상증자 참여(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연말 이웃돕기 성금 출연

VISION

비전



세계 철강산업은 2000년대 중국발 호황이 끝난 이후로 수요가 급감하며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포스코는 다양한 전략을 펼치면서 위기를 타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철강 경쟁력 4년 연속 1위, '포천' 선정 존경받는 기업 금속 부문 1위,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우수기업 9년 연속 선정,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100대 그룹 선정 등 외부의 각종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아지고 시가총액이 감소했으며 신용등급, 주가 등 각종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회사가 가진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비전 'POSCO the Great'를 수립하고 위대한 포스코의 재창조를 선언했습니다. 'POSCO the Great' 비전 추구의 기본 바탕이 되는 3대 경영이념은 창의경영(Creative POSCO), 화목경영(One POSCO), 일류경영(Top POSCO)입니다.

먼저, 창의경영(Creative POSCO)은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일상과 평범을 넘어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영, 이것이 포스코의 창의경영입니다. 화목경영(One POSCO)은 가치 공유를 중시해 창업 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 발전을 추구하고 고객사, 공급사, 국가,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화목경영으로 전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와 변화 방

향을 공감하고 서로를 목표 달성을 위한 동료로 인식하며,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주인의식으로 단결해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류경영(Top POSCO)은 과거엔 첨단 선진기술을 뒤따르는 것이 목표이자 과제였다면, 지금은 세상에 없는 제품과 기술을 앞서 개발하고 스스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핵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력과 일등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일류경영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포스코가 실행해야 할 계획은 3대 경영이념에 기반한 '혁신 포스코 1.0'의 4가지 혁신 어젠다입니다. 이는 철강 산업 본원 경쟁력 강화, 신성장 사업 선택과 집중,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그리고 경영인프라 쇄신입니다.

철강 산업 본원 경쟁력 강화는 가치 창출을 혁신하고, 원가와 품질을 혁신하며 사업 구조와 글로벌 운영을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의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해 경쟁사와 차별화를 구축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신성장 사업을 재정비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매력적이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력과 시장 환경에서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지, 소재나 에너지와 같이 포스코 고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지 등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나아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은 철강 본원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 사업구조 재편, 비부채성 자금조달 확대와 출자사 자본 확충으로 자기자본에서 부채를 축소하고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경영체제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인프라 쇄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현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프로젝트 팀장에게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 구성원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의지를 갖고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포스코는 경영이념과 핵심 어젠다를 통해 비전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 증대, 신용등급 회복, 매가 성장동력 확보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POSCO the Great'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PERFORMANCES

2013년 성과 및 2014년 계획

세계 경제는 중국의 성장을 둔화, 미국의 출구전략, 신흥국의 투자 부진과 금융불안 확대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수출 증가율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여력 저하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경영 환경에서도 가치경쟁, 원가절감, 미래 성장사업 육성, 경영관리 시스템 혁신 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단독기준으로 매출액 30조 5,440억 원, 영업이익 2조 2,150억 원,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 61조 8,650억 원, 영업이익 2조 9,660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결기준 자산 규모는 84조 4,550억 원이며,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의 본격 진행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부채 규모는 38조 6,3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철강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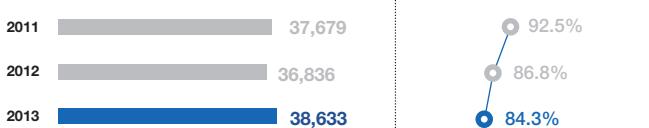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강 부문 주요 계열사인 포스코특수강은 STS강, 선재와 봉강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포스코강판은 표면처리강판 전문 기업입니다. 이 외에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 · 판매사인 중국 장가항스테인리스와 철강재를 가공 · 판매하는 해외 가공센터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연결기준 조강 생산량은 3,826만 톤입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고로 개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7만 톤 감소한 3,642만 톤을 생산했으며, 포스코특수강이 74만 톤, 장가항스테인리스가 11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포스코 제품 판매량은 철강 시황 악화로 전년 대비 112만 톤 감소한 3,393만 톤을 기록했고, 수출 비중은 42.8%입니다. 2013년 포스코의 주요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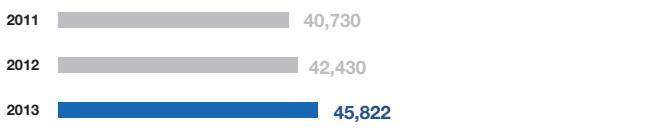
그룹 연결 재무 구조



부채



자본



해외 생산 및 판매 Network 구축



지역	생산능력
동남아	인도네시아 후판 및 슬라브 3,000
	말레이시아 도금강판 180
	베트남 냉연 등 1,400
서남아	인도 자동차 전기강판 750
동북아	중국 자동차 냉연 780
미주	멕시코 자동차 강판 900
total	7,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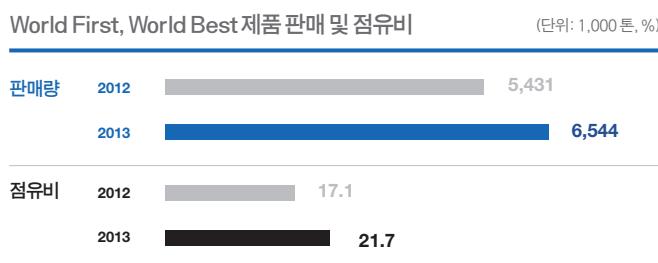
지역	생산공장
중국	15
일본	6
동남아	11
인도	6
유럽	2
미주	6
12개국	46공장

첫째, ‘철강·종합소재 기업’을 향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미래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재정비했습니다.

포스코는 자체 기술로 광양제철소 1고로를 세계 최대 규모의 고로(내 용적 6,000m³)로 신예화했으며, 포항제철소 제3파이넥스 공장, 제4 선재 공장 준공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 시아에 동남아시아 최초로 연간 생산(이하 연산)량 300만 톤 규모의 일 관제철소를 준공했으며, 중국의 자동차 강판 공장, 인도의 전기강판 및 자동차 강판 공장, 터키의 STS 냉연 공장을 신설하는 등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현지 밀착형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가치경쟁, 원가절감, 비부채성 자금조달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습니다.

포스코는 고객사 비용절감을 위한 물류 프로세스 개선과 신강종 개발 제안, 중소고객사 수출 지원 등 포스코형 가치경쟁을 실현하고, 독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World First, World Best 제품 판매량 비중을 21.7%로 신장했습니다. 또한 판매가격이 지속 하락했지만 극 한의 현장 원가절감 활동을 추진해 연간 7,000억 원 상당의 캐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영에 대비한 경영관리 시스템의 혁신, 포스코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피아3.0’ 가동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해 소프트웨어 혁신과 융합된 선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넷째, 소통과 나눔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포스코파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행복경영’의 비전으로 ‘미래·공익·상생’의 신(新)윤리경영을 선포했으며, 협력기업의 기술 역량 개발 지원과 성과보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임직원의 급여 1% 나눔활동을 포스코파밀리 26개사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영 활동에 힘입어 포스코는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4년 연속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철강업계 최초로 9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 성장하는 최고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2013년 철강 부문 주요 출자사의 경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특수강은 2013년 5월, 2단계 합리화 투자를 마무리하고, 신설 비의 본격 가동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POSCO SS-VINA는 201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산 10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착공했으며 철근과 형강류의 생산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건설 수요 선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포스코특수강은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활동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수출 증대로 글로벌 메이커 도약, 서플라이 체인 강화로 신규 수요 적극 발굴을 도모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수입 대체 활동 추진과 아울러 자동차용 봉강, 에너지 강재의 핵심 고객사와 다이렉트 릴레이션십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세일즈 믹스 고도화와 수주 확대를 위한 60대 과제 발굴로 고강도 원가절감, 품질 개선, 강종 개발을 전사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 판매량 61만 8,000톤, 매출액 1조 3,168억 원, 영업이익 44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재 등에 사용하는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도금강판, 컬러강판을 주력으로 한 철강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알루미늄도금강판, 독자기술로 개발한 AL-STS강판, 후물AL강판 그리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소재 등 고부가 비탄소강 표면처리사업을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고도화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매출액은 8,212억 원, 영업이익은 2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PERFORMANCES

2013년 성과 및 2014년 계획

무역 부문



무역 부문 대표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철강/금속, 화학/석유제품, 기계/운송장비, 농축산품 등의 수출입거래 및 해외 플랜트, 인프라 구축 등 해외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무역 부문과, 국내외 에너지와 광물, 식량자원의 개발을 담당하는 자원개발 부문, 그리고 Trading Value Chain으로서 국내외 제조 및 유통 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중 무역 부문이 전체 매출/순익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나, 자원개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며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 별도기준으로 매출은 16조 6,014억 원, 영업이익은 1,3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연간 회사의 매출 중 수출(삼국간 거래 포함, 이하 동일)은 94.9%에 달합니다. 수출 실적의 지역별 비중은 중국 21.4%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출 실적의 61.2%를 차지하며, 북미 지역 8.5%, 기타 지역 30.3%입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철강/비철 58.2%, 화학/물자 26.7%, 자동차부품/기계 13.0%, 광물/에너지 0.7%, 전자/기타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가스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2013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캐나다에서 비전통 석유 가스인 타이트 오일가스 광구 지분을 인수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

- 일일 평균 생산 및 판매량: 2억 ft³(2013년 말 기준)
- 누적 가스 판매량: 164억 ft³(2014년 2월 기준)
- 가스판매 매출 현황: 471억 원(2013년 11~12월)



2013.6.22

2013.7.15

2013.11

건설 부문



건설 부문의 대표 회사인 [포스코건설](#)은 제철소 건설 경험을 토대로 토목, 건축, 에너지, 도시개발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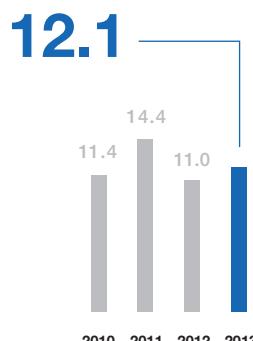
[포스코건설](#)의 2013년 누계 수주 실적은 국내 6조 2,000억 원, 해외 5조 9,000억 원으로 총 12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건설은 3분기까지 5,000억 원의 저조한 실적에 머물렀으나 공공 부문 약 4,000억 원과 자체 사업 약 5,000억 원 등 4/4분기에만 2조 8,0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브라질 CSS 압연 플랜트, 동티모르 시멘트플랜트 등을 수주해 총 5조 9,000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경쟁 심화, 수익성 저하 등 해외 시장의 사업 환경 악화에 따라 외형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고 철저한 수익성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몽골, 호주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을 활발히 전개해 [포스코그룹](#) 외 수주 비중을 94%로 높이고 대외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사 수주 3위, 국내 토목·환경 분야 단위 수주 1위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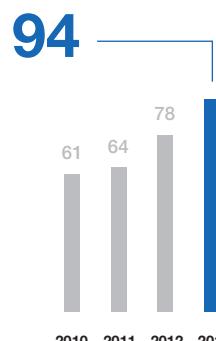
그룹외 수주 비중

(단위: 조 원, %)

연도별 수주액



연도별 수주 비중





에너지

포스코에너지는 1969년 경인에너지라는 사명으로 국내 첫 민자발전사로 출범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왔습니다. 2005년 포스코파밀리로 편입된 후 인천 LNG 복합 5, 6호기의 준공, 광양부상 발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최대 민간 발전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이래 친환경 에너지인 연료전지 제조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부생가스발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국내외 시장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사명을 포스코에너지로 변경했으며 미래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포스코에너지는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와 연료전지 매출의 본격화, 신안 태양광발전 단지와 부산 폐기물 고형 연료화 발전설비 준공으로 고효율 발전에 따른 수익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입지도 공고히 했습니다.



ICT

포스코ICT는 IT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목해 EIC 전 분야에 대한 자력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하고 포스코 해외 제철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포스코파밀리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사업 비중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솔루션 사업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뿐 아니라 원자력 사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펼쳐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외 시장경제의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저 성장의 경영 환경 속에서 포스코ICT는 매출액 1조 507억 원, 영업이익 716억 원의 실적을 달성해 창립 이후 사상 최대의 경영 성과를 기록했으며, 유상증자 등을 실시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도 더욱 든든히 했습니다.



소재

발전 설비 증설 현황

* 2013년 말 기준

프로젝트	규모(MW)	공정률*	상업운전개시
포항부생가스			
1호기	145	96.9%	2013.9
2호기	145		2014.2
인천 LNG 복합			
7호기	420		2014.7
8호기	420	79.1%	2014.11
9호기	420		2015.1
인니부생가스			
1호기	100	99.9%	2014.2
2호기	100		2014.4

포스코켐텍은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 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소재회사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 내화물회사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칼슘(2009년 12월), 포스그린(2010년 7월) 등의 합자사 설립과 침상코크스, 등방흑연블록 등의 케미칼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으며,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에 빌맞춰 해외법인도 설립했습니다. 2013년 포스코켐텍의 매출액은 1조 2,806억 원, 영업이익은 7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철강원료 및 철강포장 전문기업으로 철강부원료(알루미늄 틸란제, 몰리브덴)의 공급과 철강포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철금속 제련, 합금철 등 소재사업 영역을 개척해 철강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IDENTIFYING MATERIAL ISSUES

중요성 평가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과 기업 경영의 영향도를 파악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2008년 자체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했으며, 매년 보고서 제작 과정의 개선 사항과 피드백을 반영해 보고서 제작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경영 활동에서 잠재적 영향도가 높은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요성 평가 전년 대비 개선 사항



글로벌 가이드라인 이슈 반영

2013년 발표된 GRI G4 가이드라인을 중요성 평가에 적용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보고서 발간 기획 단계에서 내부 이해관계자는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NPO, 해외 투자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중요성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중요성 평가 선정 중요 이슈 별도 정리

2013년 중요성 평가 중 상위 이슈들을 'KEY ISSUE'로 별도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 이슈의 기회·위기요인, 기업 경영의 주요 방침과 활동에 대해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2013 중요성 평가 상위 10개 이슈

순위	이슈 풀	순위변동	구분	이해관계자
1	경영실적(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성과)	-	경제	주주
2	기업 지배구조(CEO 선임 등)	+7	경제	주주
3	안전/보건(재해사례, 휴업도수율 등)	+9	사회	직원
4	고객관계관리(고객만족도, 품질 경영)	-1	사회	고객
5	연구개발(R&D 비용, 연구개발 성과, 신기술 개발 등)	-3	경제	주주
6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1	환경	환경
7	서플라이 체인 전체 CSR 역량 강화	+20	사회	파트너
8	직원 근무 환경(일과 삶의 균형, 비차별 원칙)	-4	사회	직원
9	공정거래 활동	+13	사회	파트너
10	위험관리(재무, 비재무 통합 관리)	+5	경제	주주

KEY ISSUE

2013년 중요성 평가 중 상위 이슈들을
본문 내용과 KEY ISSUE로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 ❶ 경영실적 : 2013년 성과 및 2014년 계획 P 14
- ❷ 기업 지배구조 : 지배구조 P 12
- ❸ 안전/보건 : Global 안전보건 시스템 P 93
- ❹ 고객관계관리 : 고객가치 창출 P 55
- ❺ 연구개발 : FINEX P 47
- ❻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개발 P 46
- ❼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CSR 역량 강화 :
오디샤 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 면방사업 P 32
- ❽ 직원 근무 환경 : 힐링코칭 프로그램 P 93
- ❾ 공정거래 활동 : 공정거래 P 67, 성과공유제, 월크 P 77
- ❿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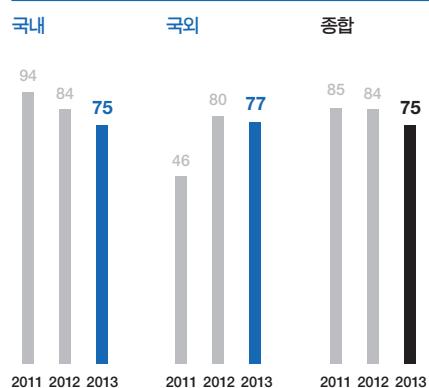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비즈니스 중요도

긍정도 변화 추이

(단위: %)



긍정도=긍정보도 기사 건수/전체 기사 건수

긍정보도

- 사회공헌 프로그램(문화가족 지원, 스틸하우스 건축 등)
- 신사업(철강 이외 소재, 에너지 분야 진출)
- 혁신경영 및 원가절감
- 일자리 창출(고용, 사회적기업, 벤처지원, 고출제옹 등)

부정보도

- 해외 진출 시 원주민 인권 침해 및 아동·강제노동
- 인수합병 및 그룹사 구조조정
- 안전/보건(재해사례, 휴업도수율 등)
- 유해화학물질 관리

CSR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체계

CONTENTS

21 지속가능경영체계

22 이해관계자 의견

25 포스코페밀리 CSR 역량 진단

26 기업윤리

임직원 교육과 캠페인
지속 실시

윤리실천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

포스코페밀리와 함께
성장하는 윤리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차원의
윤리 리스크 예방

28 인권경영

윤리규범에 입각한 인권경영

윤리실천을 통한 인권 보장

인권 고충처리체계

인권경영에 대한

포스코페밀리 인식 확산

보안 인력에 대한

인권·윤리 교육

29 위험관리체계

전사통합 위험관리체계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유

포스코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문화 확산

리스크 자율예방체제 구축

재무보고 내부통제

32 KEY ISSUES

01: 해외 사업장 인권 이슈 대응

- 인도 오디사 일관체 철소 프로젝트
-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
면봉사업

02: 행복경영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통하고 실천하면서 발전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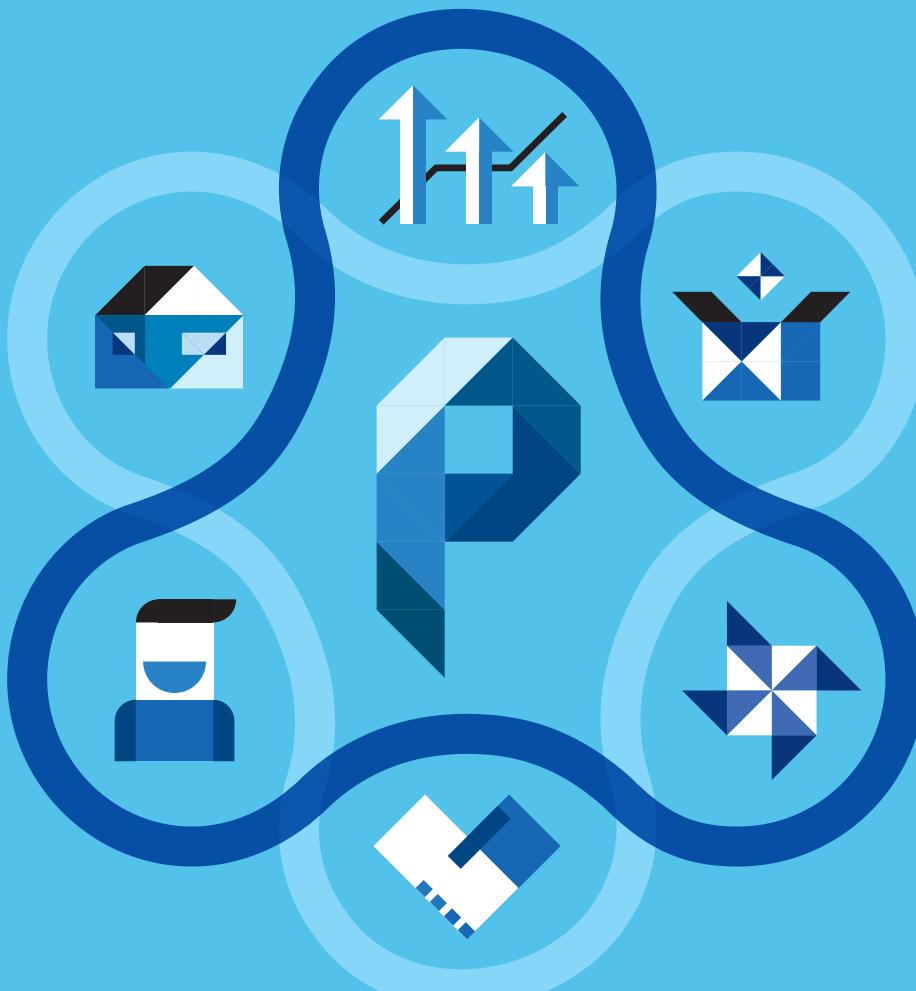
이해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제 경영 활동에 면밀히 반영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경제와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의 준수와 인권경영의 실행으로 글로벌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체계



다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철강산업은 경제,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포스코는 철강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창업 이래 환경을 중시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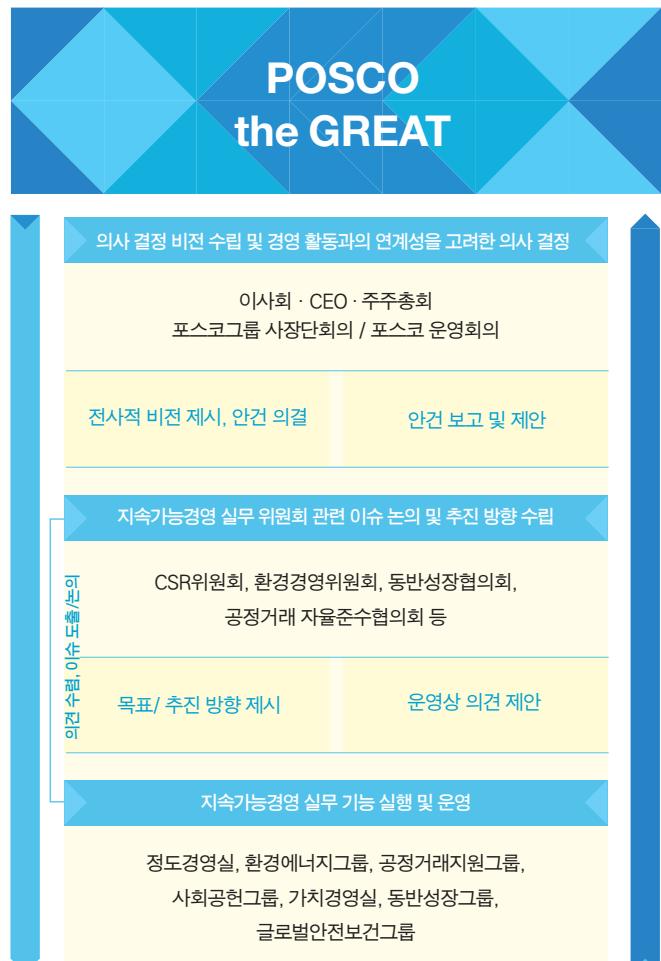
2003년에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경영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하고 CSM(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팀을 조직한 이후,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1년에는 환경 중시와 인간존중의 가치를 이어받아 포스코 고유의 이해관계자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업무는 사랑받는 기업 추진사무국에서 운영했으며, 2014년 3월부터는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자 재무투자 본부의 환경에너지실에서 지속가능경영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영 활동은 이해관계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사회, 파트너, 주주·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으로 분류하고 이들과 소통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분류하에 각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인 사랑받는 기업 현장¹을 대내외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그 활동을 정리한 사랑받는 기업 백서²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³ 발간,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패널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해 '전략적 이해관계자 관리 실행 매뉴얼'을 개발해 이해관계자 연관부서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주관부서인 환경에너지실에서는 이해관계자 활동,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계열사의 CSR 역량을 진단·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 1회 포스코그룹 사장단회의나 포스코 운영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CEO에게 보고하며, 수시 이슈가 있을 때 사장단회의, 운영회의, 임원회의를 통해 보고합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구분	주기	위원장	참석 대상	활동 내용
환경경영위원회	연 1회	CEO	포스코파밀리 각사 대표	포스코파밀리 환경·에너지 중기 경영전략 수립
동반성장협의회	연 2회	CEO, 중소기업 대표	포스코 임원 및 각사 대표, 중소기업 대표	동반성장 활동 전략 수립, 포스코파밀리 성과 점검 및 공유
CSR위원회	연 1회	재무투자 본부장	포스코 임원 및 외부 전문가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선 방안 검토 전략적 CSR, 이해관계자 소통, 출자사 CSR 등
포스코파밀리 안전위원회	연 2회	철강생산 본부장	포스코 담당 임원, 포스코파밀리 각사 대표	안전 활동 점검과 안전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 수립
공정거래 준수협의회	연 2회	정도경영 실장	관련 부서 임원 (마케팅 구매 등)	CP 활동 보고 및 활동 계획 수립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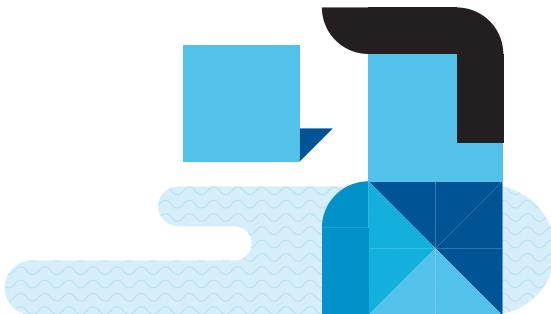
¹ 사랑받는 기업 현장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sustainable/able_01.jsp

² 사랑받는 기업 백서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opup/pop_2012/pop_120319.html

³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jsp/sustain/customer/s91d7000020l.jsp>

이해관계자 의견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매년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포스코 지속가능경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포스코는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1 대면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체는 중요성 평가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글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독자가 보기 쉽도록 질의 응답의 좌담 형식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HISTORY

포스코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 2003 ~ 2009 국내 및 해외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2010 ~ 2011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대상 이해관계자, 인터뷰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 대상 이해관계자 대화 개최
- 2012 사회, 파트너, 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 등 이해관계자별(SPICEE) 인터뷰 진행
- 2013 국내 및 해외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대상으로 대면 및 이메일 인터뷰 진행

지난해 포스코는 10번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시도했는데 지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임홍재 포스코가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합니다. 보고서 발간이 곧 기업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운영을 잘 보여주어 유용합니다.

류영재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하면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정책, 활동, 계획 등을 알리고, 다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경영에 반영하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포스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해관계자별로 구성해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별로만 활동을 언급해 회사 차원의 입체적인 조망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주원 투자자들은 이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슈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중요성 평가 역시 리스크와 기회 요인까지 포함해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이나 계획 위주의 리포팅이 많은데 목표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성과도 목표 대비 달성을 정도를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무 성과 보고서인 Annual Report와 비재무 성과 보고서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합,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연계해 경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강주현 비재무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재무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지 않으면, 사후에



성과를 수치화하기 힘듭니다. 기획 단계부터 목표로 하는 계량 · 비계량 및 직접 · 간접 성과를 정의하고 설계해 실행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Output)와 성과(Outcome)를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류영재 포스코 보고서는 통합보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함께 넣었을 뿐입니다. 책임투자자들이 볼 때에는 ESG* 분야에서 잘한 내용들을 나열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입니다.

백유경 통합보고를 위한 시도는 좋습니다만, 백화점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의 이슈 · 쟁점과 회사의 노력 등에 강약을 주면서 서술하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Mike Mansfield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에 의하면 통합보고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원으로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 가치를 창출 할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에는 IIRC가 추구하는 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본격 추진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재 인권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급망에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참고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박주원 Company Tree를 볼 때 한국 대기업의 경우 직영 사업장(Direct Operation)보다는 주로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각 공급사에 묻지 않고 포스코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는 Company Tree를 확장해서 봐야 합니다.

전민구 경영권이 없는 출자사의 경우는 지속 가능경영 측면의 관리,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권이 없는 출자사의 경우에는 비재무 리스크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출자 전에 사전에 사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넣어야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해 인도 오디샤 프로젝트,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 등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리포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주현 인권경영 부분을 따로 소개하고, 인도 오디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인권에서 인권 가치를 주로 보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인권 이슈가 경영 리스크관리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환경 · 사회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를 실행하고 이를 보고하면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류영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도 오디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보니 ‘우리는 정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기업이 잘못한 부분도 적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민구 관련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있으니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슈를 사실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스코의 대응을 적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포스코가 오디샤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보이게 됩니다.

포스코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는 동안 지속 가능경영의 트렌드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근 포스코가 주목하고 반영해야 할 지속 가능경영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유경 신흥국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이 계속 현지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점입니다. 포스코도 물론 그렇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지역별로 리스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원 관심을 가져야 할 트렌드는 물 이슈입니다. 철강업도 물 사용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Mike Mansfield 최근 화두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탈세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인권,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저탄소에 대한 내용도 강화해야 합니다.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 체취 – 생산 – 폐기로 이어지던 종전의 선형경제와 달리 자원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전민구 이해관계자 의견이 최고 의사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사랑받는 기업 연구포럼을 통해서 진행했으나 아직은 공식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연계되는 이해관계자 피드백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임홍재 기업인권(Business & Human Rights)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존루기(John Ruggie)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이슈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유경 포스코는 주주의 구성으로 볼 때, 경기 민감업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장기주주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소개하는 것이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전민구 최근 ISO 규정의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모든 표준이 이해관계자 리스크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모든 ISO 표준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하기에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강조됩니다.

임홍재 포스코 비전과 목표 설정에 UNGC^{*}의 4대 가치와 10대 원칙을 내재화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도 이 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발간도 중요합니다. 또한 UNGC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툴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계열사, 협력사들도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지속가능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UNGC(UN Global Compact) : 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균형발전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 윤리와 국제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

류영재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ESG가 기업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기업 리스크 관리 수준, 지속가능 경영의 내재화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포스코 역시 지속가능 경영이 기업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박주원 데이터 관리 범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직영 사업장보다 계열사나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관련 기업들의 데이터 커버리지가 넓을 수록 책임성이 강한 기업으로 봅니다. 데이터 관리 대상 기업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ike Mansfield 투자자는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주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발간 과정이나 발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발간 이후의 기업 액션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를 이용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 활용함으로써 '맞춤형' 이해관계자 연계 활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2013년 보고서¹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입니다.
포스코 지속가능경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결과

KPI가 회사의 비전, 목표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비재무 통합보고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KPI가 비전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비재무적 인 활동이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사랑받는기업 모델', 'SPICEE 모델' 등 회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용어가 비전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그 실체를 모르겠습니다.

'사랑받는기업'은 경영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 관리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쓰던 용어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랑받는기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관리'라는 용어로 회사의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인도 오디샤 프로젝트(제철소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 이주 및 환경 문제),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대우인터내셔널이 구입하는 면화 공급사에서의 아동노동 문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오디샤 일관밀 프로젝트와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 이슈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 Q&A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그룹과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를 관리하는 체계와 관리 범위(Coverage)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²

포스코 그룹 전체로 지속가능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포스코 패밀리 통합 데이터 관리를 시도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10개사의 성과를 포함했으며, 점차 통합 관리 대상 기업을 늘려 나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담당부서의 위치와 역할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담당부서는 포스코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체계'의 담당부서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포스코 CSV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신 트렌드인 CSV 사례를 넣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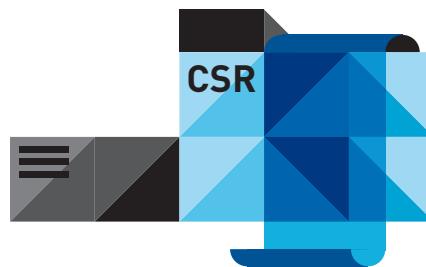
포스코 CSV 사례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를 가지는지 명시했습니다.

¹ 2013년 보고서에 이해관계자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업 경영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² 표시를 한 의견은 인터뷰를 실시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아닌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입니다.



포스코페밀리 CSR 역량 진단



포스코는 포스코페밀리의 CSR 역량 증진과 환경, 사회 등의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포스코페밀리 CSR 진단을 포스코 경영연구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지는 ISO 26000, SAM-DJSI 평가 항목, GRI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지침을 기반으로 포스코페밀리의 특성을 반영해 구성하며, CSR 동향, 각 회사의 사업 현황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업그레이드를 추진, 현재 세 번째 수정 및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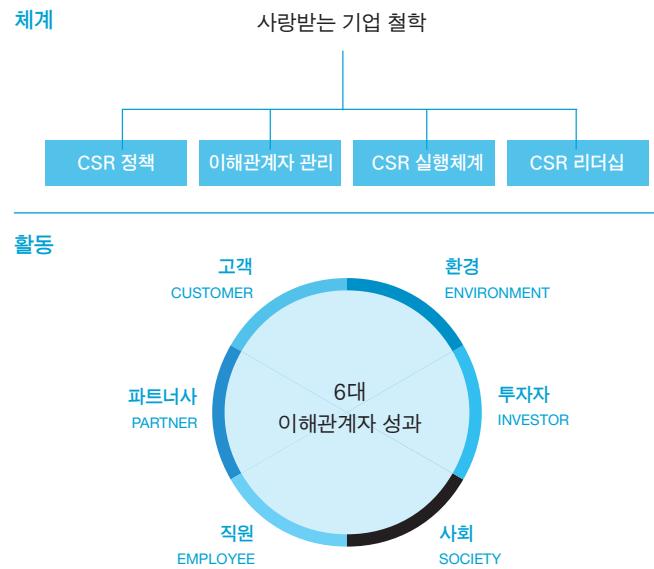
진단 지표는 CSR 리더십, CSR 비전과 정책, CSR 체계·문화, 고객, 투자자, 환경 등의 총 10개 분야 61개 항목과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지표로 구성합니다. 진단 프로세스는 자가진단, 전문가 실사·피드백을 거쳐 각 회사의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단 대상은 각 회사의 규모, 산업별 특성, 해외사업 진출 여부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우선순위를 정하되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최종 19개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진단 결과, 기준 참여 기업 8개사의 경우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개선활동 수행으로 회사 간 격차가 축소돼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신규로 참여한 4개사의 경우 기존 8개사 대비 전 영역에 걸쳐 점수가 낮아 CSR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도 제고와 더불어 실무부서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신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전부터 CSR 인식도 제고를 위한 CSR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포스코의 CSV(공유가치창출) 정책과 글로벌 CSR 동향을 반영해 진단지표를 개편함으로써 포스코페밀리의 CSR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스코페밀리 CSR 진단 지표 (10개 분야 61개 항목)



포스코페밀리 CSR 진단 프로세스(2013년)



포스코페밀리 CSR 진단 결과

연도	진단대상	진단점수(100점 만점)
2011	8개사	65점
2012	8개사	71점
2013	12개사	76점
2014(계획)	15개사*	79점(목표)

* 대상 기업 :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특수강,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SNNC, 포스코P&S, 포스코플랜텍, 포스코AST, 포스코엠텍, 포스코TMC, 포스코A&C, 포스코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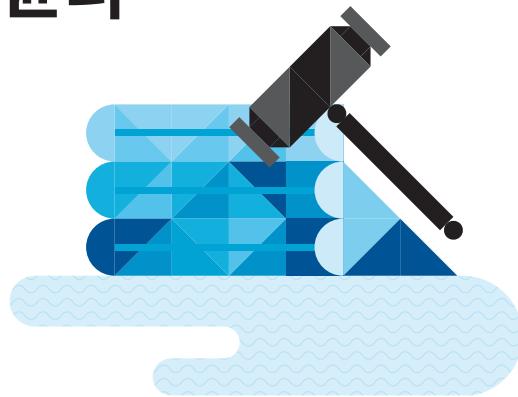
FOCUS

해외 CSR 체크리스트

포스코는 해외 사업장의 CSR 이슈 파악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10월 해외 사업장 CSR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진단 내용은 노동, 인권, 보건·안전, 환경, 공정거래, 지역사회 등 6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일럿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014년에는 해외 사업장 CSR 체크리스트를 보완, 개선해 해외법인과 주요 출자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윤리



뛰어난 설비, 효율적 프로세스와 더불어 그것을 제어하는 인적 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도 초일류 기업의 경쟁력을 기능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3년 6월 2일 글로벌 수준의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글로벌 초 우량기업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후 포스코는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확고한 철학과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 글로벌 기업에 맞는 제도와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실천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포스코 윤리경영의 요체는 ‘임직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의한 자율실천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으로 압축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직책보임자의 솔선수범 강조,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한 구성원의 윤리적 의식과 판단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의 체질화를 통해 기업윤리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윤리의 기본정신이 People(임직원), Practice(관행), Process(업무절차)의 3P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의 운영과 효과적인 실천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선포 10주년이 되는 2013년에는 ‘제10회 한국윤리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윤리경영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임직원 교육과 캠페인 지속 실시

포스코는 윤리실천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건전한 윤리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유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왔습니다. 임원 윤리세션 등 리더 계층 대상의 ‘윤리적 리더십 강화교육’, 조업·구매·외주 부문 등 이해관계자 접점부서 직원 대상의 ‘윤리 리스크 취약계층 특

별교육’, 임원이 직접 소속 부서원들에게 기업윤리를 교육하는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입사원과 승진자 대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기업윤리 e-러닝을 전 임직원 필수 이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과 홍보활동으로는 외주파트너사를 포함한 포스코 패밀리 전 임직원이 함께 보는 기업윤리 웹진 ‘올바르미’를 매월 발간하고, 사내 신문과 방송을 활용한 관련 홍보를 펼쳐 포스코 임직원이 일상에서 윤리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은 매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규범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윤리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집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는 신년 CEO 윤리경영 메시지를 발표하며, 윤리규범 선포일에도 CEO 메시지 발송을 통해 CEO의 확고한 윤리경영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신분증 뒷면에 기업윤리 자가진단표 5가지 항목을 인쇄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시 안내하는 등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부·실 단위의 선임 팀리더를 ‘옴부즈퍼슨’으로 신규 임명해 해당 부서의 윤리 리스크의 점검, 개선 등 모든 윤리실천 활동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윤리실천의 매신저 역할을 하는 ‘기업윤리실천리더’를 부·실 단위로 각 1명씩 선정해 임명하는데, 2012년에 그 명칭을 ‘윤리헬퍼’로 변경했습니다. 윤리헬퍼는 부서장을 도와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리상담, 관련 정보와 공지사항 전파, 교육 등의 윤리실천 활동을 수행, 지원합니다.

윤리실천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

포스코는 다양한 선진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 운영해 효과적인 윤리실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해 2011년부터 관리 책임 범위를 상위 직급자에서 임원까지 확대했으며, 뇌물수수 등 범죄 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혐사고발하고, 임직원 징계사항은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윤리 신고 보상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관련 신고로 회사의 손실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증대될 경우 신고보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시행 중입니다. 비윤리행위 신고와 윤리상담은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스코 신문고’를 통한 상담과 신고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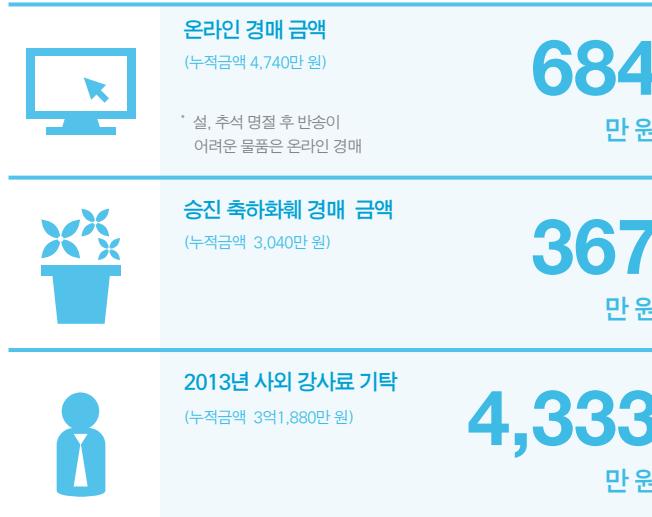
또한 포스코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선물반송센터와 함께 승진 축하화웨 경매, 과도한 경조금과 사외 강사료 기부 등을 통해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실천 활동 실적

선물반송센터 운영



나눔의 실천 온라인 경매 및 승진 축하회제 경매,
사외 강사료 기탁으로 사회봉사기금 조성(2013년)



단계별 주요 활동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성장하는 윤리경영

포스코는 포스코를 비롯한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등 포스코패밀리 차원으로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윤리경영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부서장 주도하에 포스코패밀리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윤리 리스크 발굴과 개선 활동에 초점을 둔 인프라로서, 2013년에는 포스코와 20개 주요 출자사, 5개 해외법인 등 총 2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 결과를 평가해 우수 회사와 부서를 선정, 포상하고 부서장의 인사평가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과와 부서 윤리 리스크에 대해서는 윤리주간(Ethics

Week)에 점검합니다. 윤리주간에는 담당 임원이 직접 각 부서의 기업 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활동 실적을 리뷰하고 한 해 동안의 윤리경영 활동 현황과 이슈, 다양한 윤리 관련 사례 등을 교육합니다. 정도경영실은 윤리헬퍼와 옴부즈퍼슨을 대상으로 매년 기업윤리 교육과 워크숍 등을 마련해 이들의 윤리실천 마인드 제고와 역할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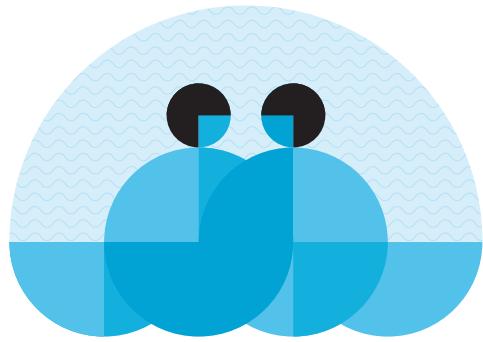
또한 외주파트너사와 공급사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개 공급사를 대상으로 포스코의 윤리경영 의지와 새로운 윤리경영의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와 계약할 때 사전 동의 아래 윤리실천 특별 약관을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거래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차원의 윤리 리스크 예방

윤리경영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핵심 요소라는 믿음으로 포스코는 해외법인과 사무소에 대해서도 글로벌 차원의 윤리 리스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해외법인 파견 예정인 법인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과 코칭 활동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중국, 멕시코에 위치한 포스코패밀리 법인을 직접 방문해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교육, 윤리실천 코칭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2011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FCPA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법령의 준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부패 법령의 준수를 윤리규범에 명문화했으며, 임직원 윤리규범 준수서약의 항목에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FCPA 전용 신고·상담 전화를 별도로 운영하며, 포스코패밀리 FCPA 준수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마다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빈부격차, 차별 등 사회적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인권 취약국으로의 기업 진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모든 직원이 차별받지 않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윤리규범에 입각한 인권경영

포스코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서 인권 및 노동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또한 포스코패밀리의 윤리규범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유엔 정책 프레임워크(UN Policy Framework)와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을 비롯한 글로벌 인권규범을 준수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업의 인권경영이 점차 강조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윤리규범에 인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지향합니다.

윤리규범 중 인권 관련 규정

4. 임직원

-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5. 국가와 사회

-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지역사회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현지국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2013년 포스코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해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기존 윤리규범의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2014년 6월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홈페이지 참고)

윤리실천을 통한 인권 보장

포스코는 윤리를 실천해 인권보장과 인간존중의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윤리실천 키워드는 배려와 상생, 신뢰로서 윤리규범 기본책무에 반영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철학을 이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 효과적인 제도와 연결시켜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담센터를 운영해 인권보장과 인간존중에 위배되는 행동, 사례를 접수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윤리딜레마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2011년에는 윤리규범을 해설한 가이드인 '기업윤리 핸드북'을 발간해 임직원의 윤리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행동준칙 제5항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e-러닝 과정과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존중해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직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취약계층 고용 증진을 위해 국내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를 비롯해 포스플레이트, 송도SE 등 3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처리체계 – 신문고 제도

포스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노력이 신문고 제도(Grievance Mechanism) 운영으로 이를 통해 인권 이슈를 파악·개선합니다. 신문고는 이해관계자들의 애로·고충사항을 접수해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온라인 공간입니다. 정도경영, 동반성장, 구매·판매 관련 고충 상담과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 해결합니다.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이 밑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신고자가 누군지 수소문하거나 찾으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보자 신원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에 아예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도경영실 임직원은 매년 초에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갖는 등 제보자의 신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신문고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common/support/s91i0000081m.jsp>(국문)
<http://www.posco.co.kr/homepage/docs/eng3/jsp/support/qa/s91f1010010.jsp>(영문)

인권경영에 대한 포스코페밀리 인식 확산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페밀리 전체가 인권존중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페밀리가 인권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내외 인권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시행한 ‘포스코페밀리 CSR 역량 진단’에 인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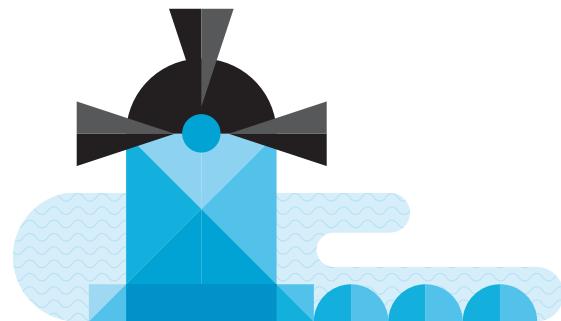
국제규범에 따라 만든 진단 툴에는 인권 방침, 현황 파악, 협력기업 인권관리, 인권 침해 사례 등 인권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권 방침 수립→인권 이슈 파악→인권 개선 방안 도출·실행→모니터링’의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진단을 실시해 포스코페밀리 전반에 인권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회사별로 개선 사항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전달해 포스코페밀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ISO 26000,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 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근간으로 해외 CSR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인권, 노동 분야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 인력에 대한 인권·윤리 교육(Human Right and Security)

포스코는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하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에 따라 보안 인력을 활용하며, 보안 인력들이 기본적인 인권·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 2회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민원 제기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 직원과 지역주민의 인권 존중을 강화합니다.

위험관리체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철강산업의 저성장 심화,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노출 확대 등 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포스코는 회사 내외부를 둘러싼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사통합 위험관리체계(ERM)

포스코는 2010년 상반기부터 성장투자사업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시작으로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과 규정 제정, 조직체계 정립 등 전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체계(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장기화, 복합화됨에 따라 경영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선행지표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선행지표와 리스크 이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리스크를 감지하며, 이상 징후에 대한 분석과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협업 부문의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선순환 프로세스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고, 그룹 경영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중점 위험 요인을 상시점검하는 체계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리스크 저감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 리스크관리 정책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sustain/riskcontrol/s91d5000010c.jsp>

▶ 리스크관리 규정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sustain/riskcontrol/s91d5000010c.jsp>

ERM 프로세스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유

리스크 선행지표 관리체계 포스코의 리스크 선행지표 관리체계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업 특성을 고려해 철강경기를 반영한 '철강 종합 리스크 지표',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금융 종합 리스크 지표', 포스코 진출 신흥국의 리스크 수준 측정을 위한 '신흥국 리스크 지표', 그리고 내부 핵심 업무에 대한 '마케팅 · 재무 · 원료 리스크 선행지표'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했습니다.

포스코는 전체 6개 지표를 구성하는 총 120개의 세부지표 분석을 통해 리스크의 변화 추세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선행지표 관리체계 구성



핵심 리스크에 대한 전사 공유 활동 포스코는 리스크 선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전사운영회의에 보고해 전 임직원이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의 수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주간 단위로 다양한 정성적 리스크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2013년에는 총 31회의 'ERM 주간 리스크 이슈' 보고를 통해 총 117개의 리스크 이슈를 분석 · 보고했습니다. 향후에는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시 분석 · 보고하는 체계로 전환하고内外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 관리 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상시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RM 시스템 운영 리스크 관리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 선행지표와 정성적 리스크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사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업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업 부문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지표를 ERM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관련 부서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포스코 '리스크 HUB'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포스코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리스크 관리 협업 네트워크인 'ERM 정보교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각 회사 간 리스크 이슈 사항을 공유, 공동 대응으로 연계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의 리스크 관리 활동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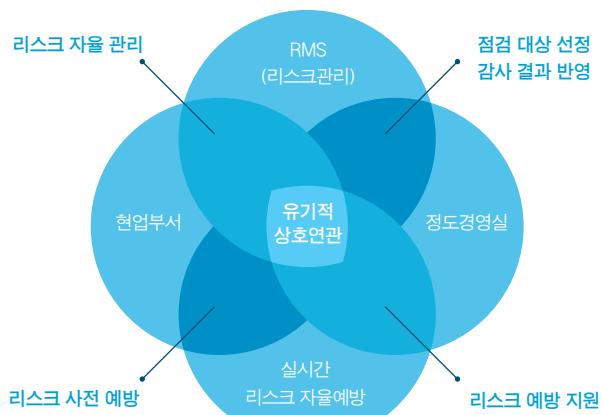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변화 관리 활동 포스코는 임직원의 리스크 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전사적 리스크 관리' e-러닝 과정과 사내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정기 10차수의 e-러닝 과정에 총 5,130명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리스크 관리의 기본 개념, 글로벌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사례와 리스크 관리 기법 등을 학습했습니다. 지속적인 사내외 홍보를 펼쳐 리스크 관리 활동을 포스코 그룹 차원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리스크 자율 예방 체제 구축

포스코는 내부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2004년 회사 전체 프로세스의 위험 관리 시스템인 RMS(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RMS는 재무, 전략기획, 투자 관리, 총무, 인사, 홍보, 기술 개발, 조업, 설비 관리 등 전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개별 리스크를 선정, 평가해 등급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RMS의 운영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 감사 활동을 연계하고 현업 부서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 간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 부서에서도 항상 리스크를 조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현업 부서와 내부 감사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기존 RMS를 더욱 발전시켜 전사자원 관리 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리스크 평가에 활용하며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발생 즉시 현업 부서로 통보하는 실시간 리스크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리스크는 내부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실패 사례들과 현업부서의 중점 관리사항을 위주로 선정해 임원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며 리스크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리스크 선정과 평가, 감사를 통한 리스크 통제 활동, 리스크 모니터링의 순환 프로세스 등으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펼쳐 리스크 자율예방체계가 실질적으로 정착,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체계도



전사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전사적 리스크관리 e-러닝 과정



재무보고 내부통제

한국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포스코는 2003년 12월에 공시와 내부 통제에 대한 CEO · CFO의 인증 절차 수립, 공시위원회 운영 등 재무보고 과정의 내부통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부터 내부통제 활동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OX법¹상 2006 회계연도부터 외부 감사인의 입증 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5년 3월 자회사를 포함한 포스코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평가 시스템도 구축, 완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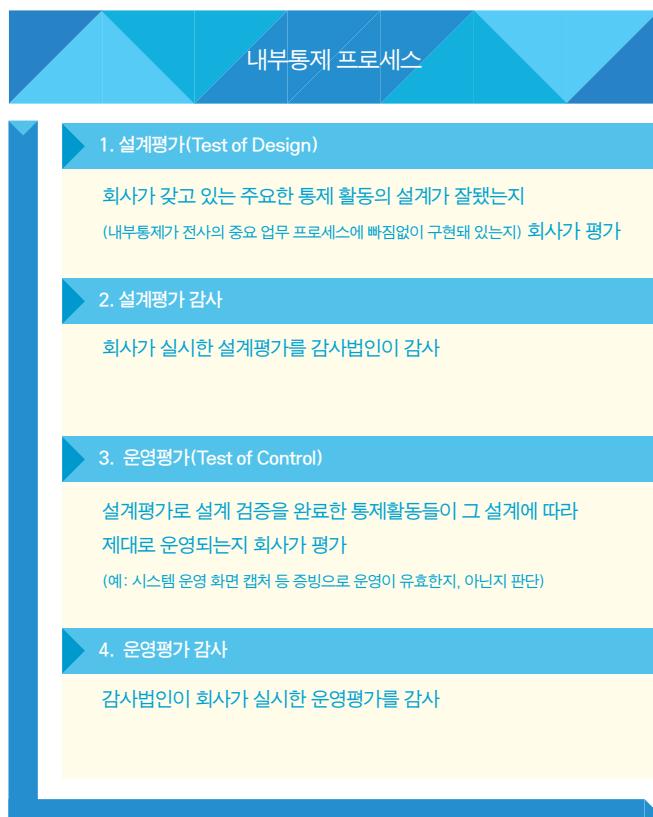
또한 2006년부터 외부 감사인의 인증 감사를 실시해 재무보고 산출과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재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COSO²와 미국 SEC에서 제시하는 'Standard Control Activity Framework'를 이용한 10개 부문의 중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업무 위험을 평가했으며, 통제 활동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는 현 업무를 이해하는 독립부서의 검증요원이 담당해 경영진 인증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자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¹ SOX(Sarbanes-Oxley)법: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 회계 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용

²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미국의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단체

재무보고 내부통제 프로세스



KEY ISSUE _ 01

인간존중 철학의 적극적인 구현 해외 사업장 인권 이슈 대응 I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 지역이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에 집중되면서 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지역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인도 오디사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2005년 포스코는 인도의 오디사 주정부와 4,004에이커 규모의 토지에 연산 1,2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립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MOU 체결은 기업의 사업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인도와 한국 사이 경제협력의 초석이 되는 프로젝트로서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이 인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이 주민 생계와 주변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FAQ(영문)
<http://posco-india.com/website/press-room/faqs.htm>

POSCO 인도 R&R 패키지

- 1 사유지에서 이주되는 가구에 대한 보상(주택·토지 권리기록 보유자)** : 보상금 제공, 직접 고용, 고용훈련, 생계 지원 등 보상 제공
- 2 100% 토지 상실자** : 오디사 주정부 R&R과 동일 보상, 우선적으로 고용, 고용훈련 제공
- 3 부분적인 토지 상실자** : 오디사 주정부 R&R에는 규정이 없지만 포스코가 고용훈련 제공
- 4 국유지로부터 이주되는 가구(국유지 불법 점유 거주자)** : 오디사 주정부 R&R에는 규정이 있지만 포스코가 가구당 주택 혹은 현금 보상 제공
- 5 불법 점유 농어업 종사자** : 베텔작물에 대해 오디사 기준의 두 배 수준 보상, 오디사 주정부 R&R에 규정 안 된 노동자, 새우연못, 논, 국유지 내 과일나무에도 보상

포스코의 투자 철학과 오디사 투자 범위는?

인도는 철강석 등의 자하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해 투자에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 기술 등 포스코 고유의 우수한 제철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제철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제철소 건설을 통해 인도는 고급 철강제품의 수입 대체, 저품위 철광석의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오디사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총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자 범위는 제철소 건설, 광산 개발, 항만을 비롯한 기타 인프라 개발 등입니다.

광산 개발에 대한 진행 현황은?

MOU에는 포스코에 전용 광산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디사 주정부는 2009년 1월 오디사 지역 내 칸다다르 탐사권을 포스코에 부여하도록 중앙정부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내 광권 선출원 현지업체가 자신들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오디사 고등법원은 주정부의 탐사권 추천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인도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중앙정부가 탐사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에서 탐사권 승인 절차가 재개될 진행 중입니다.

환경 승인 진행 현황은?

2008년 인도 대법원은 제철소 건설과 인프라 개발 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의 산림 지역 전용을 승인했습니다. 2010년에 인도 중앙정부는 'Saxena

'위원회'와 'Meena Gupta 위원회'에 삼림 전용에 대한 제소장을 의뢰했고, 2011년에 중앙정부에서 인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후 2014년 국가환경법원(National Green Tribunal, "NGT")이 산림 지역 전용과 관련해 주정부의 최종 결정 절차가 남았다고 해석함에 따라 현재 주정부가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인허가와 관련해서 2012년 국가환경법원은 인도 중앙정부가 2011년에 부여한 부가조건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12년 기준 5년 만기가 경과한 환경인허가 개선 승인과 함께 부가조건 검토 작업을 병행해 진행한 끝에 2014년 1월에 제철소 환경 인허가 개선을 부가조건 부여와 함께 승인했고, 전용항만 환경 인허가 개선에 대해서는 변경된 법규정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환경승인관련문서, National Green Tribunal판결 (<http://posco-india.com/website/sustainability/commitment.htm>)

제철소 규모를 1,200만 톤 규모에서 800만 톤으로 축소시켰나?

제철소 규모를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는 최종 연산 1,200만 톤 규모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0만 톤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4,004에이커의 부지 확보가 지연돼 프로젝트 1단계를 위한 2,700에이커 부지가 먼저 확보되면 건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700에이커의 부지에 1,200만 톤 제철소 중 1차 400만 톤, 2차 400만 톤 등 총 8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약 1,300에이커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면 나머지 4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 진행 현황은?

MOU 체결 이후 약 7년간 오디샤 주정부는 4,004에이커의 부지를 포스코에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한 4,004에이커 중 89%인 3,566에이커는 오디샤 주정부 소유이고, 11%인 438에이커가 개인 소유입니다. 오디샤 주정부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은 평화적이었습니다. 포스코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방안도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포스코의 R&R 패키지¹⁾는 2010년에 NGO, 지역 대표, 정부 관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주위원회(RPDAC)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확인·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실사를 했는지?

포스코는 인도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오디샤 지역에 적극 투자해 지역사회 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부지 인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06년과 2010년에 NGO, 지역 대표, 정부 관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주위원회(RPDAC)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승인하에 R&R 패키지¹⁾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청회, 188회 이상의 대중 집회, 1,399번 이상의 개별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인도의 명망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사회경제적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습니다. 2006년에는 NCAER(National Council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2008년에는 XIMB(Xavier Institute of Management)에 의해 해 사회경제적영향평가를 수행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항만과 제철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공청회에서 언급됐던 사항도 평가했습니다.

¹⁾ R&R 패키지 :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2만 2,000 명의 지역주민을 이주시 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은 생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데?

포스코는 프로젝트 부지 선정 시 바닷가 모래 지역 등 거주 인원이 거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이주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을 수차례 변경해 확정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부지인 4,004에이커 중 3,566에이커의 국유지 내

에는 불법 점유한 거주지가 매우 드물게 있고, 438에이커의 사유지에는 몇몇 마을이 포함돼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3개 그룹 판차야트(마을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총 인구는 4,044가구, 1만 8,296명입니다. 2008년 실시한 XIMB의 사회 경제적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중 실제로 466가구, 2,229명이 이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는 우선 프로젝트 1단계인 8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위한 국유지 2,700에이커를 임대받게 되는데 이 부지가 확보되면 65가구 정도만 이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정책도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이주위원회(RPDAC)의 승인을 얻은 R&R 패키지는 오디샤 주정부가 요구하는 R&R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오디샤 주정부 R&R 패키지에는 규정이 없는 국유지 내 이주자에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과 생계비를 제공합니다.

어민들을 위해서도 둑(jetty), 모터보트 등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효과적 고충처리제도(Effective Grievance Redressal Mechanism:GRM)'를 두어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강제이주 및 체포 위협 때문에 주민들의 외부 출입이 통제돼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인권 침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도 대법원 산하 인권조사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지역에서 인권 조사를 했으나 어떠한 차별이나 권리사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오디샤 주정부에도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생계 보호를 요구했으며 불법적인 폭력을 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스코가 이주민 52가구에 임시보호소 (Transit Camp)를 제공했으나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데?

임시보호소 거주민은 R&R 혜택 제공 대상 이주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마을에서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로 오디샤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포스코가 인도적 인 차원에서 임시 거처를 건설해 2008년부터 주거공간, 전기, 일정액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진 지붕, 화장실 등을 유지·보수해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주정부에 의한 국유지 인수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주정부는 임시보호소로부터 주민들의 마을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일 프로젝트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는데?

주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반대파들이 과트나 마을에서 폭탄을 만드는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이들은 주정부의 부지 인수 작업을 방해할 의도로 폭탄 제조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 반대단체(PPS)의 리더인 아비야 사후가 이 폭발 사고 배후 혐의로 체포, 구금된 바 있습니다.

HISTORY

인도 오디샤 프로젝트 진행 경과

- 2004. 10 노무현 대통령 방한 기회로 오디샤 프로젝트를 '양국 간 핵심 협력사업'으로 채택
- 2005. 06 오디샤 주정부와 MOU 체결(1,200만 톤 규모 제철소 및 항만 건설, 철광석 광산 개발)
- 2006. 02 TISS(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에 '포스코 R&R 패키지 및 경제사회 조성' 을 역수행 - 73% 조사 원료 후 반대 주민들의 현장 차단으로 조사 중단
- 2006. 11 NCAER(National Council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오디샤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사회적영향 분석
- 2007. 05 인도 환경산림부, 항만(Minor Captive Port) 환경 인허가/ 연안보호구역 해제
- 2007. 07 환경산림부, 제철소 건설 환경 인허가
- 2008. 08 환경산림부, 대법원 지시에 따라 1단계 삼림 해제승인
- 2009. 12 환경산림부, 2단계 산림 해제승인
- 2010. 07 RPDAC(재건/주변지역개발자문위원회), 프로젝트 지역주민에 대한 R&R 보상안에 대해 승인
- 2010. 07 오디샤 주정부, 현장 보상과 함께 부지 내 불법 경작물 철거 개시
- 2007. 10~ 오디샤 주정부, 삼림 지역이 아닌 548
- 2010. 07 에이커 임대(해안 지역 부지)
- 2010. 08 환경산림부, 오디샤 주정부에 의한 부지 인수 작업 중지 명령
- 2011. 01 환경산림부, 인허가 재심의 후 조건을 부가해 기존 환경인허가가 유효함을 발표
- 2011. 05 환경산림부, 오디샤 주정부에 삼림 전환을 최종 승인(삼림권익법 보호 대상자인 전통적 산림가주자가 없음을 확인)
- 2011. 05 오디샤 주정부, 주정부 소유 토지 인수 작업 재개
- 2011. 12 건설 준비 작업과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부지 지역에 사무소 개설
- 2012. 03 NGT(국가환경법원), 기존 환경승인은 유효, 2011년 1월 부여한 추가 조건에 대한 재검토 명령
- 2013. 02 오디샤 주정부, 부지 인수 작업 재개(2013년 7월 2,700에이커 내 불법경작물 철거 완료)
- 2013. 05 인도 대법원 광산 탐사권 최종 판결
- 2013. 10 SRI투자기관, 오디샤 프로젝트 현장 확인
- 2014. 01 오디샤 주정부, 광산 탐사권 재추천

해외 사업장 인권 이슈 대응 II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 면방사업

포스코 출자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세계 주요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에 2개의 면방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의 면펄프 생산법인에 35%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부터 판매까지 국가가 주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성 산하의 3개 국영기업인 Uzmarkazimpex, Uzprommashimpex, Uzinterimpex¹⁰ 관할하고 있습니다. 면방법인들은 이들로부터 면화를 구매한 후 가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합니다.

지난 2007년 10월 영국 BBC가 가을 면화 수확기(9~11월)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운영하는 면화농장에서의 아동 강제노동 발생을 보도한 이후, 국제 NGO 연대인 코튼캠페인을 비롯한 관련 NGO들이 우즈베키스탄 면화 불매운동 등을 펼치며 이와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ILO 최소 연령 협약(the ILO Minimum Age Convention)' 체결국이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최악의 아동노역 형태에 대한 ILO 협약(the ILO Convention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을 비준한 이후, 아동보호법 제정(2009년), '아동 방치 및 청소년 비행 방지법(On the prevention of child neglect and juvenile delinquency)' 제정(2010년), '12~13년 면화수확기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근절을 위한 추가조치' 결의안 통과(2011년), 아동 강제노동 금지법 제정(2012년) 등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아동 강제노동을 종식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LO의 현장조사를 수락했으며, 이에 ILO조사단은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면화 수확기)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총리는 'International Uzbek Cotton and Textile Fair'에서 면화사업기계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12월에는 한국LS엠트론과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농기계 회사인 ASI(Agromash Sanoat Invest) 간 5억 달러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제품 현지화와 목화 전용 트랙터 개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아동 및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인권, 환경 등 CSR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영지원부문장, 정도경영실 등 유관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CSR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1회 및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CSR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외국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육, 안질환 치료지원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포스코파밀리 CSR 진단을 통해 CSR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화사업과 같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CSR 리스크를 줄이도록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과 해외 CSR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포스코그룹과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예방하도록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새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HISTORY

우즈베키스탄 인권이슈 진행 결과

- **2007** 영국 BBC News, 아동 강제 노동 관련 보도 후 NGO 및 언론 관심 증대
- **2008** 우즈베키스탄, 최악의 아동노역 형태에 대한 ILO 협약 비준
- **2009** 국제 NGO 연대 'Cotton Campaign', 연대 활동 시작, 우즈베키스탄 아동보호법 제정
- **2011** 우즈베키스탄, 12~13년 면화수확기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근절을 위한 추가조치' 결의안 통과
- **2012** 우즈베키스탄, 아동 강제노동 금지법 제정
- **2013** ILO 조사단 면화농장 모니터링 수행(9~10월)
- **2014** ILO 아동노동실태 보고서에 수록 예정

대우인터내셔널 사회공헌활동

청소년 발전 기금 기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청소년 발전 기금 기부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of Uzbekistan), 페르가나주(Fergana State)

장학금 지원

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학생 중 매년 5~6명을

선발해 장학금 지원

페르가나 주립 대학(Fergana State University), 페르가나 폴리텍 연구소(Fergana Polytechnic Institute), 타슈켄트 정보기술대학(Tashken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고아원 방문

매년 고아원 방문 행사 개최

무의탁 노인 대상 봉사

회사 인근 무의탁 노인 돌보기 봉사활동 시행

지역 아동센터 지원(계획)

교육 소외 지역을 발굴해 방과후 교실 교육 지원

- 시온고 어린이 교육회관(타슈켄트주 아흐მद야씨비 지역)
- 미라바드 IT 교육센터(타슈켄트시 미라바드구)

의료캠프 지원(계획)

무료 안과 외래 진료 및 백내장, 소아안과, 수술 지원

- 타슈켄트 및 페르가나 지역

¹⁰ 2014년 1월 ILO는 제네바 총회에서 "ILO 조사팀은 목화 수확 철인 2013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명의 국제전문가와 40명의 모니터 요원을 파견해 우즈베키스탄 내 806개 농장과 농가건물, 1,592개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아동이 가족을 도우려고 자발적 노동을 한 경우는 있었으나 조직적으로 아동들을 노동에 투입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음. ILO 조사팀은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넘겼으며, ILO는 회의를 거쳐 이를 2014년 ILO 아동노동실태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임.

KEY ISSUE _ 02

새로운 윤리경영으로의 도약 행복경영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10주년을 맞아 2013년 6월 24일 기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윤리경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신(新)윤리경영 선언을 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신윤리경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임원 윤리실천 다짐대회와 신윤리경영 콘퍼런스를 통해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했으며, 신윤리경영을 '행복경영'으로 정의했습니다.

포스코 행복경영의 필요성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포스코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소통의 경영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적극 부응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권·환경 등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글로벌 톱 수준의 실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스코는 태생적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존중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영 활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었기에 행복경영으로서 실천의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행복경영의 비전과 3대 핵심 가치

포스코 행복경영의 비전은 '다 함께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을!'입니다. 이는 행복경영을 통해 기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선순환하고 이 선순환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시스템을 실현해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전체가 행복해지는 더 나은 세상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의 행복경영은 미래, 공익, 상생의 3대 핵심 가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래(未來, Better Tomorrow)는 현재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상정하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넉넉한 미래사회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익(公益, Fair Interests)은 한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이익도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의 이익과 사회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영을 통해 비록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생태계의 구성원인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생(相生, Mutual Success)은 포스코는 고객사, 외주사, 공급사, 주주, 투자자, 지역 사회, 국가, 국제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생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더불어 성장, 발전하지 않으면 신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개별기업의 성장과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 행복경영 선언문

▶ VISION

다 함께 행복한 더 나은 세상!

핵심 가치

미래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경영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미래창조에 이바지한다.

공익

전체의 이익과 사회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영

한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의 행복에 기여한다.

상생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영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일터를 이룬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 가치별 실행 방안

'미래'를 위한 실행계획

FCPA, 인권, 환경, 다양성 등 글로벌 행동규범 재정립 / 국제협력단체 및 산학협력기관과 연계해 해외 새마을운동 등 사회공헌활동 전개 /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한 금연주비염(禁煙酒肥鹽) 운동

'공익'을 위한 실행계획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지원 활동 확대로 산업혁신운동 3.0 동참 / 거래상대방 선정 모범기준' 포스코패밀리로 대폭 확대 / 1%나눔 및 봉사활동 확산,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

'상생'을 위한 실행계획

성과보상금 투자재원 2,100억 원을 3년간 출연 / 중소기업지원펀드 조성 및 테크노파트너십 대폭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연근무, 직장 보육서비스 강화 등 일과 삶의 균형

INVESTOR

투자자

CONTENTS

37 투자자 정보

- 신용등급
- 배당
- 기업가치 및 대외평가

39 업무 혁신

- 파이 이노베이션
 - 포디치(기사)

41 기술 혁신

- 철강 부문
 - 주요 기술 개발 성과
 - 제선
 - 제강
 - 입연

신성장 기술 부문

- 주요 기술 개발 성과
- 니켈 습식제련 기술
- 융선비정질 Fiber 제조 기술
- 이차전지 양·음극재 제조공정 기술
-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 산업용 LED 조명 시스템
- 무촉매 전이에스테르 기술
- 리튬 추출 기술(기사)

44 KEY ISSUES

- 03: 포스피아3.0
- 04: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 05: FINEX

포스코는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의미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경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철강회사의 가치와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해 주주와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 정보



포스코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IR (Investor Relation) 활동과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 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분기별 실적발표회와 매년 초 실시하는 CEO Forum, Investors Forum을 통해 회사의 영업 실적과 경영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최고경영층으로부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적 발표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Non-Deal Roadshow, 글로벌 콘퍼런스, face-to-face 미팅과 콘퍼런스콜, 제철소 견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와 만나고 회사 경영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최근 수년간 철강산업의 저성장, 저수익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연이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3년 11월 Moody's는 포스코의 등급을 Baa2로 하향조정했으며, S&P는 BBB+ 등급을 유지했습니다.(2013년 12월 말 기준)

그러나 신용평가사는 포스코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원자 및 기술 경쟁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 대비해 독자등급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S&P	A (Stable)	A (Stable)	A- (Negative)	BBB+ (Stable)	BBB+ (Negative)
Moody's	A1 (Negative)	A2 (Negative)	A3 (Negative)	Baa1 (Negative)	Baa2 (Stable)

배당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배당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간 20% 이상의 배당성향과 2%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1988년 포항제철(주) 주식이 상장된 이래로 포스코 주권(국민주)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명부주주 중 배당금 이체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배당금 이체를 받지 못하는 주주들을 찾아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지급 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1	2012	2013
주당 현금배당금(원)	10,000	8,000	8,000
중간배당금(원)	2,500	2,000	2,000
배당금총액(10억 원)	772	618	633
배당성향(%)	24.2	24.7	40.0
배당수익률(%)	2.6	2.3	2.5

* 포스코 단독 기준

기업가치 및 대외평가

포스코는 2013년 원가절감 등의 비상경영 체제로 경영 여건 악화에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전 세계적 불황에 따라 경영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포스코 단독기준으로 2013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0조 5,435억 원, 2조 2,15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4%, 20.6% 감소했습니다. 실적 악화는 주가에도 반영됐습니다. 2012년 말 1월 34만 9,000원이던 주가는 2013년 12월 말 32만 6,5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원료 배합 단가 절감, 설비자재 최적화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판매를 강화해, 단독 영업 이익률 7.3%로 글로벌 철강사 중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입금 상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사주 처분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 속에서도 포스코는 우수한 경쟁력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기술력 · 수익성 · 원가절감 · 재무건전성 · 원료확보 등 총 23개 항목을 분석하는 평가에서 포스코는 2013년 2월에 7.78점, 6월에 7.73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근로자 숙련도와 노동생산성과 파이낸스 등의 혁신기술력, 원자경쟁력 항목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원자절감, 수익성, 신흥시장 확장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포스코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인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SAM-DJSI)'에 우수기업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는 2005년

부터 9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환경적 리스크가 높은 철강 부문에서 9년 연속 DJSI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는 포스코가 처음이며, 특히 환경 부문에서 글로벌 철강기업 중 가장 높은 90점을 받아 환경영영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 철강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철강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온 점과 해외 사회공헌, 동반성장 등에서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WSD 순위표

순위	2012	2013. 2	2013. 6
1	포스코(한국)	포스코(한국)	포스코(한국)
2	NLMK(러시아)	NLMK(러시아)	세베르스탈(러시아)
3	CSN(브라질)	세베르스탈(러시아)	뉴코어(미국)
4	세베르스탈(러시아)	JSW스틸(인도)	NLMK(러시아)
5	바오산강철(중국)	신일철주금(일본)	JSW스틸(인도)

SAM-DJSI 평가 결과

(단위: 점)

구분	경제	환경	사회	총점
포스코 점수	67	90	69	77
백분위 점수*	82	100	82	97
철강업계 최고점	82	90	81	79
철강업계 평균	53	38	44	44

* 백분위 점수: 철강산업군 내 포스코의 백분위 순위, 최고점(1위)일 경우 100점임.

SAM-DJSI 평가 최근 3년 총점 변화

(단위: 점)



2013년도 국내외 수상 내역

해외	2013.2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WSD: World Steel Dynamics) 2013.2 세계 최고 기업(Biggest Company) 200대 기업 184위 – 6년 연속 200위권(포브스) 2013.5 Steelmaker of the Year(올해의 철강사상) (철강기술협회, AIST-Association for Iron & Steel Technology) 2013.6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 – 6회 연속, 4년 연속(WSD) 2013.7 글로벌 500대 기업 포스코 167위 – 3년 연속 200위권(포천) 2013.9 탄소정보공개 최우수기업군(COP위원회) 2013.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우수기업(로베코샘, 다우존스) 2013.11 2013 동아시아 30 우수기업 (한겨레경제연구소, 아시아사회책임경영전문가위원회)
국내	2013.1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교육과학기술부) 2013.2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3.2 한국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신산업경영원, 지식경제부) 2013.5 국내 사회공헌 우수사례 선정(시사저널, 굿 캠퍼니 컨퍼런스) 2013.6 투명회계대상 최우수상(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2013.6 가장 존경받는 한국기업 2위(포춘 코리아) 2013.8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헤럴드경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2013.9 일하기 좋은 기업 철강업 1위 – 6년 연속(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3.11 2013 코칭문화 혁신 우수기업(한국코치협회) 2013.12 예술나무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12 지속가능경영 1위(서스틴베스트) 2014.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 운영기관 –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한국산업인력공단)

FOCUS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는 금융 정보 회사인 다우존스가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의 기업 가치 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DJSI는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된 세계 2,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스위스 샘(SAM) 연구소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분석을

통해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영성과는 물론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베코샘(RobecoSAM)은 회원사로 선정된 기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례 재평가를 통해 평균 10~15%의 기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주식은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ing)' 기금에 우선 투자 대상으로 추천돼,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투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됩니다.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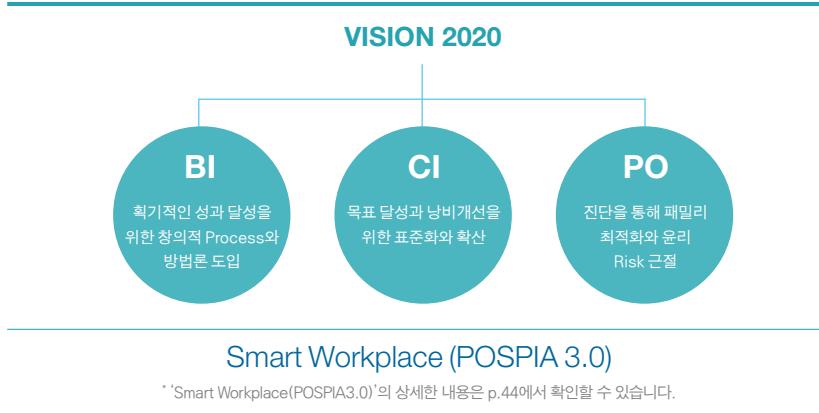
업무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은 기업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됩니다. 특히 극심한 철강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포스코에 강력한 혁신 역량은 필수적입니다. 포스코는 2012년부터 포스코 고유의 혁신 모델인 파이 이노베이션을 도입,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파이 이노베이션(π innovation)이란 '무한대를 상징하는 원주율 파이와 같이 무한대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분배의 원천인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개인의 성과도 커질 수 있다'는 '파이의 논리'에 착안한 것입니다. 기존의 실행력 강화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개하던 혁신활동만으로는 포스코파밀리 전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포스코의 파이 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 확대, 신사업 개발, 포스코파밀리 시너지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 창출과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 이노베이션



파이 이노베이션을 통해

Breakthrough Innovation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함께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Continuous Improvement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학습해 내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Process Optimization	지속적인 점검과 낭비제거를 통해 프로세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최적화시킨다.

다. 파이 이노베이션은 Breakthrough Innovation(BI), Continuous Improvement(CI), Process Optimization(PO)으로 구성됩니다.

BI는 글자 그대로 성장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혁신활동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빅 싱킹(Big Thinking) 프로세스로 획기적인 수익의 창출과 미래의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임원이 참여해 신사업 개발, 혁신적인 원가절감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제시된 아이디어는 결합(Combine), 삭제(Delete), 추가(Add), 협업 검토(Modify) 등의 과정을 거쳐 BI 과제로 최종 선정합니다. 2013년에는 총 23건의 과제가 CEO의 승인을 받았고, 그중 17건을 추진했습니다.

CI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 활동 성공모델을 포스코파밀리로 확대해 패밀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 활동입니다. 기존의 QSS1, 트리즈(TRIZ)2, Mega-Y3, Big-Y 등 포스코 혁신 활동을 표준화해 확산하고 체질화합니다. 2013년에는 전년 3,004건보다 30% 증가한 4,265건의 QSS 과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에까지 포스코 혁신모델을 전파해 2013년에 총 197개의 중소기업에 맞춤형 QSS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전사적으로 협업해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Mega Y 과제의 경우 부산물 수익성 향상, 안전재해 제로화, 혁신고유제품 개발 등 총 10건을 수행해 약 1조 1,0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각 부문 내에서 진행하는 Big Y 과제는 고질 문제, 품질 개선, 수익성 창출 과제 등 총 3,484억 원의 재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159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¹ QSS(Quick Six Sigma) : 6시그마 기법을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혁신 기법

² 트리즈 (TRIZ) :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 근본 모순을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³ Mega-Y : 전사 차원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임원의 오너십하에 복수의 부문 단위 간의 협력을 통해 개선하는 테스크포스형 혁신 활동

포스코 혁신 활동

1999 - 2001

PI (Process Innovation)

프로세스 혁신:
고객 중심으로 회사, 내부 프로세스 전면 재설계

2002 - 2011

6Sigma

통계적 문제 해결:
평균과 편차 관리 개념 도입,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2012 -

π Innovation

가치창조 혁신:
지속적인 효율성 향상과 획기적인 경영성과 창출 추구

PO는 프로세스상의 윤리적 리스크와 비효율 등을 진단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진단 활동입니다. PO를 통한 진단은 Customer, Output, Process, Input, Supplier 순으로 개선 기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담당자와 공급자의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저해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등 체계화된 진단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판매·물류 프로세스를 진단해 289억 원을 절감하는 등 프로세스간 낭비 요소와 비효율을 제거해 포스코 패밀리의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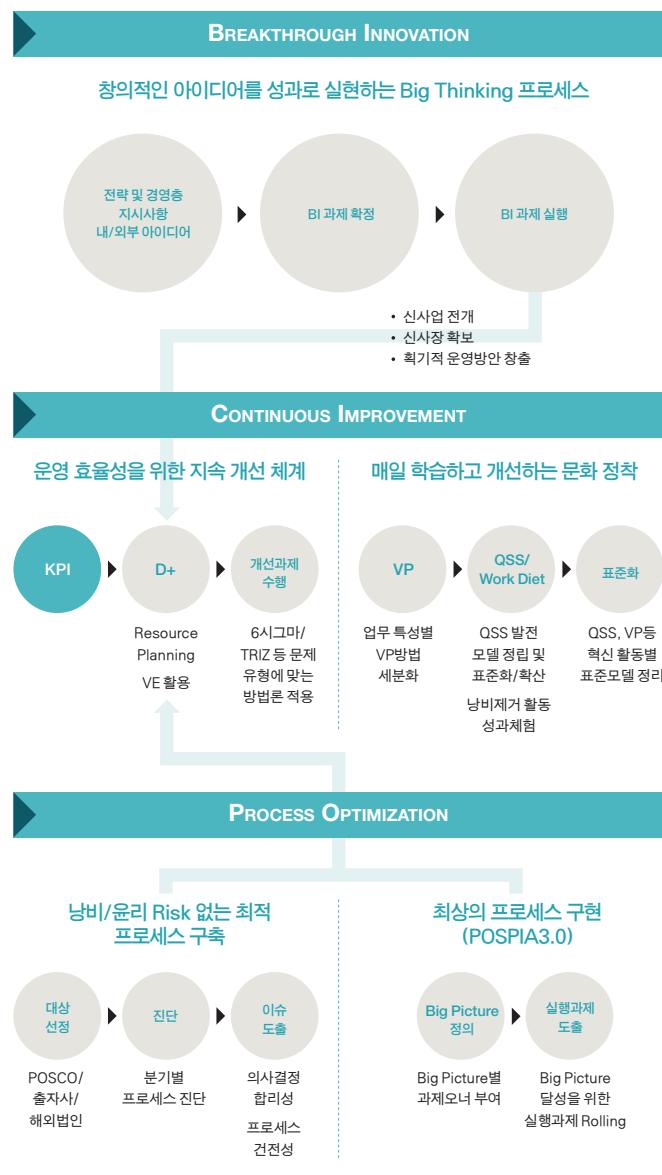
2014년에는 기존 혁신 활동을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Project-based Working Process)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탁월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 방식'을 통해 'POSCO the Great'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포스코 고유의 혁신 활동*



* Big-Y : Mega-Y와 달리 부문 내의 각 부서 협력을 통해 개선하는 혁신 활동

II INNOVATION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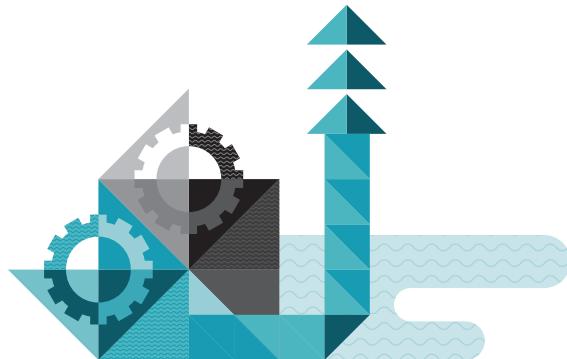
FOCUS

포스코 가치 혁신의 산실 포디치(PODICI)

포스코는 리얼타임 경영과 패러독스 경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혁신 몰입 공간인 포디치(PODICI)를 포함(2013년 6월)과 광양(2013년 11월)에 각각 설립했습니다. 포디치는 포스코(POSCO)와 메디치(MEDICI)의 합성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문예부흥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메디치家の 후원으로 재능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메디치家の 철학에 착안해 포스코 고유의 가치 혁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포디치에서는 다양한 혁신 방법론, 기계공학, 금속학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지원과 부서 간 협업팀(Cross-Functional Team:다기능팀)이 모여 집중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창의·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몰입, 협업, 창의라는 3가지 모토를 실현하며, 경영 임팩트가 크고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주요 기술 개발 성과

제선



- 세계 최대 내용적 6,000m³ 고로 설계 및 조업 기술 개발 추진(광양제철소)

고유의 고로조업과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고로 설계와 건설

세계 최대 고로 화입 후 조기 정상조업도 달성
고효율 고생산 조업 기술 확보

- 제선공정 저가 철원류 다양 사용 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No.1 원가 경쟁력 추구

소결공정 활용 저품위 철광석¹ 및 소내 함철부산물² 다양 사용 기술 확보

- 2.0Mt Slim FINEX(파이넥스) 개발을 통한 FINEX 투자 경제성과 조업 경쟁력 향상

1.5Mt FINEX 프로세스 대비 동일 투자비로 생산성 증대 가능

- 점진적인 석탄품질 저하에 대응한 저가 석탄³ 다양 사용 경제적 코크스 조업 기술 개발 추진

저품위 석탄 다양 사용 조건에서도 코크스 품질을 안정·유지시키는 기술 확보

제강



- 제강공정 조업제어 자동화율 향상 및 저원가 조업 기술 개발

전로 조업모델 개발로 인적 요인에 의한 품질편차 저감

저가 합금철 발굴과 합금철 투입패턴 최적화를 통한 조강원가 절감 기술 확보
저급 원료 사용과 정련 리드타임 단축을 통한 제품 고품질 확보

- 극후물 슬라브 제조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강재 대량 생산 기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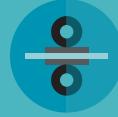
포스코형 주편 중합하 기술 개발(PosHARP), 400mmt 슬라브 제조 기술 개발로 극후물재 품질 향상

잉곳(ingot) 소재 대체 포스코형 극후물용 슬라브 연주기(LICC¹) 개발로 원가 경쟁력 확보

- CEM 제조 기술 업그레이드

CEM 고생산·고품질 박판 제조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프리미엄급 극박재 제조 기술 확보
저탄·고탄 및 고강도강 연연속 압연 기술 개발로 생산 가능 강증과 사이즈 범위 확대
CEM 직결 연연속 압연 기술 개발로 치수품질이 우수한 박물재 제품 경쟁력 향상

압연



- 고기능 열연재 제조 기술력 향상 기술 개발
→ 경쟁사와의 품질 차별화

고유 기술인 연연속 기술 적용, 통판성과 폭 제어 정도 향상 등 기반 기술 개선

- 4선재공장 준공으로 280만 톤 공급체계 구축

기존 공장의 한계를 넘어선 최신에 설비 도입으로 200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공급량 증대
국내외 자동차용 부품, 건축·교량용 제품 등 고급 소재의 충분한 공급 기반 구축

- 고기능 냉연재의 차별화 제품 제조 기술 개발

차세대 스마트 강판 제조 기술 개발, 임크젯 프린팅 기술, SST 300시간 보증 고내식 EG/GI 제품 혁신 공정 기술 개발 및 표면처리 강판의 고기능화를 통한 시장 선도 기술력 확보

- 스테인리스강 고품질 친환경 제조 기술 개발

고품질·친환경 제조 기술 개발로 스테인리스강 냉연 75만 톤 생산체계 구축
용선을 사용한 고품질 400계 스테인리스 생산 프로세스 구축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질산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고속 산세 프로세스 적용 확대

¹ 저품위 철광석 : Fe 함량이 낮고 불순물(SiO₂, Al₂O₃ 등) 함량이 높은 광석

² 소내 함철부산물 : 입도가 미세하고 수분, Zn, Alkali 등이 높아 일반적으로 폐기함.

³ 저가 석탄 : 코크스 제조용 석탄 중에서 점결성이 매우 낮아 스스로 코크스가 되기 힘든 저품위 석탄

* FINEX 공정의 상세한 내용은 p.47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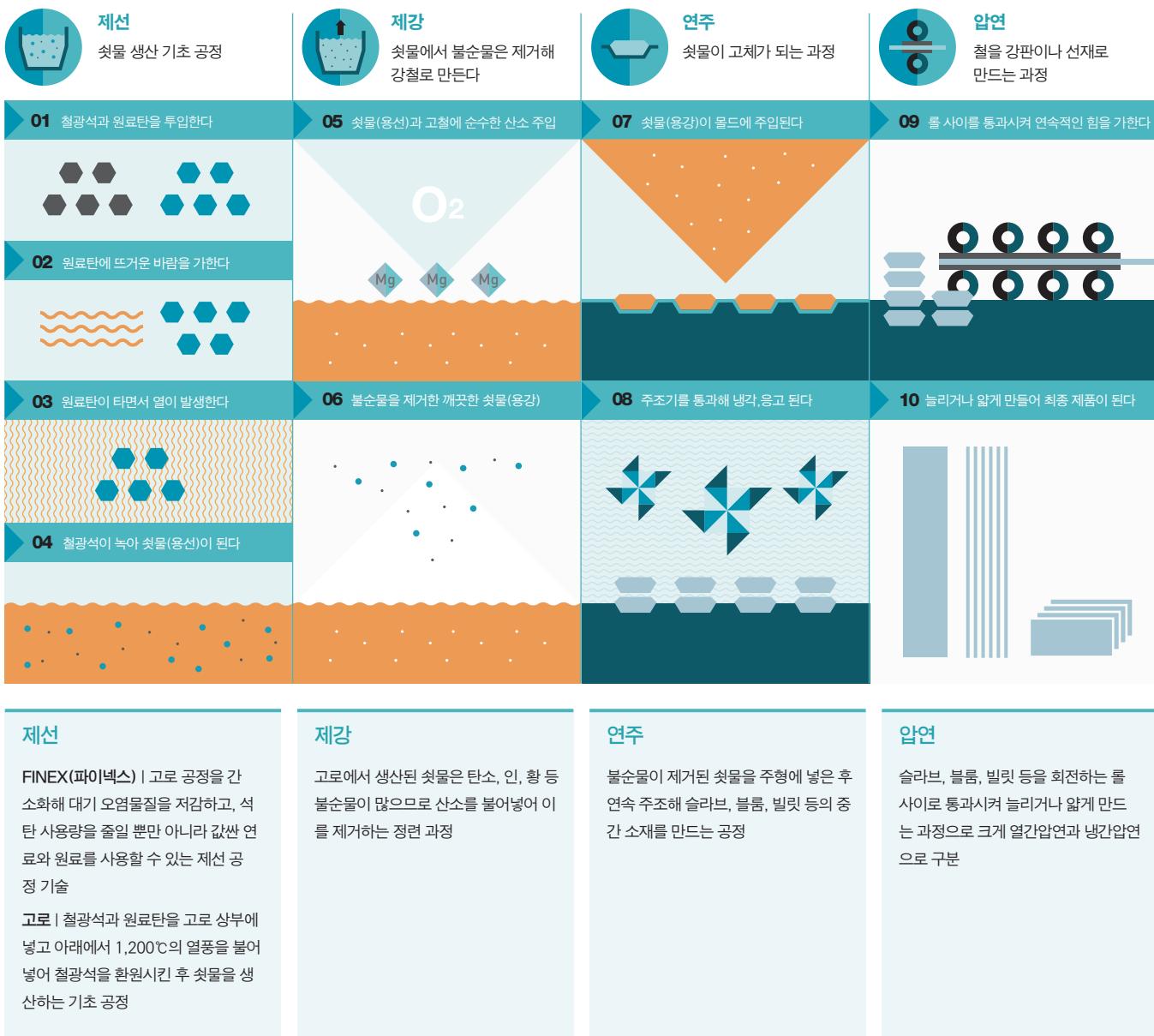
철강 부문

포스코는 글로벌 No.1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기술 전략과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고유제품을 개발해 철강 신수요를 창출했으며 제품의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고유의 혁신적인 철강 공정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현장의 공정 기술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원가절감 등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철강 융합 신기술 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개발을 통해 CO₂ 발생 원단위, 에너지 소비 원단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참여형 혁신)을 통한 기술 획득방안 수립 등 고유 기술 개발을 기속화하기 위한 효율적 기술획득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¹ LICC : 기존 잉곳 프로세스를 대체해 직사각형 슬라브 형태로 극후물을 생산하는 연주 공정

² 연연속 압연 기술 :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주 공정부터 최종 코일을 생산하는 압연 공정까지 슬라브를 절단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제철 공정



제선

FINEX(파이넥스) | 고로 공정을 간소화해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석탄 사용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값싼 연료와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제선 공정 기술

고로 | 철광석과 원료탄을 고로 상부에 넣고 아래에서 1,200°C의 열풍을 불어 넣어 철광석을 환원시킨 후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

제강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은 탄소, 인, 황 등 불순물이 많으므로 산소를 불어넣어 이를 제거하는 정련 과정

연주

불순물이 제거된 쇳물을 주형에 넣은 후 연속 주조해 슬라브, 블룸, 빌릿 등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공정

압연

슬라브, 블룸, 빌릿 등을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놀리거나 얇게 만드는 과정으로 크게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

신성장 기술 부문

2013년 한 해 동안 신성장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조기 성과 창출과 성장 모멘텀 확보를 목표로 고유 기술들을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경쟁력 · 경제성 검증 목적의 파일럿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염수리튬 직접추출 기술, 용선비정질 Fiber 제조 기술, 무촉매 전이에스테르 기술 등 7건의 기술이 파일럿 단계를 완료하고, 후속 연구개발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니켈 습식제련 기술, 이차전지 양 · 음극재 제조공정 기술, 건물용 연료전지(SOFC) 시스템 등은 World First · Bes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일럿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산업용 LED 조명 시스템을 포함한 매출 연계 신제품 개발과 실증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프로파일링,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구축해 적용했고, 고객 선점과 사전 마케팅

(Pre-marketing)을 위해 고객사와 포스코 패밀리 대상의 공동개발 협력을 확대했으며, 신기술 확보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교수단과 외부 전문가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중장기 목표로 '혁신적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리스크 축소'를 설정했으며, '고유 기술 집중개발을 통한 경쟁력 · 수익성 강화', '사업 중심 R&D 확대를 통한 조기 매출 기여' 그리고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운영을 통한 R&D 생산성 제고' 등의 기술 개발 전략을 2014년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14년 총 6건의 신성장 고유 기술에 대해 파일럿 검증을 완료하고 사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한편, 신제품과 양산 기술 최적화 추진을 통해 포스코 패밀리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 개발 성과

니켈 습식제련 기술 개발 스테인리스강과 이차전지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니켈은 지금까지는 고품위의 황화광으로부터 채취를 했으나, 황화광의 고갈과 신규 광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니켈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저품위 산화광을 이용해 고유 기술인 수소환원 및 침출법을 개발, 파일럿 연구를 통해 고유의 신 니켈제련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폐침출액과 폐잔사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을 확보해 고가의 희소금속 생산과 폐기물 저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공정 안정화를 위한 파일럿 연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상용화하면 저품위 니켈 산화광으로부터 90% 이상의 니켈 회수가 가능하므로 국내 니켈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선비정질 Fiber 제조 기술 개발 비정질 Fiber는 토목·건축용 콘크리트 부재료로 쓰는 고가의 소재로, 포스코는 제철소의 용선을 원료로 활용한 비정질 Fiber 대량생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콘크리트 부재로 사용하던 기존 경쟁소재 대비 우수한 1.44GPa의 인장강도를 달성했으며, 수요시장 개발을 위한 현장 시범적용 12건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시장적용 확대를 위한 사전 마케팅과 제품 물성 개선, 대량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 양·음극재 제조공정 기술 개발 이차전지 소재 분야는 향후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차세대 소재 기술 선점을 위해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협력과 연구 역량 집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LMO 양극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식 LMO 공정 개발을 완료했고, 최고 수준의 용량·수명 성능을 가진 LCO 양극재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고안전성 성능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양극재인 농도구배형 NMC 개발 중입니다. 음극재는 기존 천연흑연계 음극재의 성능 개선을 통해 고객군을 넓혀가고 있으며, 고용량 인조흑연 음극재와 실리콘-흑연 복합 음극재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건물용 연료전지(SOFC:Solid Oxide Fuel Cell)는 고효율·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기술로서 수십 kW급 규모의 건물용 열병합 시스템에서 MW급 규모의 발전용·선풍용 시스템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포스코는 SOFC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대면적 셀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로 10kW급 SOFC 시스템을 개발해 계통 연계 운전과 시스템 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LED 조명 시스템 개발 LED 조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산업용 환경에 특화된 LED 조명기구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13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개발 완료한 산업용 LED 조명기구는 고온, 고습, 고분진의 극한 환경에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

고 가벼우며 스마트 팬을 이용한 독자적 방열 기술과 주기적 분진 자동 제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조명제품을 뛰어넘어 IT 융·복합 인프라와 결합시켜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패키지화함으로써 제품 차별화를 시도 중입니다. 제철소와 포스코파밀리를 대상으로 1차 상용화한 이후, 2013년부터 국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촉매 전이에스테르 기술 개발 유한 자원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수송용 연료)은 동·식물성 지방이나 오일을 원료로 해 전이에스테르화라고 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며,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친환경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산이나 염기촉매를 사용하는 기존 공정 대비 반응속도가 100배 향상된 무촉매 전이에스테르 신기술을 확보했으며, 현재 단계적 규모 확대와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FOCUS

리튬 추출 기술

리튬은 휴대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기기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는 차세대 핵심 소재입니다. 리튬 자원은 크게 광석과 염수(리튬이 녹아 있는 액상 광물), 해수로 구분됩니다. 이 중 현재 가장 원가 경쟁력이 높은 자원은 염수로, 전 세계 리튬화합물 중 70%가 염수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종합소재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포스코는 미래의 주요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염수리튬 직접추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1년 7월 포항 실험동에 하루에 5kg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해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2012년 12월에는 연산 탄산리튬 20톤급 파일럿 플랜트를 철레 코피아포시 인근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증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아르헨티나 카우차리 염호에 연산 200톤 규모의 대형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해 상용화를 위한 최종 실증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전의 리튬 생산방식인 자연증발법은 리튬 생산기간이 최소 12개월이나 소요되며, 염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불순물로 인해 리튬 회수율이 저하됩니다. 이에 비해 포스코의 염수리튬 직접추출 기술은 2개월 이내, 최소 8시간 만에 리튬 생산이 가능하며, 리튬 회수율도 종전 30%에서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자연증발법과 달리 기후나 장소에 제약이 적으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 친환경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도	기존 방식	포스코 신기술
생산 시간	12~18개월	8시간~2개월
리튬 회수율	30%	80% 이상
탄산리튬 순도	99.2% 미만	99.9% 이상

KEY ISSUE _ 03

포스코 고유 일하는 방식의 글로벌 최적화 포스피아(POSPIA)3.0

글로벌 포스코를 실현할 새로운 경영 시스템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가 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포스코는 PI(Process Innovation)를 통해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해 왔습니다.

2014년 1월 1일 포스코 미래 경영 시스템인 포스피아(POSPIA) 3.0을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에서 가동했습니다. 포스피아3.0은 기준의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고 과거 PI(Process Innovation)를 통해 최적화한 프로세스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1년 미래의 청사진을 기획하는 것을 시작으로 2년 2개월 만에 글로벌 포스코를 실현할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프로세스, 조직 문화의 혁신과 글로벌 최적화

포스피아3.0의 추진 방향은 프로세스 혁신, 조직 문화 혁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니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포스코 중심의 업무체계를 해외 생산기지, 가공기지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최적 업무 프로세스 설계하며 새로운 IT를 통해 소통, 협업, 공유의 스마트한 지식·창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를 하나로 움직이는 경쟁력

포스피아3.0을 통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전략수립-실행-평가체계로 혁신해 포스코패밀리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통일된 프로세스로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패밀리 전체 경영 활동의 투명성과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피아3.0을 활용해 글로벌 포스코 법인 전체가 하나의 회사처럼 최적 판매·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도 갖추었습니다. 매월 전 세계 법인장이 영상회의를 열어 각 법인의 실시간 생산, 판매, 재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재고 감축 등 글로벌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포스피아 진화 과정

POSPIA 1.0

수작업의 자동화
생산 효율의 극대화

POSPIA 2.0

전사 통합 시스템
고객 중심으로 프로세스 혁신

POSPIA 3.0

글로벌 통합 시스템(글로벌 최적화)
글로벌 수요~공급 최적화 추구

포스피아3.0의 추진 방향

POSPIA 3.0

그룹 컨트롤

글로벌 One 포스코
패밀리 경영 강화를 위한
포스코그룹 차원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비즈니스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글로벌 SCM 혁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경쟁력 강화
철강업 본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상의 프로세스 혁신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축

Smart Work
기반 지식·창의
경쟁사와 초격차를 내고
포스코 고유의 청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IT로
업무 낭비 제거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지원

고객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업무 프로세스

포스피아3.0 가동으로 포스코의 모든 프로세스가 ‘고객 중심’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고객 문의와 품질 요구에 대해 1일 이내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응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스마트노트와 같은 고객 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응대 현장에서 바로 관련 자료 취합과 전문가 협업을 진행할 수 있어 현장완결형 업무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와 서비스를 먼저 제안하는 고객 선제안 활동, 고객정보 수집과 분석활동을 한층 강화했으며, 고객 관련 빅데이터 기술 활용도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 공장과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품질검사 관정체계를 구축해 품질 예측과 품질 트래킹(tracking)이 가능해졌고, 품질설계와 보증체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 일원화했습니다. 물류서비스도 고객관점으로 혁신했습니다. 그동안 물류업체에 의존했던 물류정보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실시간 선박 이동 정보를 해당 부서와 고객사에게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가시성 있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운송지연, 운송사고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감지, 즉시에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향상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과 신기술의 융합으로 현장완결형 업무 진행

포스코 스마트노트

자동차소재마케팅실 김 매니저는 기아자동차 구매담당자와 미팅 전 포스코 스마트노트를 활용해 주문 사항과 제품 출하 현황 등 고객과 협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고객과의 협의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듯이 스마트노트에 기록하고, 고객 요청 사항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영상회의를 통해 사

1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디지털로 공유하는 스마트노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업무만을 영업사원별, 고객별로 개인화해
자신의 수첩에 쓰듯이 기록하고 즉시 디지털로 공유

- 고객사 관련 뉴스, 고객사까지의 길찾기, 고객사 주변 정보 등 고객과의 미팅을 위한 콘텐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을 위한 핵심 정보를 모바일기기로 사전에 준비



포스코 스마트노트 초기 화면



고객 관련 뉴스를 보며 메모 작성하는 화면

SCM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과 협력 강화

포스피아3.0을 통한 SCM 혁신으로 원가절감도 기대됩니다. 판매·생산·원료 계획 통합, 글로벌 통합 구매, 통합 물류, 공유서비스센터(SSC:Shared Service Center) 등의 활용으로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포스피아3.0을 기반으로 공급사, 외주사, 선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외주사에 포스코의 생산계획, 구매계획 등을 제공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외주사도 인적·물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포스코패밀리로의 단계별 확산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의 일하는 방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글로벌 철강법인을 시작으로 포스피아3.0을 확산시키고 프로세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등 계열사에도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진이나 동영상도 바로 본사 담당자와 공유하며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고객에게 피드백합니다. 미팅 후에도 본사에 복귀하지 않고 고객사 협의 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현장에서 완료할 수 있으니 이동과 시간의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2

모든 영업 활동 정보는 현장에서! 현장완결형 업무 방식

영업 현장에서 고객이 요청한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바로 접근해 즉시 대응, 고객에게 신속히 전달

- 고객과의 미팅 결과를 회사에 복귀해 PC로 정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입력해 공유하고 보고함으로써 고객 현장에서 업무를 완결할 수 있으므로, 본사 사무 업무보다 고객과의 업무 비중이 높아지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로 전환

- 개인이 관리하던 정보를 회사 자산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파해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



현장에서 수집한 고객 관련 정보는 클릭만으로 관련 시스템(CRM)에 자동 등록



KEY ISSUE _ 04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개발 및 판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례

포스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2007~2009년 평균 조강 1톤당 CO₂ 배출원단위 대비 9% 감축, 사회적 온실가스 1,40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고효율 철강재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해 사내외 온실가스 및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장력 자동차 강판

자동차의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 차량의 경량화입니다. 차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의 중량을 10% 감소시키면 CO₂ 배출량이 5~8%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장력 자동차 강판은 얇은 판의 두께로 두꺼운 일반 강판과 같은 강도를 얻을 수 있어 가벼운 차량 제작이 가능해지며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장력 강판으로 제조한 승용차의 연간 주행 거리를 1만 9,000km로 가정²하고 10년간 운행할 경우, 고장력 강판 1톤당 간접적으로 약 0.8톤에 달하는 CO₂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연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동차사들은 경량화를 위한 초고장력강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고장력 자동차 강판의 판매량은 87만 6,000톤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동차사와 기술 협업 등을 통해 보다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을 위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¹ 고장력 자동차 강판은 590MPa 이상의 장력을 가진 HSS(High-Strength Steel)와 440Mpa 이상의 장력을 가진 AHSS(Advanced High-Strength Steel)를 의미함.

² 승용차 연간 주행거리(교통안전연구원, 2006)

고장력 자동차 강판에 의한 사회적 CO₂ 감축 효과

(단위: 1,000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제품수명 기준 CO ₂ 감축	2,876	5,020	6,308	6,626	7,058
연간 CO ₂ 감축 효과	288	502	631	659	706
판매량	357	623	783	818	876

고장력 자동차 강판을 국내 A사 승용차(2,000cc급)에 적용 시 차체 중량 감소로 인한 연비 개선 효과로부터 산정

포스코 전기자동차 경량차체 개발

자동차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같은 진보된 구동 방식과 초경량 차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17개 철강사는 국제철강 협회 자동차분과위원회(WorldAutoSteel)의 미래철강차체(FSV : Future Steel Vehicle) 프로젝트에 참여해 전기자동차용 경량차체를 개발, 그 결과를 2011년 발표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2015년 양산을 목표로 전기자동차용 철강 차체 PBC-EV(POSCO Body Concept-Electric Vehicle)를 차체 개발하고 2011년 12월 시험제작을 완료했습니다. PBC-EV는 초고강도강(Ultra High Strength Steel)을 40% 이상 적용하고 열간프레스 성형(Hot Press Forming), 가변률성형(Multi-Directional Roll Forming) 등 최첨단 공법을 활용해 기존 차체보다 26% 가볍습니다. (열간프레스 성형 공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경량화율은 30%까지 증가합니다.) PBC-EV는 이러한 경량화를 통해서 LCA(Life Cycle Assessment) 측면에서도 기존 차량 대비 약 50%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KEY ISSUE _ 05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첨단 철강 제조 공법

FINEX(Fine Ore Reduc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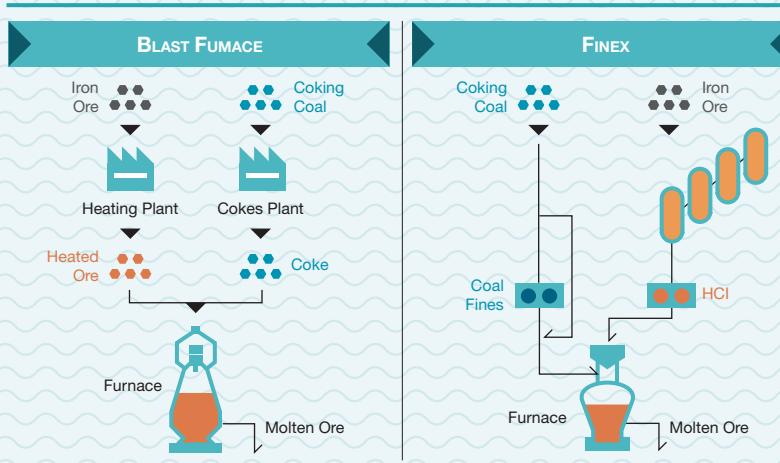
CSV

B.V (Business Value)
유관 공정생략 및 저가원료
사용으로 비용 절감
환경규제 능동적 대응

S.V (Society Value)
대기환경 개선

일반적으로 제철소는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첫물을 만듭니다. 용광로에 철광석과 석탄을 넣고 1,200°C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석탄이 열원이 돼 철광석을 녹입니다. 그런데 철광석과 석탄을 가루나 작은 조각 상태로 넣으면 열풍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해 석탄을 태워 철광석을 녹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철광석은 소결 과정을 거쳐 소결광으로, 석탄은 구워서 코크스로 덩어리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철광석과 석탄이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가루 형태의 원료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와 함께 각종 공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도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업은 공해를 유발하고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산업으로 여겨집니다. 포스코는 용광로 생산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인 FINEX를 개발했습니다. FINEX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소결, 코크스 등의 예비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가루 형태 그대로 사용해 첫물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고로 공정과 FINEX 공정 비교



FINEX는 기존의 첫물 생산방법인 용광로 방식을 대체한 기술로 2007년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값싸고 풍부한 미분(微粉)광석을 원료로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원료의 사용부터 부산물로 발생되는 가스를 활용한 발전소까지 포함한 전과정평가(LCA)기법을 적용했을 때, 유럽의 선진 고로 대비 먼지(Dust)는 71%, 황산화물(SOx)은 40%, 질산화물(NOx)은 15% 수준으로 적게 배출됩니다. 이 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 배출된 후 화학반응을 통해 일정 부분은 초미세먼지(PM2.5)로 변하게 됩니다.(초미세먼지는 크기가 $2.5\mu\text{m}$ 이하로 이보다 큰 일반 먼지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FINEX는 선진 고로와 비교해 34% 수준의 PM2.5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친환경 기술로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EX HISTORY

- 1992 독자 기술로 FINEX 연구개발 착수
- 1998 FINEX 데모플랜트 준공
(포항, 연산 60만 톤 규모)
- 2007 FINEX 상용화 설비 준공
(포항, 연산 150만 톤 규모)
- 2011 충청강철과 양해각서(MOU) 체결
- 2013 충청강철과 연산 300만 톤 규모
(150만 톤 2기) FINEX 일관제철소 건설 합작협약 체결
- 2014 제3 FINEX 공장 준공(포항, 연산 200만 톤 규모) 중국 정부 비준과 한국 정부 기술 수출 승인 후 건설 본계약 체결 예정

첨단 제철 기술

'FINEX 공법' 해외 첫 수출

포스코는 2013년 9월 22일 중국 국영기업 인충강철과 연산 300만 톤 규모의 FINEX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합작협약(MOA)을 체결했습니다. 충청강철은 충청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으로 1893년에 설립됐으며 연간 조간생산 능력은 650만 톤입니다. 충청시는 중국 서부 지역 대개발의 중심지로, 최근 수년간 중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을 기록해 철강 수요가 다른 곳보다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합작 협약에 따라 포스코와 충청강철은 지분을 각각 50%씩 투자해 연산 300만 톤 규모의 FINEX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는 2011년 7월, 두 회사가 FINEX 일관제철소를 합작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년 여에 걸친 타당성 검토 끝에 임은 결과입니다. 2014년 말 중국 정부의 비준과 한국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이 이뤄지면 본계약 체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로 vs FINEX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교



CUSTOMER

고객

CONTENTS

49 제품 소개

- 열연/ 냉연/ 후판/ 선재/ 전기강판/ 스테인리스스틸/ 티타늄/ 마그네슘

50 친환경 신제품

- 조선용 대형 컨테이너선 고강도 EH47 TMCP 강재
- 자동차용 고내부식 고강도 스프링강
- 건축·생활가전용 GI 고내식 수지코팅강판
- 자동차용 CR 2,000 HDF 강판

52 가치경쟁

- 마케팅 비전
- 가치경쟁의 체계적인 실행
- 가치경쟁을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
- 2014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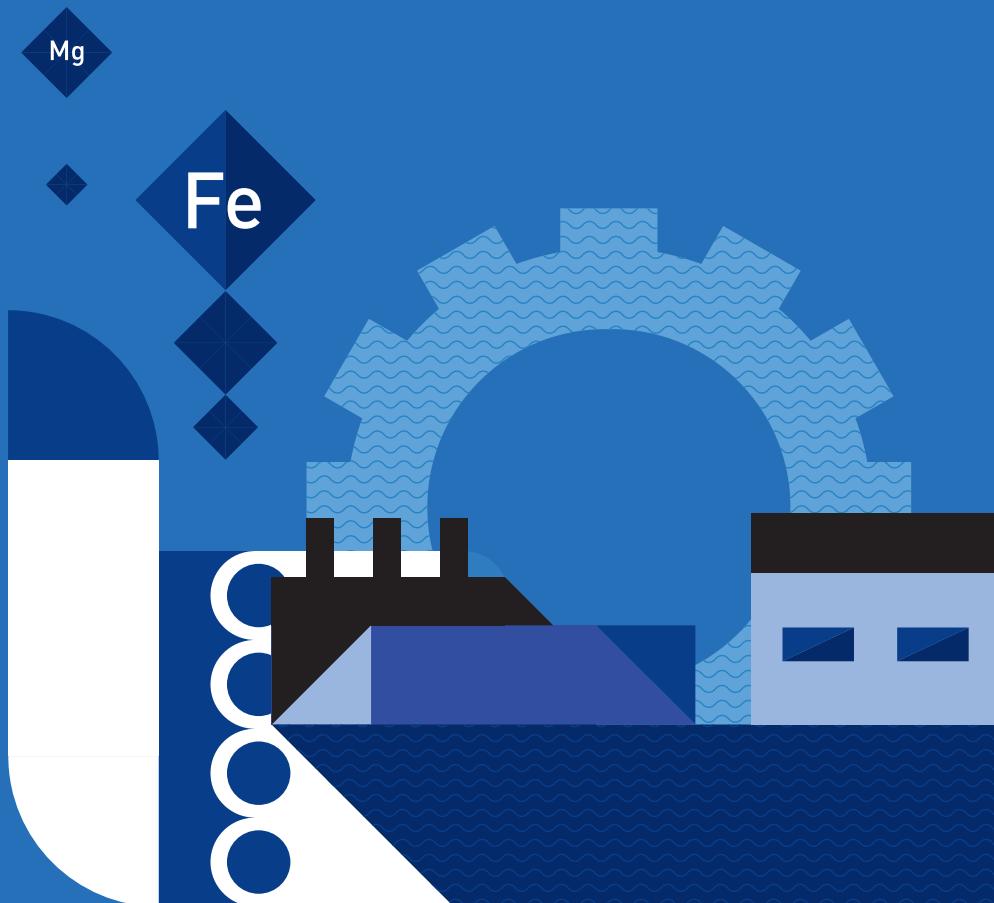
53 품질경영

- 포스코파밀리 품질현장
- 계층별 맞춤형 품질교육
- 품질경영 진단
- 서비스 품질 진단
- 포스코서플라이어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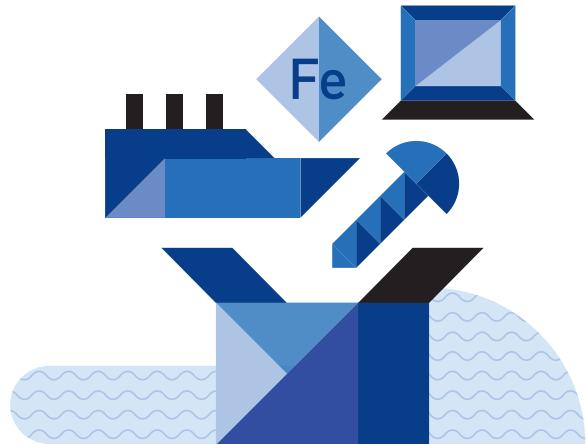
55 KEY ISSUES

- 06: 고객가치 창출 사례

포스코 성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객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가치경쟁, 품질혁신을 통해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고객사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 세계 모든 고객이 포스코의 고품질 제품과 뛰어난 마케팅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고 더 높은 성과를 이뤄가도록 하는 것이 포스코의 목표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 함께 성공하고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제품 소개



열연 제품



주요 용도 파이프, 형강, 자동차 프레임 · 휠, 컨테이너 등

열연 제품은 뜨거운 상태의 소재를 압연해 만든 제품으로 열간압연기(Hot Strip Mill)에 의해 생산한 열연코일과 이를 절판한 열연강판으로 나릅니다. 열연공장에서 생산하는 열연코일의 일부는 원제품으로 판매하거나 냉연·전기강판의 중간소재로 사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가공합니다.

후판 제품



주요 용도 선박, 대형구조물, 교량 등

후판 제품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은 코일 형태로 생산하는 열연·냉연과 달리 통상 두께 6mm 이상의 상대적으로 두꺼운 판자 형태로 생산합니다. 선박이나 대형 구조물, 교량, 조선용 후판 등에 주로 사용되며, 극저온 저장용기, 산업기계, 군수장비 등 특수 용도에도 꼭넓게 사용됩니다. 용접구조용, 해양구조물용, 압력용기용, 흑한지용 후판의 제조기술 개발에 주력해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강판



주요 용도 변압기, 모터, 발전기 등

뛰어난 전자기적 특성을 지닌 전기강판은 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청정 에너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규소 함량을 높여 제조하기 때문에 규소강판(Silicon Steel)이라고도 부르며, 자기 특성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나릅니다. 주로 변압기·모터 등의 철심 재료로 활용됩니다.

티타늄 제품



주요 용도 원자력 · 화력발전소, 석유 · 화학 플랜트, 우주항공, 스포츠, 의료용 제품 등

티타늄 소재는 무게, 강도, 내식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무독성의 환경친화적 금속입니다. 티타늄 제품은 경량화를 통한 엔진 등의 연료소비 감축, 효율적인 열 전달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고황화수소 원유를 비롯한 어그레시브(Aggressive) 소재에 대한 저항력, 부식·누수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의 방지 등 환경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 경제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냉연 제품



주요 용도 자동차 강판, 고급 가전 제품, 금속기구 등

냉연 제품은 열연재를 소재로 해서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압연을 해 만드는 제품입니다. 표면이 미려하고 기공성이 우수해 세탁기·냉장고 같은 가정용품에서부터 자동차, 산업기기, 각종 건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점차 다양화, 고기능화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재 제품



주요 용도 교량용 와이어, 타이어 코드, 스프링, 건축구조물 등

선재 제품은 '선의재료'로 철사와 같이 가늘고 긴 형태로 생산하는 제품이며, 보통 강과 특수강으로 구분합니다. 보통강은 나사·못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통 선재와 자동차, 교량, 해저케이블 등에 쓰는 특수 선재로 나릅니다. 특수강은 자동차용 볼트·너트, 건축용 고장력 볼트, 타이어 코드 등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고강도화, 경량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주요 용도 주방용품, 의료기기, 건축 내외장, 자동차 부속 등

스테인리스 스틸은 광택이 좋으며 부식이 적은 특수강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철강재입니다. 제품은 주로 주방용품·자동차부품·화학설비 등에 쓰이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상암월드컵경기장 같은 대형 건축물에 이용되면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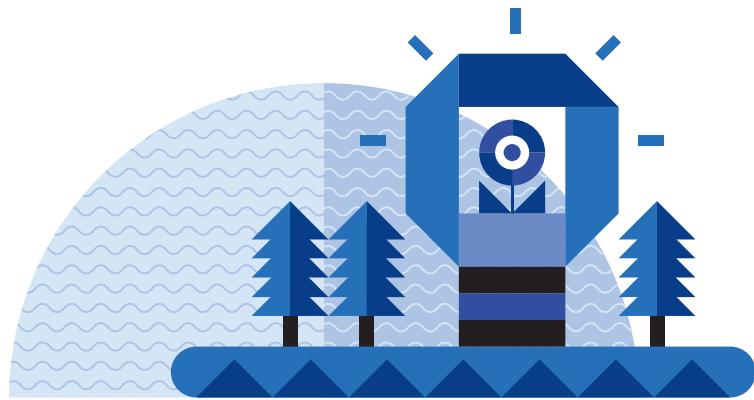
마그네슘 제품



주요 용도 자동차부품, 휴대폰, 알루미늄 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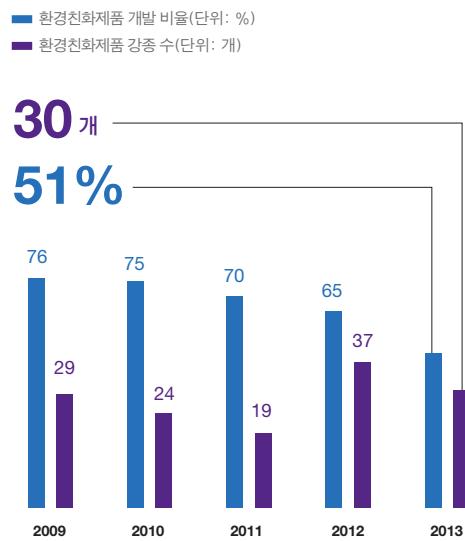
마그네슘은 비강도가 가장 우수한 금속 재료로서 주로 자동차 부품, 휴대폰, 알루미늄 합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루미늄 합금과 경쟁하면서 3C(Computer, Communication, Camera)와 자동차 디이캐스팅 부품용 소재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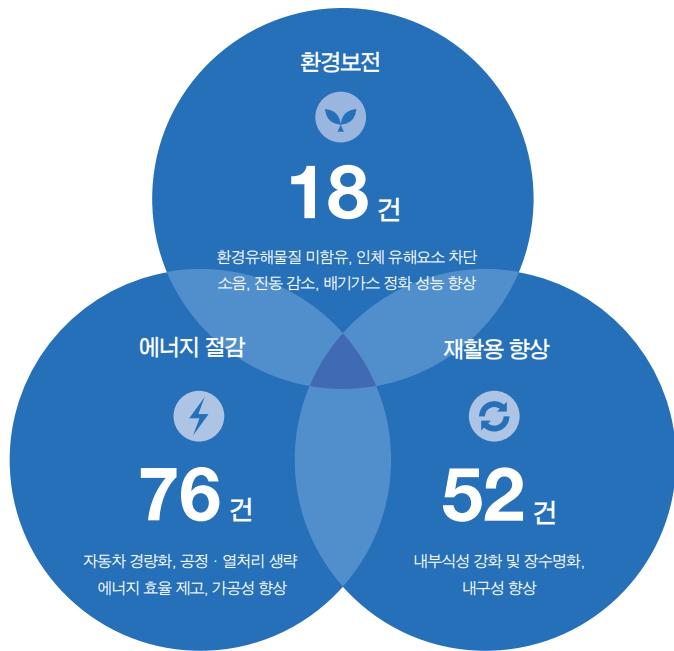
2013년에 전체 제품 개발에서 환경친화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이며,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개발된 환경친화 제품의 2013년 판매량은 26만 9,000톤이었습니다.

환경친화제품 개발 현황



환경친화제품 개발 유형

(2009~2013년 개발 건수, 누계)



환경친화제품 분류

1 고기능 열연재 내황산 복합 내식강 ANCOR-HS 조선/구조용 후판 제품 선체구조용 FH27/32/36/40-TM 증장비용 저Ceq POSTEN100LC	2 에너지산업용 후판 제품 해양구조물용 EN-S420/460G2M 압력용기용 내HIC A516-70 오일샌드 Slurry Pipe	3 선재 제품 고내부식 고강도 스프링강	4 고기능 냉연재 내황산 복합 내식강 ANCOR-CS 고내식강판용 유기계 Cr-free강판 백청 300hr보증 GI Cr-free강판	5 고효율 전기강판 제품 청소기 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23PNH270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 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25PNX1300F	6 자동차 경량화 자동차 보강재용 CR 1300MPa급 Martensite 강판 자동차 보강재용 CR 900MPa급 TWIP강판 자동차 구조용 CR 2000MPa급 Hot Press Forming 강판
--	---	--	--	---	--

조선용 대형 컨테이너선 고강도 EH47-TMCP강재



¹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피트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1만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를 1만 개 적재할 수 있는 용량
² 항복강도(Yield Strength) : 하중을 받은 재료가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한계점

대표적인 상선 중 하나인 컨테이너선은 최근 기준 1만TEU¹ 급 이하에서 1만 8,000TEU급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2014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해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해운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고효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조선용 고강도 EH47-TMCP강재는 기존 1만 TEU급에 적용되던 EH40-TMCP강재 대비 항복강도²를 70MPa 상향시킨 제품으로, 1만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최상층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에즈운하보다 운송기간을 10일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북극항로가 개발됨에 따라 극저온(-60°C 이하)에도 견딜 수 있는 극저온강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포스코는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어 조선용 고강도 극저온강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용 고내부식 고강도 스프링강



21세기 자동차산업의 키워드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자동차업체들은 CO₂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소재의 고강도화 등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동차산업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코일스프링으로 사용하는 1250MPa급 스프링용 선재를 개발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고강도화할수록 스프링 피로수명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소재의 내외부에 결함이 있으면 스프링 피로수명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재 강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부식에 강한 스프링용 선재를 개발해 표면 부식으로 스프링이 조기에 끊어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 생활가전용 GI 고내식 수지코팅강판



* 백청 : 아연 또는 그 합금의 표면에 발생하는 백색의 가루, 아연 녹의 형태

현재 아연도금강판(GI: Galvanized Steel)은 도금층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Cr-Free 수지피막을 코팅해 생산합니다. 그러나 가공 후 도장 등 별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쉽게 부식이 발생하며, 가공 전에도 보관 부주의나 포장 훼손에 의한 백청^{*} 발생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서는 Cr-free 수지층 내에 내식첨가제를 첨가해 고객사에서 가공 후에도 별도의 도장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내식 수지코팅강판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내식성이 4배 향상된 제품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의 내판용도나 케이블 트레이 등 의 건축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전사 대상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품질인증 활동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용 CR 2,000 HPF(Hot Press Forming) 강판



자동차 안전법규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각 자동차업체에서는 강화된 안전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강도강 적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포스코는 필러, 범퍼 빔, 멤버류 등 형상이 복잡하고 강도가 요구되는 부품에 고강도강을 적용하고자 인장강도¹ 2,000MPa급 HPF(Hot Press Forming) 강판을 개발했습니다. HPF 강판은 고온에서 연질²이 돼 쉽게 가공되는 현상을 이용한 제품으로, 프레스 성형 전에 소재를 900°C로 가열해 성형한 후 프레스 내부에서 냉각 시켜 고강도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인과황 성분을 엄격히 제어해 다른 회사 제품보다 강도와 굽힘성이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스코는 자동차용 CR 2,000 HPF 강판을 통해 강도와 성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자동차업체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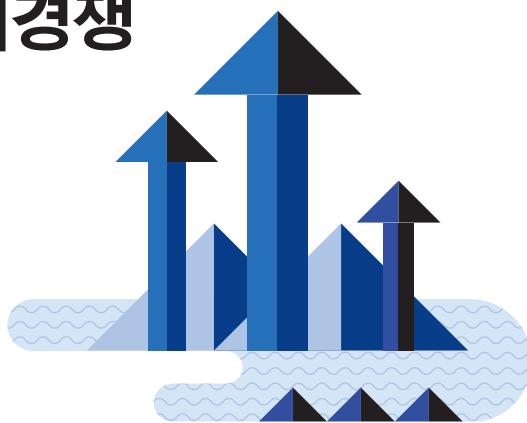
Hot Press Forming 기술(공정) 개략도



¹ 인장강도 : 재료를 양쪽으로 당겨서 끊어질 때까지 견디는 힘

² 연질 : 부드러운 성질, 연질이 되면 가공이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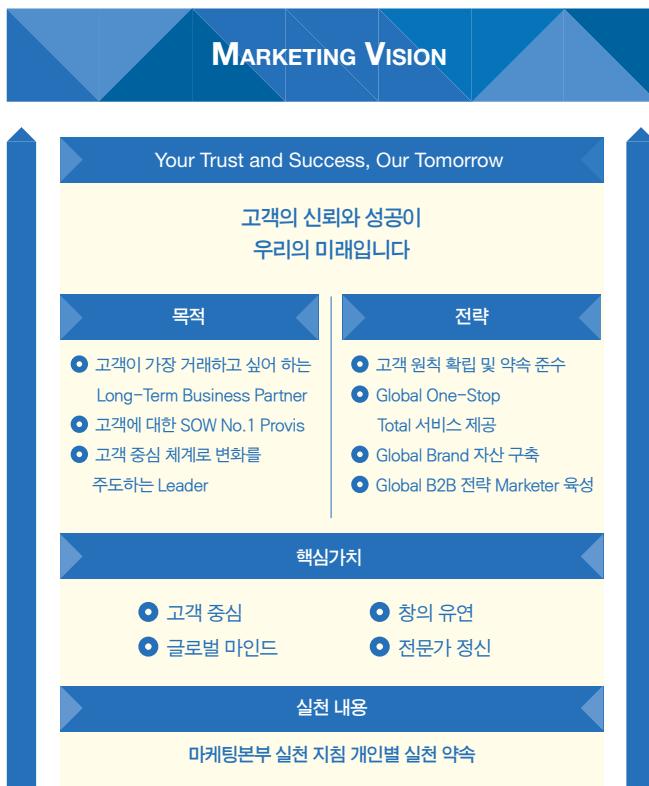
가치경쟁



모든 경영 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과거 안정적인 철강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철강 경쟁 심화와 원료비 급등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한계로 기업 환경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발생할 가격경쟁을 뛰어넘어 가치경쟁으로 마케팅 전략을 고도화하고, 이런 전략 속에서 고객가치 창출을 성장 전략의 가장 큰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창출 전략은 고객에게 맞춤형 가치를 제공해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매출 증대가 가능하며, 고객과 상호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전



고객의 성공, 고객과의 상생, 고객의 신뢰 확보 등 지속적인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CEO의 확고한 경영철학입니다. 3대 경영방침의 하나인 ‘일류 경영’의 핵심은 최고의 고객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고객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이 성공하고 포스코와 더불어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비즈니스 벤류 체인상의 니즈를 분석하고, 고객이 직면한 문제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고객과 함께 실질적인 체감 가치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고객 성공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활동을 ‘가치경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치경쟁 전략의 체계적인 실행

포스코는 그동안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 EVI활동, 필드영업과 감성마케팅 등 다양한 고객 중심적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복잡해지는 고객 니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형 가치경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치경쟁 전략은 품질 개선과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제품 중심의 초기 EVI 활동에서 가치 창출 대상과 제공 가치의 범위를 확대해 모든 산업에 걸친 고객사뿐만 아니라 고객사 고객의 비즈니스 니즈까지 파악하고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 보유한 무역, 금융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제품과 기술 개발, 고객 경쟁력 강화, 고객의 비즈니스 확대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가치경쟁의 사상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별 판매조직을 고객 중심의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운영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가치경쟁체제로 본격 전환했습니다. 또한 가치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전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워크숍, e-러닝 등 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고객 니즈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VAP(Value Account Planning : 가치실현로드맵)을 개발했으며, 수출 기반이 부족한 중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노하우를 전수하는 수출 지원, 포스텍기술투자를 활용한 금융·재무서비스 등 다양한 가치 창출 활동을 실행했습니다.

가치경쟁을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

포스코는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의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고객가치 향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담당자, 서비스, 납기, 제품 품질 등 6개(해외 5개) 항목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국내 220개, 해외 237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해 국내 88점, 해외 79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국내는 동일하고 해외는 2점 하락한 결과입니다. 2013년에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광양 제강사고 등 내외부 악재로 인해 전년보다 다소 힘든 상황이었으나,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개선과 제를 발굴, 수행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필드영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사방법을 개선해 급변하는 시황 변화에 따른 고객별 니즈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활동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 단위: 점)

구분	2011	2012	2013
국내	91	88	88
해외	81	81	79

이와는 별도로 고객만족도와 고객가치의 향상을 위해 포스코는 '마케팅 대학'을 통해 경기 불황과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고객가치 창출과 마켓 인사이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급별 직무역량 교육과 고객사 조청 특강 등 다양한 마케팅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포스코와 고객사 간 상호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철소 초청 마케팅 집합교육과 e-러닝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마케팅 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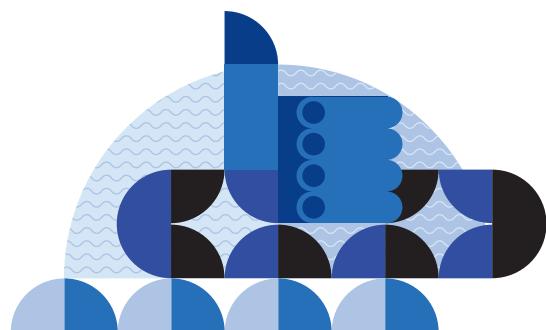
1 마케팅본부 직원	2 국내 고객사 및 가공센터	3 수출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대학 1당5 교육과정 (13과정, 2,879명 수료) • 마케팅 자식 인증제 개선 운영 (대상자 517명 중 90% 인증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별 고객사 제철소 초청 교육 (11차수, 199개사 303명 수료) • 가공센터 임원 대상 교육 실시 (경남스틸 등 24개사 임원 30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철소 초청 마케팅 교육 (4차수, 70명 수료) • e-러닝 과정 강화 운영 (4과정, 8차수, 801명 수료)

아울러 포스코는 2003년부터 고객정보를 통합·축적, 관리할 수 있는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마케팅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계획: 토탈솔루션 마케팅 활동 강화

포스코는 필드 영업 강화를 통해 핵심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조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고객 요구를 선개발하는 고객 맞춤형 기술 서비스와 토탈솔루션(Total Solution)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능을 각 사업부로 이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향후 해양플랜트, 친환경/극지선박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사업에 필요한 철강재를 적극 개발, 공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연구 개발(R&D) 기술협의체를 내실화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과 규격에 전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사와 프로젝트 입찰에 공동 참여하는 등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품질경영



포스코는 고객의 흔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The POSCO Quality' 달성을 목표로 본사, 제철소, 해외 생산법인은 물론 포스코그룹 계열사와 공급사까지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포스코파밀리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품질경영그룹을 중심으로 포스코그룹의 업종별로 다양한 품질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포스코파밀리만의 통합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파밀리 품질현장

2010년 포스코는 고객가치 창조를 통한 글로벌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포스코파밀리 품질현장을 선포했습니다. 품질은 고객과의 신성한 약속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품질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고객의 흔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파밀리 품질현장

THE POSCO QUALITY

고객의 흔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품질 현장은 품질 비전과 3대 핵심가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품질 비전인 'The POSCO Quality'는 '포스코는 곧 품질의象征이며, 고객의 흔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달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대 핵심가치는 Customer Inside, Basic Inside, Synergy Inside이며, 각각의 핵심가치에 따라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CUSTOMER INSIDE

고객의 잠재니즈까지
반영해 고객가치를
창조한다

BASIC INSIDE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편차와
낭비를 제거한다

SYNERGY INSIDE

신뢰와 소통으로
Supply Chain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계층별 맞춤형 품질교육

포스코는 포스코파밀리 임직원의 품질마인드 향상과 품질경영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계층별 맞춤형 품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임원 및 그룹리더 품질전략 특강을 비롯해 신입사원 품질마인

드 교육에 이르기까지 7개의 집합 과정과 10개의 e-러닝 과정을 통해 1만 6,000여 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특히 품질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와 개선을 주도할 사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품질경영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및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200명의 포스코파밀리 품질경영 전문가를 양성했으며, 이들은 품질경영 시스템 개선, 품질경영 진단 및 지도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품질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집합교육				e-러닝	
	일반 과정		전문가 과정			
	과정 수	수강 인원	과정 수	수강 인원(누계)	과정 수	수강 인원
2011	10	7,100	-	-	6	7,600
2012	9	3,900	1	66	7	20,800
2013	7	1,700	3	144	10	14,300

품질경영 진단

포스코는 프로세스 성과와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포스코파밀리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진단은 품질현장의 핵심가치 및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50여 개의 진단항목을 설정하고, 품질경영 성숙도를 Beginning ▶ Improving ▶ Succeeding ▶ Controlling ▶ Leading 5단계로 세분화해 평가합니다. 2013년 포스코파밀리 19개사를 대상으로 품질경영진단 실시한 결과를 보면 품질경영 성숙도가 포스코는 국내 동종업계 Leading 단계의 수준이며, 포스코를 제외한 패밀리사는 Controlling 단계로 2011년 Succeeding 단계에서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는 품질경영 진단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해 명실공히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 진단

포스코파밀리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포스코 중심의 제조뿐만 아니라 포스코파밀리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걸쳐 고객 서비스 역량을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B2B업계 최초로 포스코파밀리 고유의 진단모델을 개발해, 2013년 포스코를 비롯한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 제조, 서비스, E&C 업에 포함된 총 14개사를 대상으로 첫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 결과 E&C와 서비스 업종의 경우 동종업계 국내우수 수준이나, 제조업의 경우 동종업계와 비교해 국내보통 수준으로, 향후 업종별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해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행결과를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품질경영대상 시상 (PQA, POSCO Quality Awards)

회사는 매년 품질경영 진단을 통해 포스코파밀리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을 하는 품질경영대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대상은 품질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낸 포스코파밀리사에 주는 상으로 상의 종류에는 대상, 혁신상, 도약상, 시너지상 등이 있으며, 포스코파밀리사의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공급사, 외주파트너사 각 군의 최우수사에 수여합니다. 품질경영대상은 포스코파밀리 품질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패밀리 품질경영의 지속적 개선과 패밀리사 간의 시너지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대상 수상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대상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E&C	포스코 포항제철소
혁신상	포스코TMC	포스코켐텍	포스코강판
도약상	포스코A&C	엔투비	포스코플랜텍
시너지상	스톨베르그&삼일(주)	범우	범우
시너지상	포론텍	광희	-

포스코 서플라이어 품질인증제도

포스코는 자재 공급사 및 외주파트너사의 불량자재 유입을 차단해 원류 품질을 확보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포스코 서플라이어 품질인증제도(POSCQC)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포스코의 품질핵심 자재 공급사, 외주파트너사의 품질경영체계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Q1~Q5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Q3 등급 이상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별도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 해당기업의 품질보증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 43개 품질핵심 자재 공급사 및 외주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품질인증 심사에서 총 18개사가 Q3등급 이상을 인증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평가 대상을 58개사로 확대 적용하고, Q3등급 이상 인증사 또한 46개사를 목표로, 현재 42% 수준의 Q3등급 이상 품질인증률을 80% 수준까지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공급사 및 외주파트너사가 자주적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개선과 품질혁신을 추진하도록 포스코가 적극 지원해,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최고의 품질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Supply Chain 품질인증률

(단위: %)



구분	2012	2013
평가 대상 기업수	43	58
Q3등급 이상 기업수	18	46

KEY ISSUE _06

가치경쟁으로 창조하는 새로운 성공 고객가치 창출 사례

가치경쟁 활동은 고객의 벨류 체인상의 니즈 발굴에 따라 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종 개발, 재질, 치수 변경 등을 통해 고객사의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MI(Material Innovation), 납기와 물류, 재고 운영, 가공 프로세스 같은 생산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고객의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PI(Process Innovation), 마케팅과 재무, 범률 등 고객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활동인 MS(Management Support), 고객의 수출 활동 지원 등 고객의 비즈니스 확대를 도모하는 BP(Business Proposal) 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삼성전자와 에어컨용 모터 공동 개발

포스코는 전기강판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함께 생활가전 제품의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 희토류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에어컨용 모터의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원가절감 압박이 심화됐습니다. 고객사는 저원가 자석을 대체재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모터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쉽사리 부품 원료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한 포스코는 정기 기술협의회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모터의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저원가 자석을 사용하면서도 동등한 모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강판의 사용을 추천한 것입니다. 신 강종과 저원가 자석을 적용해 개발한 에어컨용 모터는 지속적인 효율 평가를 거치며 만족할 만한 성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모터의 공동 개발로 고객사는 저원가 자석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고, 포스코 역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으로 수익성 향상과 판매량 증가의 효과를 거두면서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상호 Win-Win 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벤딩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글로벌 경기의 침체는 국내 철강산업을 비롯한 후죽강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별화된 벤딩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창원벤딩도 내수 시장 중심의 영업 기반을 갖고 있어 시장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의 직접 수주 비중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해외 영업 역량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포스코파밀리인 대우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멕시코의 해양플랜트 시장에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영업활동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멕시코 발주처의 까다로운 납기 조건과 엄격한 품질 규정에 적극 대응하고자 철저한 생산 관리를 통한 요청납기 준수, 선제적인 기술 대응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발주처로부터 포스코 소재와 창원벤딩의 우수한 조관 품질력까지 동시에 인정받으며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원벤딩,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이 함께 힘을 합쳐 또 다른 시장의 문을 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멕시코 신규 시장 진입을 통해 창원벤딩과 대우인터내셔널은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었고, 포스코 역시 고부가가치 강종의 판매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제강 해외 법인 공급 선제의 운송 조건 개선

선제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중량 대비 부피가 크고 운송할 때 엄격한 품질 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선제 제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벌크선 선사들이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제 제품 운송을 기피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벌크선의 특성 때문에 제품의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찾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인 고려제강의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판매되는 포스코의 선제 제품 역시 해상운송 과정에서 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고, 더구나 최근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납기 대응력의 향상 또한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는 고려제강에 해상운송 조건을 벌크선에서 컨테이너선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건 변경으로 발생할 운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부대 비용과 대량 선적의 이점과 감안하면 실제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기존 벌크선의 운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이용 후 고객사는 운송 기간이 단축돼 재고 비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송 품질 불량에 대한 클레임도 줄어들었습니다. 포스코 역시 참고와 체선 부하가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운송 조건 변경으로 품질 불량이 줄어들게 되자 포스코는 포장 일화를 추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수차례의 보완 작업 끝에 포장 비용과 포장지 폐기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포장 작업으로 인한 선적 지연도 최소화해 체선 부하를 감소시키는데 도기어했습니다.



동방금속, 동부특수강, 진양특수강의 NSK 납품 지원

포스코는 가격보다 품질에 가치를 두는 일본계 베어링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어링업계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일본의 NSK(일본정공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포스코의 고객사인 동방금속, 동부특수강(신선사), 진양특수강(봉강사)과 공동 마케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철강사와 신선사, 봉강사가 직계화돼 소재 수급이 안정적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철강사, 신선사, 봉강사가 각각의 개별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선사와 봉강사는 수출 확대가, 포스코는 판매 루트 개발이 각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는 신선사, 봉강사와 협력해 NSK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먼저 포스코와 직접 가격, 품질, 납기 협의를 진행해 안정적인 관리를 원하는 NSK의 요구에 대응해 신선사, 봉강사와 업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각 기업의 마케팅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NSK의 품질 향상 요구에 맞추어 포스코와 신선사, 봉강사가 제품 표면의 흙과 거칠기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NSK에 제품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POSCO-IJPC를 비롯한 50여 개의 해외 법인과 가공기지를 활용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방금속, 동부특수강, 진양특수강 3개 고객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베어링사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수출이 증대됐으며, 이는 다시 포스코의 판매 확대로 이어져 고객사와 포스코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MATERIAL INNOVATION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PROCESS INNOVATION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MANAGEMENT SUPPORT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지원BUSINESS PROPOSAL
비즈니스 확대 도모

ENVIRONMENT

환경

CONTENTS

57 환경경영

- 글로벌 패밀리 환경경영
- 환경조직
- 주요 패밀리 환경경영 프로그램
 - 환경 교육
 - 패밀리 환경심사
 - 환경경영대상 운영

58 환경성과 관리

-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
- 환경영향평가
- 환경회계
- 물
- 대기
- 에너지
- 부산물자원화

62 환경리스크 대응

- 환경리스크 관리
- 기후변화 대응
- 유해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다이옥신
 -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 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 강화
- 친환경 공급망 관리
 - Green-PCP 인증
 - 중소기업 환경기술 컨설팅
 - 친환경 공정 및 제품 개발

64 KEY ISSUES

- 07: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65 환경 파트너십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환경 콜로키움
 - 탄소중립 프로그램
 - 그린워크
- 국내외 협력 활동

철은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기초생활 소재입니다.

설계, 생산, 제조, 사용·유지, 재활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의 종합 평가가 소재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자원순환형 사회에 기여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포스코는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하고, 환경리스크를 최소화해 지속가능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환경경영



글로벌 패밀리 환경경영

포스코는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패밀리 차원의 포괄적인 환경영경영과 환경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출자사, 공급사, 외주파트너사를 비롯해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환경영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12월 최고경영자 및 주요 패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패밀리 글로벌 환경영경영 방침'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전, 전략,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환경영경영 방침 전문

포스코 패밀리는 환경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기술 개발 및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환경 건전성을 확보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ISO 14001을 기반으로 패밀리 환경영경영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전 과정을 고려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청정 생산 공정 도입과 최적 방지 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생태 효율성을 향상한다.
- 청정 에너지 사용과 녹색기술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한다.
- 환경 경영의 성과를 공개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포스코패밀리 환경영경영 비전 · 전략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영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 구현

전략

통합 환경영경영체제 구축 ·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 열린 커뮤니케이션

환경조직

포스코는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임원으로 구성한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경영위원회는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영경영의 세부 추진계획과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환경영경영을 점검하며,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국내외 주요 환경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환경·에너지 중기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환경·에너지 중기 경영 전략안은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경영위원회에서 전사 중장기 경영 전략안과 함께 심의·의결하며, 매월 최고경영자 주재로 열리는 전사 사운영회의, 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또한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정책 및 경영 동향을 분석하고, 환경·에너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 조직도



환경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구분	환경경영위원회	환경경영실무위원회
개최 시기	1회(12월)	2회
구성	위원장: CEO 위원: 패밀리사 CEO	위원장: 환경에너지실장 위원: 패밀리사 환경영경영 담당임원

주요 패밀리 환경영경영 프로그램

환경 교육 포스코는 포스코 및 패밀리사 임직원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환경영경영 교육은 외주사, 공급사 임직원에게도 공개해 기업 활동에 관련된 전 임직원이 환경개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패밀리 환경영경영 커뮤니티를 운영해 패밀리사 환경실무자들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사 환경 심사 패밀리사의 환경영경영체제 확립과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패밀리사를 대상으로 환경심사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환경 리스크 심사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으며, 주요 패밀리사와 협동으로 폐수처리 설비에 대한 종합진단과 특정 대기 및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내부진단을 실시해 패밀리 차원으로 환경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대상 운영 포스코는 환경영경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수한 환경성과를 거둔 패밀리사를 대상으로 '환경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경영체계 및 운영성과와 환경·에너지 분야 개선 활동의 혁신성, 활용성 및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패밀리사는 환경영경영위원회에서 CEO가 포상합니다. 평가단은 경영임원을 평가위원장으로 해 환경에너지실,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의 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환경성과 관리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

2013년도 포스코는 웹 및 모바일 기반의 통합 환경성과관리 시스템인 新POEMS(POSCO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위한 1단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新POEMS는 대기-수질-부산물-토양지하수-화학물질-경영자 종합정보-환경회계의 7개 프로세스로 구성했으며, 2013년 한 해는 프로젝트 1단계로 전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기준 재정립을 통해 기본~상세설계를 수행했으며, 향후 2단계로 시스템 제작~운영 단계를 거쳐 최종적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현하는 환경회계 프로세스는 환경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비 이력관리(정비비, 전력비, 약품사용비 등)를 통해 설비 별로 해당 처리항목에 대한 원단위 효율 비교가 신속히 행해지도록 구성합니다. 또한 경영자종합정보 프로세스를 통해 패밀리사를 포함한 각 사업장의 법 준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패밀리사의 주요 환경성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 등 경영층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영향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측정한 대기, 수질 등 모든 환경 데이터는 TMS(Tele Metering System)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에 전송하며, 주요 환경 지표는 사외 환경 전광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996년 환경영향 국제표준규격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이래, 매년 사외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환경부서를 주관으로 매년 2회 이상 내부 검증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전략 및 목표를 수정해 효율적인 환경영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및 제철소 주변의 대기, 수질, 생활 환경을 비롯한 생태계 환경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를 돋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제철소 설비 신증설 시뿐만 아니라 해외공장 건설 시에도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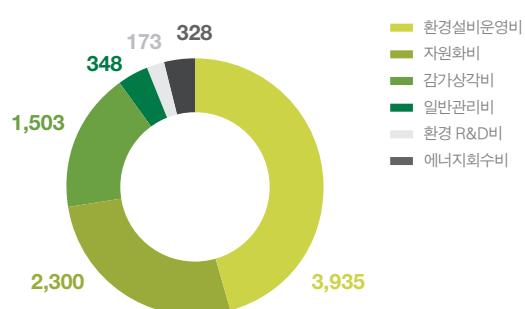


환경 회계

포스코는 ABM(Activity Based Management, 활동원가관리)에 기반한 환경활동 비용집계 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과 회계적 관점에서 분석해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수나 부산물 자원화 등에서의 환경효익을 비용과 동시에 분석해 조업부서의 합리적 업무수행과 설비투자 등에 반영하며, 주주와 투자자,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新POEMS에서는 시각적인 환경회계 분석자료를 경영층에 제공함으로써 환경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수단 및 환경비용 절감 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3년 환경비용

(단위: 억 원)



합계

8,587

2013년 주요 환경설비 투자 내역

(단위: 억 원)

	대기	1,388
	수질	653
	자원화 및 기타	904
Total	합계	2,945

* 2013년 주요 투자 내역

포항: 밀폐식 연원료 저장시설 설치, 신설비 짐진 시스템 및 수처리 시스템 도입
광양: 소결, 제강공장 짐진 시스템 개선, 배수종말 활성탄 재생설비 증설**물**

포스코는 물 자원이 전 세계적인 리스크임을 인식해, 물 사용 현황과 위험요소, 기회요인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 물 관리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방류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용수 저감 활동을 통해 물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대체 용수를 개발해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며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계철강협회에서 주관하는 'Water Management Project'(2007~2011)에 참여하고, 세계지속가능 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공급망에 대한 물 관리 가이드라인, 'WBCSD Water Tool' 등의 활용을 통해 물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물정보공개 프로젝트(CDP Water Disclosure)에 참여해 물 관리 이슈 전반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으며 'CDP Global Water Report 2013' 보고서를 통해 '리스크 완화 전략'의 우수사례로 소개됐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수질관리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용수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요증가에 대비해 정수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용수의 80%를 공급하는 댐수의 절반을 포항시 하수처리 재이용수로 대체해 취수원을 다각화하는 등 용수 공급의 잠재 리스크를 발굴해 예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방류되는 잉여 재활용수를 임시 저장해 주간에 활용하고, 순수생산설비 재생폐수 및 FINEX 발전폐수를 재활용하도록 공정 및 설비를 개선해 6,400톤/일의 용수를 재활용하고 3,400톤/일의 폐수발생을 경감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도가 낮은 약 7만 4,000톤/일의 선강·압연 지역 우수, 압연 지역 저염소 폐수, 생활오수는 필요 시 적정 처리를 거쳐 도로살수수 및 공정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공장 신증설로 폐수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수 수질 향상 및 재활용수 사용개소 추가 발굴을 통해 폐수 재활용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강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폐수발생량은 전년도 대비 1만 톤 경감했으며, 재활용수 사용량은 5,000톤 증가했습니다.

강우 시 우수처리설비 방류수를 담수로 대체 활용뿐만 아니라, 수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부식물질을 미포함한 대체 수처리 약품을 발굴,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수 부족에 대응해 대체 용수를 개발, 담수 제조설비(R/O, Reverse Osmosis) 도입을 검토해 향후에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는 총질소의 규제강화에 사전 대응하고 지역수계 오염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R/O기술을 적용한 화성폐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수 배출수는 법기준 대비 20~80% 수준의 내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COD, SS, TN 등 주요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 농도는 법기준의 20% 내외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포항제철소는 2016년에 조강 톤당 용수구입량 3.0m³이하, 총질소 배출량 9.0g 이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광양제철소는 공장별로 용수 절감 아이디어를 발굴, 실행하며 냉각수 배출 프로세스를 개선해 빗물 회수 설비 설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성과는 주간단위 용수속보를 통해 공개해 임직원의 용수 절감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조업취수량 및 방류량(단위: m³/t-S)

	2011	2012	2013
용수사용량	3.63	3.56	3.71
방류량	1.60	1.69	1.61

최종 방류수 COD 농도

(단위: mg/l)

	2011	2012	2013
배출농도	8	8	9
법기준(광양)	70	70	70
법기준(포항)	90	90	90

최종 방류수 T-N 농도

(단위: mg/l)

	2011	2012	2013
배출농도	19	15	15
법기준	60	60	60

대기

포스코는 제철소와 주변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준보다 낮은 철저한 대기관리를 목표로, 제철소 부지경계 및 인근 지역 대기질 측정소와 공장 실내외 먼지 측정기를 추가로 운영하며, 지자체와 사업장 간의 자발적 환경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미세먼지, 악취, 소음의 배출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Big-Y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적의 설비관리를 위해 대기질, 미세먼지, 그리고 냄새물질 자동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무선전송 및 스마트폰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환경부서와 조업부서 간에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야드 등 비산먼

지의 균원적 차단을 위해 부원료 선행야드(9만 5,000톤)와 3FINEX 석탄저장용 사일로(18만 톤)를 설치하고, 야드복포 기계화로 원료야드의 복포율을 51%로 상향했습니다. 이러한 대기환경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포항제철소는 2013년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클린시스(CleanSYS) 우수 운영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광양만권1단계 자발적환경협약*(2006~2010년)의 후속으로 환경부, 광양만권 지자체, 광양만권 소재 17개 사업장과 함께 협력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2008년 총배출량(15만 4,043톤)의 13%인 2만 28톤을 저감하는 2단계 자발적 협약(2012~2016년)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소결공장 탈황제 투입라인 개선, 제강공장 집진 시스템 개선 등 환경투자를 실시했고, 2008년도 총 배출량 대비 1만 3,720톤을 배출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1단계 협약은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2003년 총 배출량(9만 1,439톤) 대비 7만 610톤(2006~2010년 평균)을 배출해 2만 829톤(22.8%)을 감축함.

에너지

에너지 사용 개선 포스코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으로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강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의 여유가 있고, 전력 단가가 비교적 낮은 삼야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압연 조업스케줄을 조정해 국가 전력사용의 균형과 회사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두 제철소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에너지절감 TFT 활동을 통해 제철소 에너지 낭비요소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과제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사용 개선 및 에너지사용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정책 이행 최악의 국가 전력수급 위기였던 2013년 하절기에 두 제철소와 포스코특수강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기로 조업중단, 조업스케줄 조정과 같은 극단적인 전력사용관리와 임직원의 100W 절전 운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량의 50%인 약 39만kW의 전력사용을 줄였으며, 이는 약 10만 가구의 한 달간 사용량에 해당합니다. 국가기본에너지계획에 따른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자가발전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가발전 증대,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 2012년도 아시아 철강업계 최초로 ISO 50001 국제규격 인증을 받아, 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3년 에너지절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PDCA의 체계적인 에너지절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및 포스코 ICT와 함께 제철소 산소공장에 적용을 완료한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 사업을 타 제조공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의 최대회수를 위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의 신기술 연구를 통해 중저온 폐열 회수설비를 소결공장에 실증 중에 있습니다.

* 스마트 인더스트리: 산업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비롯해 가스·열 등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의 흐름과 사용 현황을 관리해 에너지 절감 및 CO₂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부산물 자원화

자원 관리 포스코는 주요 생산품인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총 2,209만 톤입니다. 이 중 약 절반은 고로슬래그이며(49%), 제강슬래그가 27%, 더스트와 슬러지가 15%, 그리



에너지 사용량

(단위: MW / kl / MNm³)

	2011	2012	2013
전력(구입량)	798	927	1,084
중유	606	2,390	598
LNG	786	828	780



부산물 자원화

(단위: 만 톤 / 만 톤 / %)

	2009	2010	2011	2012	2013
발생량	1,861	2,254	2,709	2,396	2,209
자원화량	1,837	2,219	2,666	2,358	2,171
자원화율	98.7	98.4	98.4	98.4	98.3

고기타부산물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부산물의 98.3%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발생 전량을 시멘트 원료나 천연골재의 대체재, 그리고 비료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포스코는 고로슬래그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재슬래그 생산설비를 구축해 고로슬래그의 83%를 수재슬래그로 생산하고 있으며, 제강슬래그는 해양 생태 복원을 위한 바다순 조성 등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 수요를 넓히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기타 활용 용도를 마련하지 못한 부산물은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폐기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친환경 슬래그시멘트 활용 고로에서 쇳물과 함께 나오는 용융 상태의 슬래그를 수재 설비에서 물로 분사해 급랭시켜 모래와 같은 형태로 만든 수재슬래그는 시멘트 클링커와 함께 시멘트를 제조하는데 사용되거나, 슬래그시멘트의 주원료로 활용됩니다. 수재슬래그는 클링커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과 같은 광물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클링커 소성에서 발생되는 CO₂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846만 톤의 수재슬래그를 클링커 대체재로 활용해 664만 톤의 사회적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단지 시멘트 원료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밀리사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건설, 그리고 포스화인과 함께 친환경 고성능시멘트인 포스멘트(PosMent)를 개발해 건설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멘트는 기존의 슬래그시멘트에 비해 슬래그 함량을 높이면서도 강도와 같은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시멘트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 구조물이나 해안구조물 등의 실증시험을 거친 후 시멘트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2013년 51만 톤의 포스멘트를 건설 현

장에서 활용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량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수재슬래그 및 슬래그파우더 해외 수출 포스코는 2011년 연간계약을 통해 최초로 수재슬래그를 해외로 수출한 이래 2012년부터는 판로를 동남아시아 4개국으로 확대해, 2013년에는 총 37만 톤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슬래그파우더 제조 전문 패밀리사인 포스화인이 제조해 부가 가치를 높인 슬래그파우더를 연간 17만 톤 수출하며 원료와 제품의 해외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수재슬래그의 수출은 국내 슬래그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에서의 에너지 절감, CO₂ 저감, 그리고 천연자원 보존 등과 같은 친환경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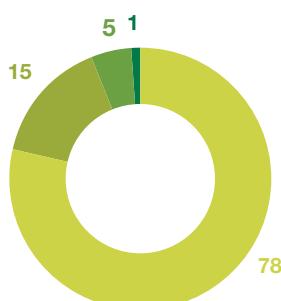
부산물 활용기술 개발 포스코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양과 종류가 많고 다양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재활용 용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이와 같은 부산물을 친환경자원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높은 부가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패밀리 차원의 '부산물 수익성 향상 Mega-Y'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유관 산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패밀리사와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포스코패밀리 고유의 부산물 활용모델 구축을 통해 2013년 부산물을 활용한 수익성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20억 원 향상됐으며, 누적 성과는 7,400억 원에 이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와 패밀리사의 부산물 활용에 그치지 않고, 타 업종 산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 부산물의 자원순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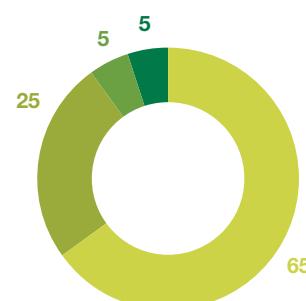
2013년 부산물 자원화 현황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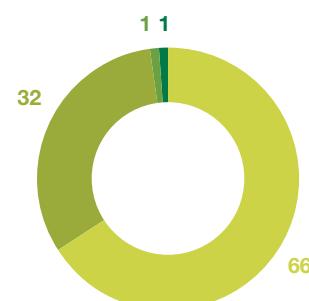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 시멘트용
- 도로 및 토목용
- 비료용
- 기타 활용

- 도로 및 토목용
- 제철 원료
- 벽돌, 골재
- 시멘트, 기타

- 사내 활용
- 사외 활용
- 매립 처리
- 소각 처리

환경리스크 대응



환경리스크 관리

포스코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의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 환경 규제 및 환경 이슈를 기회 요인으로 규명하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중장기 사업 전략 및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검토, 설계·시공, 운영의 세 단계에서 환경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환경총괄부서와 투자운영부서가 상호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각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단계별 환경리스크를 평가·진단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정책적 및 경제적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잠재적 사업리스크를 규명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합리적인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저탄소 기술과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CO₂입니다. 2013년 CO₂ 배출량은 7,483만 톤으로 2012년 7,700만 톤 대비, 약 2.8% 감소했습니다. 조강생산량은 2012년 3,799만 톤 대비 2013년 3,642만 톤으로 약 4.1% 감소했습니다. 조강 1톤 생산 시 배출되는 CO₂ 원단위는 2012년 2.03 t-CO₂/t-S에서 2013년 2.05 t-CO₂/t-S로 약 1.0%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후 고로의 정비가 여러 건 발생하여 정비 기간 중 에너지효율이 다소 낮아진 데 기인합니다. 한편, 기준연도(2007 ~ 2009년) 이후 CO₂ 원단위는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2011년 2.10t-CO₂/t-S, 2013년 2.05t-CO₂/t-S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경량화시켜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고장력 자동차 강판, 모터와 변압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에너지 저철손 전기강판 등 고효율 철강재 보급에 따른 사회적 CO₂ 감축 효과는 2013년에 약 312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한 가지인 고로 수재슬래그는 친환경 시멘트 대체 소재로 공급돼 2013년 한 해 사회적으로 약 670만 톤의 CO₂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CO₂ 배출 원단위

(단위: 1,000 t-CO₂/t-S)

	2011	2012	2013
직접배출 (scope 1)	2.00	1.94	1.94
간접배출(scope 2)	0.10	0.09	0.11
총 배출 원단위	2.10	2.03	2.05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단위: 1,000 t-CO₂)

	2011	2012	2013
고장력 자동차 강판	631	659	706
저철손 전기강판	2,600	2,510	2,415
수재슬래그	5,021	6,290	6,704
합계	8,252	9,459	9,825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3 탄소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포스코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경영 활동이 경영의 중대한 리스크인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 요인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긍정적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소규제 정책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잠재적 사업 리스크를 규명하고,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과 경영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사내외 온실가스와 사회적 온실가스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다이옥신 배출저감 포스코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배출저감(30/50 프로그램) 자발적협약¹' 1단계사업 (2005~2011년)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² (2006~2010)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다이옥신 배출량을 저감목표 (2001년 배출량 대비 50%) 대비 35%초과 달성한 15% 수준으로 저감하였습니다.

¹ 화학물질배출저감 자발적협약: 화학물질 배출량을 협약 체결 3년 내에 30%, 5년 내에 50% 저감

²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자발적협약: 2001년 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다이옥신 배출량 저감

2013년 화학물질 배출 현황

(단위: 톤/년)

	2011	2012	2013
포항	38	32	32
광양	31	41	37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대응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EU에서 발표하는 위험물질사용지침과 SVHC¹ 후보 물질의 최신 목록을 참조해 판매하는 모든 소재별로 MSDS², REACH³, RoHS⁴, 그리고 PFOS⁵ 등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포스코 전자거래시스템(www.steel-n.com)에 등록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¹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우려물질. 1톤 이상 제조/수입되고 신고 대상 물질 목록에 포함된 원제품 내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이 중량 기준 0.1%를 초과한다면 원제품 제조자/수입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함.

²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 안전보건 자료 프로그램

³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U의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⁴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EU에서 발표한 특정 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

⁵ PFOS(Perfluorooctanoic Sulfonate): 전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인 포말형 소화약제

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 강화 포스코는 화학물질이 환경,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 제철소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근원적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위험성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하거나 취급량을 저감 할 수 있는 기술 검토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입고·저장·사용·폐기 등 사용관리 측면에서의 휴먼에러를 예방하기 위해 취급 유해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공급자 및 취급자 교육, 누출예방조치, 취급 근로자의 건강과 비상시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와 장비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활동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에서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국민안전 구현을 위해 정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와 함께 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

Green-PCP 인증 포스코는 중소기업 포스코파밀리사를 대상으로 포스코형 환경영경영 인증 제도인 Green-PCP^{*}를 자체 개발·적용해 2013년까지 주요 132개 외주파트너사 및 공급사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중·소 패밀리사의 자발적 실행과 참여를 기반으로, 포스코는 외주파트너사와 공급사의 환경영경영 활동과 환경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Green-PCP 제도를 통해 환경영경영을 공급망 차원으로 확산, 포스코파밀리 통합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Green PCP: Green POSCO Certified Partner

중소기업 환경기술 컨설팅 포스코는 중소기업 공급사 및 고객사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관련 환경기술 전문가가 함께 대상 기업을 방문해 환경리스크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현황 진단

FOCUS**2013년은 환경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해였습니다**

포스코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은 패밀리 차원의 환경리스크를 재인식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는 강릉 마그네슘 공장에서 발생한 순환수 누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개선(배관 및 저장시설 지상화) 등 안정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인근 주변으로 추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조치를 실시했으며, 원상태로의 빠른 복구를 위해 주변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작업도 동시에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해 공장 주변 및 인근 하천·해변에 대한 환경영향도 조사와 실시 중이며, 이러한 모든 조사는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주민 상생 협의체의 참관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포스코는 패밀리 차원의 환경리스크 저감대책을 강구해 환경 리스크 관리와 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사업장 환경 AUDIT 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특정 수질/대기 유해물질 등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테마심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사업특성별 환경영향 및 유해성 리스크 정도에 따라 내부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업 기획·투자·건설 단계에서부터 환경전담부서의 겸종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투자 규정 신설로 환경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지속적인 환경투자 확대를 통한 설비개선 등 환경영경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환경리스크 제로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환경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관리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협의/협의변경/재협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리 대상사업 등 환경영리 스크가 예상되는 사업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전문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을 통해 개선안 도출하며 투자방안을 모색합니다. 대기 관리, 폐수 처리, 작업장 환경개선 등 환경기술 컨설팅을 통해 공급망 전 부문에 걸쳐 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정 및 제품 개발 포스코는 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고유의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철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CO₂를 직접 분리하는 방법부터 공정 중의 열에너지를 회수·이용해 열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암모니아수를 이용해 고로 부생가스에서 CO₂를 흡수, 분리하는 ‘철강 부생가스의 CO₂ 분리 기술’, 철강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온의 용융슬래그로부터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슬래그 현열회수’ 등을 통해 철강공정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CO₂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대량의 청정 수소 제조가 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석탄 대신 수소를 철광석 환원에 이용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포스코는 궁극적으로 석탄을 사용하지 않으며 탄소 배출이 없는 차세대 제철 공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사회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고장력 자동차 강판과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과 같은 에너지 절약형 소재의 개발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그를 시멘트 원료 또는 골재 대체자 등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해 석회석 같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CO₂ 발생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EY ISSUE _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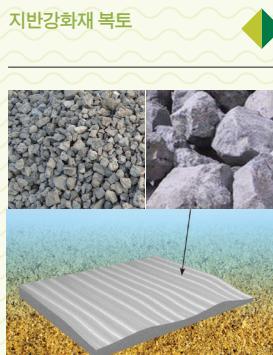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포스코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갯ぬ음에 의해 훼손된 연안해역을 회복시키기 위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철강슬래그를 이용한 해양구조물 트리톤(Triton)^{*}을 개발했습니다. 철강슬래그는 건축, 토목재료, 비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는 친환경 기능성 소재로, 해양에 유용한 미네랄인 철과 칼슘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하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 정화에 효과적입니다.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₂를 고정시키므로, 해수온이 상승해 발생한 갯ぬ음 등에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 자원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포스코의 MOU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남해 평산리 마을 어장의 바다숲은 18개월 경과 후 주변 암반 대비 생체량이 10배 이상으로 향상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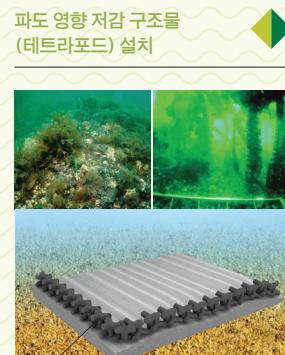
포스코는 해양수산부와 ‘바다녹화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상호 협력’을 체결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 등과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미 바다숲 조성 시범사업으로 연안생태를 복원하고 전복, 해삼 등의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및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에서 우수한 사례로 소개되며 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2013년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참여해 환경부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정부, 지역주민과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트리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뿔고둥 나필을 불어 물고기와 돌고래를 부르고, 바다숲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바다 신의 이름이며 철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한 저탄소형 어초 브랜드이기도 함.

슬래그 바다숲 조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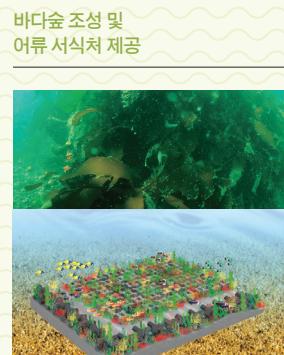
복토 정화용 10mm 이하, 지반 강화용 10~70mm, 해조용 300~600mm 크기의 트리톤 골재를 사용해 모래, 빨 등의 연약 지반을 강화하고 철분을 공급함.



연약 지반을 강화해 상부 구조물을 안정화하고, 철분 공급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조류의 부착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함.



트리톤 골재와 슬래그 시멘트를 배합한 트리톤 콘크리트 구조물로 활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함.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해조류의 부착 및 성장이 우수하므로 바다 복원사업 및 해충림 조성사업 등에 활용.

환경 파트너십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환경 콜로키움 국내외로 환경에 대한 관심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 환경 이슈 및 국내 환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환경 콜로키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기업, 학계 및 환경단체 등의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포스코의 사업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환경복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복지'의 의미와 각계의 기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며, 환경 콜로키움에서 토의한 내용은 포스코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포스코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자발적인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각층으로 인식 전환을 확산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2009년에 전국의 초·중·고생과 동아리, 시민단체,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업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론칭했으며, 2010년부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탄소중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들을 선발해 활동을 지원하며,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탄소중립에 관한 지식과 의견을 직접 나누고 있습니다.

▶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carbonzero>
▶ 페이스북 www.facebook.com/PoscoCarbonzero

그린워크 포스코파밀리 임직원과 가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워크' 캠페인은 포스코의 대표 녹색실천 운동입니다. '걷기, 끄기, 줄이기, 모으기'로 대표되는 그린액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뉴스와 전문가 칼럼, 그린포토, 그린에세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며,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해 2013년 말 기준으로 1만 3,105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참여 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임직원의 활동을 통해 적립한 그린코인을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외 협력 활동

포스코는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모델을 개발했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원 재활용 분야 비즈니스 가능성 평가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기업으로서 종주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활동	주요 내용
국내	한국철강협회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정책 변화 대응 및 자발적 환경 개선 도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및 교류
	해양수산부	'바다녹화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상호협력' 체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그린워크 프로그램 협력
국외	세계철강협회 환경정책협의회	세계 철강사와 환경, 기후변화 정책 대응 및 정보교류
	동남아철강협회 환경정책분과위	동남아 철강사와 환경, 기후변화 정책 및 기술공유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여건 및 비즈니스 사례공유
	세계에너지총회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집행위원 및 참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참여

환경정보 공개 및 수상 실적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투명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1995년도 최초 환경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 홈페이지, 포스코신문 등을 통해 환경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2010년부터는 탄소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세계적인 기후변화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세계 철강기업 중 유일하게 탄소정보 공개 최우수기업군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영향의 노력을 평가받아, 환경부문에서는 철강업계 최고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인 SAM-DJSI에서 9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 그린워크 www.greenwalk.co.kr (모바일: m.greenwalk.co.kr)



PARTNER

파트너

CONTENTS

67 공정거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다양한 CP 운영](#)
- [포스코파밀리 CP 도입 현황](#)
-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68 벤처 지원 프로그램

-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69 동반성장

- [포스코의 동반성장 활동](#)
-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
- [동반성장 거버넌스](#)
- [동반성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파트너십 강화](#)
- [인적역량 향상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 [일자리 창출 및 소통 강화 프로그램](#)
- [2014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70 서플라이 체인 CSR 경쟁력 향상

- [포스코그룹 공급사](#)
- [행동규범 제정](#)
- [SRM 평가지표 소개](#)
- [친환경 자재 구매](#)
- [공급사 역량 향상 교육](#)
- [분쟁광물\(기사\)](#)

77 KEY ISSUES

- [08: 포스코형 성과공유 모델 FOCUS](#)
- [09: 포스코 웹크 시스템](#)

고객사와 공급사 등 모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포스코가 지향하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천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를 비롯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협력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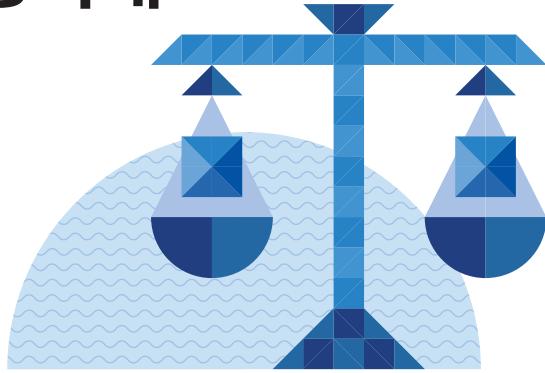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



포스코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후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03년 6월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를 통해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천명했으며, 매년 회사운영회의와 포스코그룹 사장단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공정거래의 중요성과 관련 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포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7대 요소를 포함해서 포스코만의 CP를 추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2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운영	3 자율준수 편람 작성, 배포
4 교육프로그램 운영	5 내부 감독체계 구축	6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7 공정거래관련 문서관리	8 자율준수협의회	9 운영성과의 평가

포스코의 CP 운영 현황은 2004년부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총괄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CP 운영 현황을 이사회

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하는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총 87건의 안건이 심의·보고됐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2004년 신설한 공정거래지원팀을 2012년에 공정거래지원그룹으로 확대해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CP 운영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포스코는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인 e-러닝 과정을 2002년도에 개설한 이후 기존에 운영 중이던 2개 과정을 '알기쉬운 공정거래' 단일 과정으로 통합했으며, 2013년에는 '공정거래 위반사례' e-러닝 과정을 신규 오픈해 임직원의 필요에 따라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러닝 과정은 개설 이래 2013년 말까지 총 5만 3,846명이 수료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스마트폰용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임직원의 자가진단을 용이하게 했고, 부문별 공정거래 편람과 포스코파밀리용 통합 편람, 구매·판매 부문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임직원 스스로 체크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3년에는 총 148회에 걸쳐 신입사원, 승진자를 비롯해 판매·구매 등 사내 유관부서와 포스코파밀리 등 6,052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자율준수 관리자가 주관하는 포스코파밀리 임원 대상 교육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사외 전문가 초청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에 사내 공정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자율점검 및 상담체계를 구축한 이후 임직원이 직접 공정거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와 연관 있는 판매·구매·외주 등의 7개 현업부서를 자율점검 필수부서로 지정해 자율점검체계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공정거래 웹사이트의 주된 기능인 '부서별 자율점검 및 상담체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감독체계로 공정거래 유관부서의 실무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관업무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내 전문부서와 미리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업부서에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리더 이상 부서장들로 구성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자급으로 구성한 공정거래실천리더, 계열사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학습동아리인 FTA(Fair Trade Academy) 등을 통해 정기적인 세미나, 정보 교류, 워크숍 등을 실시해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파밀리 CP 도입 현황

2013년에는 9개 계열사가 CP를 신규 도입해 현재 포스코그룹에서 총 30개 회사가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포스코파밀리의 법 위반 예방과 동반성장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윤리웹진 기사 게재, 공정거래 주간동향 메일링,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편람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포스코파밀리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2014년에도 포스코는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공정거래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카르텔이 포스코파밀리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담합 예방과 근절에 최대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회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의 CP 도입 확대, CP 제도의 ISO 국제 표준화 논의 사전대응,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점검체계 내실화, 각 회사의 자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정 심화,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동반성장 활동의 지원 등을 통해 CP 운영을 포스코파밀리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사무소 등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강화, 나라별 법 집행동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파밀리 CP 도입 현황

도입 시기	회사명	누계
~2006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특수강, 포스코강판, 포스콘,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8개사
2007	포철기연, 포스코플랜텍	10개사
2008	포스코P&S, 포스메이트	12개사
2009	포스코A&C, 포스코에너지, SNNC	15개사
2010	포스코엔지니어링	16개사
2011	대우인터내셔널, 성진지오텍, 엔투비, 포스코AST, 포스코TMC	21개사(19개사)*
2012	포스화인, 포레카, 포스코NST, 포스하이메탈	25개사(22개사)*
2013	P&R, 뉴알텍, SRDC, SPFC, 포스코휴먼스, 포스코터미날, 포뉴텍, 블루오앤엠, 포스코ESM	34개사(3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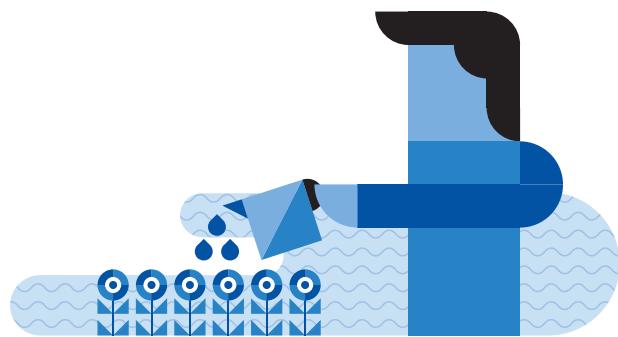
* 합병으로 감소한 회사 반영

연도별 공정거래 e-러닝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알기 쉬운 공정거래	공정거래 위반사례
2011	직원	1,611
	패밀리사 및 파트너사	1,366
합계	2,977	
		· 2013년 신규 개설
2012	직원	1,140
	패밀리사 및 파트너사	1,366
합계	2,506	
2013	직원	688
	패밀리사 및 파트너사	1,115
합계	1,803	4,206

벤처 지원 프로그램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 사회에서 벤처기업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벤처기업이 소규모로 출발하는 데다 자금, 정보,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스코는 보유 자원을 활용해 벤처기업이 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으로 척실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포스코는 2011년 11월부터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로 대표되는 벤처 지원 프로그램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는 청년 창업 및 초기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와 에인저 투자자(Angel Investo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우량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에인저 투자자의 역할은 창업 초기나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라는 벤처 지원 조직을 구성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수립부터 사업 설계, 성장관리까지 창업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 부족으로 벤처기업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펼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아이디어를 발굴·심사를 통해 선별한 뒤 아이디어 육성캠프, 전문가 멘토링과 같은 고유의 벤처 지원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투자자에게 소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까지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한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모델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의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이 다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갖추었습니다. 재기중소기업 개발 원의 힐링캠프와 중소기업청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료한 중소

기업인을 대상으로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CEO 등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자, 은퇴자 창업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벤처 지원과 포스코 역량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최근 포스코와 포스코파밀리의 신수종 사업과 연관된 벤처기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개최 시 포스코파밀리의 경영진이 참여해 신수종 사업의 가능성이 높거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2011년 6월에 열린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제 1회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2011년 10월 27일 개최했으며, 2013년에는 2회에 걸쳐 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까지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멘토링 지원을 받은 회사는 65개사이며, 35개사에 총 62억 7,000만 원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모델



벤처기업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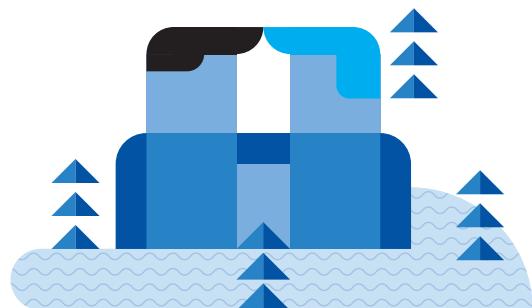
(단위: 개사/ 억 원)

구분	2012	2013	합계
최종 투자회사수	11	24	35
포스코 투자 금액	31.5	31.2	62.7

포스코 벤처 지원 프로그램 5단계

- 1 아이디어 발굴 및 심사 : 사업화 아이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수시 접수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홈페이지 www.poscoventure.co.kr)
- 2 아이디어 육성 캠프 : 2박 3일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참가 30명 (아이디어 발표, 집단 토론, 일대일 심화 멘토링, 아이디어 업그레이드, 아이디어 심사)
- 3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멤버십 프로그램, 1:1 심화 멘토링(10주간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구체적 사업계획서 작성) *전담 멘토 6명, 단기 멘토 20명으로 구성
- 4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 대외 사업 설명회 및 투자 유치 지원, 아이디어 전시 및 투자자와의 교류 기회 제공
- 5 예인절 투자 및 사후 관리 : 초기 투자 유치, 단계별 투자 확대 지원, 법률 · 세무 · 판로 개척 · R&D 등 지원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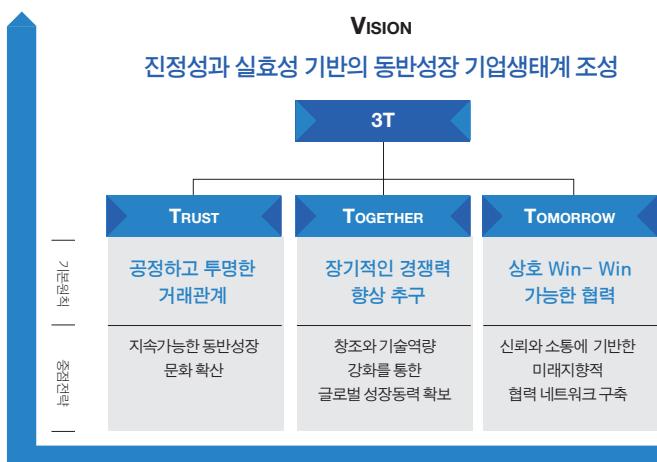
포스코의 동반성장 활동

포스코 동반성장의 모토는 3T(Trust, Together, Tomorrow)로서, 상호신뢰(Trust)를 기반으로 1차 및 2~4차 협력기업과 동반성장(Together)하는 미래지향(Tomorrow)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해온 포스코는 2005년 6월 신설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2008년 11월에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 · 개편했고, 포스코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다시 CEO 직속 부서로 전환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조직 명칭을 동반성장사무국으로 변경했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2~4차 협력기업까지 아우르며 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등 6개 카테고리, 37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영 전 부문에 걸친 동반성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포스코그룹과 2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동반성장 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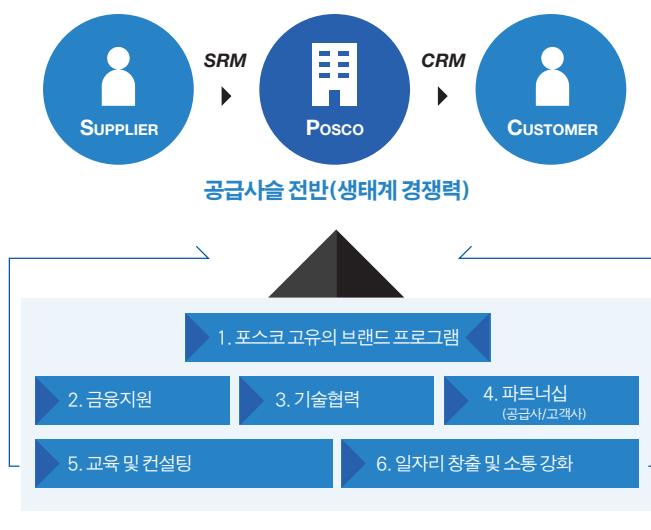
2013년 동반성장 주요 활동

3월	포스코파밀리 성과공유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
4월	글로벌 중견육성기업 간담회
5월	성과공유 자율추진 및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식
6월	포스코 중견육성기업 독일 히든챔피언 벤치마킹
10월	글로벌 중견육성기업 CEO 워크숍 개최 중견기업 CEO 클럽 발대식 등
11월	포스코파밀리 파트너스데이 개최 총 5개 부문(성과공유, 기술협력, 생산성 혁신, 중소기업 간 협력, QSS활동) 23점 포상 포스코윙크 협약식
12월	경인허브 발대식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

포스코는 협력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사까지 대상으로 총 6개 부문에서 37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함으로써 서플라이 체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 구성



동반성장 거버넌스

포스코는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포스코파밀리 동반성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1차 협력기업 대표 위주로 구성했던 참여위원을 2차 협력기업 대표까지 확대해 포스코파밀리만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포스코그룹 CEO와 1차 · 2차 협력기업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포스코 각 부문 대표임원과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 그리고 우수 협력 중소기업 대표들로 구성한 5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협의회는 반기에 1회 개최하며,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동반성장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의결합니다. 또한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동반성장 과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포스코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30일간 포스코경영 연구소와 함께 최근 2년 이내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 활용 경험 있는 협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3.2점으로 나타났으며, 포스코는 설문 응답과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개선 니즈를 반영해 포스코의 동반성장이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만족도¹

(100점 만점 기준)



¹ 전체 운영 프로그램 대상(정부 연계 프로그램, 소통강화 프로그램 제외)

² 브랜드 : 성과공유제, 테크노파트너십,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며, 포스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와 품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과제 수행으로 발생된 성과에 대해 3년간 성과 발생금액의 50%를 보상함은 물론 장기 계약 체결(3년), 공급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공동특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 이래 2013년까지 포스코는 1,940건의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895개사에 1,865억 원의 성과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 포스코 성과공유제 운영모델 FOCUS의 상세한 내용은 p.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크노파트너십 포스코는 2006년 9월부터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인 테크노파트너십(Techno Partnershi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소와 포스텍 등 4개 기관의 박사급 연구인력 869명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 중소기업이 테크노파트너십 참가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별,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해당 중소기업과 테크노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후 지원을 시작합니다. 기술자문단은 매월 한 차례 일대일 현장진단, 기술교육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생산공정 또는 제품의 기술적 고민을 함께 해결합니다. 또한 참여기관별로 보유한 연구설비와 시험분석을 지원하며, 박사급 우수인력과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스코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108개사에 대해 595건의 기술자문과 184건의 시험장비 무상지원을 실시했습니다.

2013 테크노파트너십 운영 현황

구분	대상 기업(개사)	기술자문(건)	시험분석(건)
1차 협력기업	65	354	117
2차 협력기업	43	241	67
합계	108	595	184

중소기업 구매대금 전액 현금 지불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4년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공급사의 결제금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납품 후 3영업일 이내 주2회 조건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명절 1주일 전부터 매일 지급으로 자금 지급 주기를 조정합니다.

포스코그룹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포스코와 포스코그룹 임원진은 지난 2010년 10월에 임원 동반성장지원단을 결성해 재능기부의 형태로 솔선수범의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1·2차 협력 기업에 경영혁신, 노사관리 등 경영진의 전문 경험과 역량을 전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지원단에 참가하는 임원진은 월 1회 거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실적은 2011년부터 경영진의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13년 12월까지 포스코를 비롯한 23개사의 포스코그룹 임원 261명이 중소기업 96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중소기업 대출지원펀드 포스코는 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해 총 9,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포스코그룹 협력기업 624개사가 이 제도를 활용해 4,502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금융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협력기업 지원펀드	상생협력 특별펀드	포스코파밀리 네트워크론	합계
400	3,600	5,000	9,000

동반성장 투자펀드 포스코는 신성장동력이나 핵심 기술을 가진 협력 중소기업, 핵심 고객사, 신규 사업 등에 지분투자를 해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자 KB금융지주, 한화그룹 등과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거래 중소기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가능해졌고, 지분관계에 의한 포스코그룹 생태계가 구축됨으로써 포스코파밀리 내 유대관계 강화와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2013년까지 후판 고객사인 스틸플라워와 덕양, 솔리텍에 총 8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재무안정 지원펀드 포스코는 기업은행 등과 함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1,010억 원 규모의 재무안정 지원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일시적으로 재무 여건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움으로써 국가 경제의 기반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비 구매 중도금 2010년에 신설한 설비 구매 중도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설비를 제작할 때 긴 제작기간과 소요 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계약 금액, 180일 이상의 계약 기간으로 포스코와 계약한 중소기업이며, 중도금은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 선금금을 제외한 전체 계약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합니다.

FOCUS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사례(포스코-태경화학)

산업용·식음료용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액체탄산가스 제조업체인 태경화학은 제조공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아 연간 1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전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과다한 전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포스코 가스석탄화학사업실, 임원 동반성장지원단과 함께 기존에 사용했던 암모니아 대신 포스코 LNG터미널에서 LNG를 기화(氣化)시킬 때 발생하는 -162°C의 냉열을 냉매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발생한 냉열의 처리를 위해 인근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공급받은 후 냉배수로 만들어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에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방안으로 태경화학은 향후 건설 예정인 광양제철소의 포스코 LNG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탄산 제조공정의 냉매로 활용해 연간 약 8억 5,000만 원의 전력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포스코도 LNG 냉열 처리에 들어가던 전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회사는 전력 절감으로 발생한 이익을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란 포스코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R&D 기금을 조성하고, 포스코가 구매를 보장한다는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중소기업 R&D 과제의 개발비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 성공 시 3년이라는 장기계약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8년에 이어 2011년 12월에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R&D 기금 1,000 억 원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가 지원한 중소기업 과제는 48건입니다.

연도별 과제 추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민관공동 R&D 펀드	6	6	6	15	15	48

중소기업 특허 지원 프로그램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는 보유한 특허를 웹사이트(www.steel-n.com)에 공개해 중소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포스코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출원에 필요한 행정 비용 전액을 포스코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포스코의 특허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포스코에 납품할 때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해 비용절감 효과와 특허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허 상담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기술자료 임차 제도 기술자료 임차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와 같은 지적재산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임차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2011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임차 제도를 도입해 2013년 까지 총 112건의 기술임차계약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자료 임차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합계
임차 건수	12	50	50	112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파트너십 강화

포스코 인증공급사(PCP) 제도 포스코 인증공급사 제도는 인증 파트너로 선정된 공급사를 세계적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한 전문 품종(소싱 그룹) 공급사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선정 공급사에 포스코 그룹 차원의 다양한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2년 연속 해당 소싱그룹 SRM 평가 결과 우수, 일정 금액 이상의 입고 실적
-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공급시장 특성을 고려해 소싱그룹 단위로 성과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에 의해 소싱그룹 등록 공급사별로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공급사에는 인센티브, 열위 공급사에는 패널티를 부여함.

포스코 인증공급사 현황

(단위: 개사/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공급사	25	26	31	38	42	39	41
인증 품종	36	40	43	64	70	70	76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포스코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30개 육성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포스코는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2013년 현재 공급사, 고객사 등 30개사를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금, R&D, 전문 인력, 해외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KC코트렐, BHI 등 협력 기업 6개사를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포스코와 1차 협력기업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납품 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경우, 1차 협력기업이 2~4차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동반성장 문화가 2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같은 내용을 1차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서'와 일반 계약약관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그룹이자 국내 대표 무역전문 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바이어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 고객사와 공급사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가공센터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2009년 9월 태국과 인도에 연 홍보관은 각각 3개사, 4개사로, 2013년까지 태국은 3,115명, 인도는 5,148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거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현지 시장 조사활동을 돋기 위한 지원센터(Global Growing Center)를 2011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 현장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물선 고객의 경쟁력 향상 지원 주물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물선 고객사에 대해 가격 인상 적용을 유예하고 가격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고가 수입재의 대체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포스코는 총 329억 원의 가격 할인 제도를 전개했습니다.

중소고객사 솔루션 프로바이딩 제도 중소고객사 솔루션 프로바이딩 (Solution Providing) 제도란 포스코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외로부터 소재를 다양하게 구매하는 고객사의 각 소재의 특성에 맞는 가공기술 (특히 성형, 용접, 도장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강재 구매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문제점을 포스코와 고객사가 함께 해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포스코는 보유하고 있는 검사·분석 장비를 활용해 고객사의 품질분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해

고객사의 제품 프레스가공과 용접기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75개의 고객사가 참여했으며 과제수행 건수는 108건입니다.

인적역량 향상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및 중소기업 경영진 토요학습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예정자 양성 교육과 재직 근로자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직업 훈련 컨소시엄에도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교육 과정을 수료한 중소기업 관련자는 총 6만 8,851명입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매월 1회 외주파트너사와 우수 중소기업 대표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내외 경영환경 이슈 사항과 포스코그룹의 경영 전략을 공유하고 경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진 토요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취약부분이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코 내 전문인력을 활용해 컨설팅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차, 2~4차 희망 중소기업과 포스코그룹 추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 에너지, QSS, IT, 감사나눔 컨설팅 등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운동 3.0 포스코는 정부의 산업혁신운동 3.0에 동참해 2013년부터 산업계 전반에 대한 혁신활동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운동 3.0이란 1970~1980년대의 공장 새마을운동(1.0)의 자조정신을 계승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중심의 동반성장(2.0)을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3.0)하며 경영혁신, 작업환경과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포스코는 2013년 1·2차 협력기업은 물론 미거래기업까지 총 130개사를 발굴해 지원했으며, 2014년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포스코는 2013년까지 3년간 18억 원을 출연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 1·2차 협력기업 20개사의 컨설팅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업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술, 현장 혁신 등 경영 전방위에 걸친 자문 지원을 받았으며, 2013년에만 총 63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3년간 총 194건의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의 2차 협력기업 부강특수산업은 2013년 12월 13일에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2013년 동반성장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영닥터제 포스코는 협력 중소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문단과 함께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영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닥터제란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의 전직 CEO,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중소기업 경영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그룹 차원으로 2013년 상반기에 7개사, 하반기에 14개사 등 총 21개 협력중소기업이 경영닥터제에 참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소통 강화 프로그램

포스코 협력기업 채용관 운영 포스코는 2009년 3월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협력기업 채용관을 개설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1,907명이 321개의 포스코그룹 협력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취업 전문 사이트인 잡월드(www.ibkjob.co.kr/jw/)에 회원 가입한 뒤 채용 공고를 게시하면 됩니다. 참여 중소기업이 잡월드 사이트를 통해 인재를 채용한 경우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대출이자 감면(채용 1인당 100만 원) 혜택을 받으며, 잡월드 사이트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차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 시스템(포스코윙크)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의 온기가 2차 협력기업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2013년 포스코윙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포스코윙크란 포스코의 동반성장 활동을 1차 협력기업에서 2차 협력기업으로 확산하고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 간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포스코윙크(WinC) 시스템의 상세한 내용은 p.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주사 의료시설 이용 지원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이 포스코의 의료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 사람 중심의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복통, 가벼운 외상 등 일반 진료는 물론이고 필요 시 물리치료까지 지원합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포스코파밀리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3년에는 8,898명의 인원이 포스코 의료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동반성장 활동실적의 임원평가 반영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핵심 경영가치로서 포스코그룹의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 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 활동 실적을 임원 평가에 반영합니다. 현재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의 12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반성장·공정거래 협약 실적과 동반성장 지원 활동, 동반성장 우수 과제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2014년에도 포스코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미연계 기업과 지역사회에도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이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근간은 공정거래라는 인식 아래 공정거래 문화가 포스코 그룹 차원으로 더욱 확산되고 1·2차 협력기업 간에도 이러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소규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링크 시스템이 1·2차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확산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협력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창조와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 포스코는 중견기업 CEO 클럽 운영을 통해 성장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중견기업의 육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e-MBA,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교육의 기회를 넓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부 성장동력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포스코 대표 프로그램인 성과공유제에 대해서는 재무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등 시혜성의 동반성장이 아닌 상호 가치 창출형 동반성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포스코는 2차 협력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 도입한 산업혁신운동 3.0 운영을 강화해 포스코 거래 협력기업뿐만 아니라 미거래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지원할 계획이며, 포스코 고유의 혁신 활동인 QSS가 전 산업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소통 방식을 기존의 대규모 간담회에서 소규모 탐문홀 미팅” 방식으로 변경해 동반성장 제도나 프로그램 개선에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포스코 전문인력 지원포털, 포스코 협력기업 채용관(잡월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티운홀 미팅 : 누구든 참여해 의사표시할 수 있는 열린 회의 형태

2014년 동반성장 중점 추진 과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창조와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지수 평가 선행관리 체계 구축 1·2차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 인프라 내실화 포스코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시너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Win-Win형 기술 역량 개발 지원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지원 가치 중심의 성과공유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방향 소통 커뮤니티 강화 중소기업의 인적 역량 및 채용 지원 변화관리 및 상호 발전적 파트너십 강화

서플라이 체인 CSR 경쟁력 향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CSR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CSR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자신이 가진 CSR 역량을 공급사, 외주사 등의 협력기업에 전파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협력기업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급사의 행동규범을 제정해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파밀리 서플라이 체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급사 평가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CSR 경쟁력을 서플라이 체인에 전파해 공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CSR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제정 (POSCO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

포스코는 포스코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도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6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을 마련했습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UN Global Compact가 규정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범에 공정거래, 품질경영, 동반성장 관련 항목 등을 더해 7개 부문 22개 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행동규범은 포스코그룹과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는 포스코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e-procurement(www.steel-n.com)를 통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포스코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요약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자발적 취업, 아동근로 금지, 차별 금지, 근무시간 요건 준수, 임금관련 법 준수, 인도적 대우
안전 및 보건	안전한 작업환경, 산업안전 준수
환경	유해물질 관리, 폐수 ·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관리,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윤리 및 공정거래	비즈니스 청렴성,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준수, 공정 거래 준수, 신뢰 문화 구축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지적재산 보호
품질경영	품질관리, 변경관리, 공급사 상호 품질관리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동반성장, 사회공헌

▶ [포스코공급사 행동규범](http://www.steel-n.com)
<http://www.steel-n.com>

SRM 평가지표 소개

포스코는 구매물품의 공급 시장, 물품 특성, 계약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묶고 소싱그룹(Sourcing Group)을 구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사의 기본적인 재무 능력, 설비 규모 등 포스코가 구매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 요소를 심사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급사를 해당 소싱그룹에 등록하고 물품에 대한 입찰 또는 협상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의 거래 실적은 소싱그룹별로 분기 단위로 분석, 평가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공급사 성과평가(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신용, 가격, 품질, 납기, 협조도, 환경 등으로 구성했으며 기타로 가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CSR 요소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전 부분을 포함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은 회사별 봉사시간이 분기 50시간 이상되는 기업에 100점을 부여합니다. 기부금과 사회공헌 관련 포상 역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업이 포스코의 분기별 공급사 성과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동반성장 정책과 더불어 포스코의 2·3차 공급사도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차 공급사를 독려합니다. 공급사 성과평가 기준에 2·3차 공급사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을 가점항목으로 반영해 포스코패밀리 벤류 체인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및 환경 분야 역시 공급사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KOSHA 18001 등과 같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건수를 가점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인전재해 발생 건수와 제철소 내 수직 위반 건수를 감점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ISO 14001 등의 환경인증 보유, 녹색 구매금액, 친환경 상품 제안, 탄소배출량 관리를 공급사 평가 기준에 반영해 환경친화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사 평가 · 분석을 통해 분기 단위와 연간 단위로 보고서를 발간, 공

급사에 제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공급사에 제공하는 보고서는 Excellent, Good, Poor 3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Poor 등급을 기록한 공급사에는 거래 정지 등의 입찰제한 조치를 합니다. 연간 단위 보고서에서 2년간 Poor 등급을 기록하면 1년 간 거래 정지와 소싱그룹 등록을 취소하므로 그 이후 다시 소싱그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과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Excellent로 평가한 공급사는 그 중 포스코 인증공급사(POSCO Certified Partner)를 별도로 선별해 중요 자재 계약 시 우선협상권, 각종 보증금 납부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포스코는 공급사 성과평가를 실시해 각 공급사의 강약점을 피드백함으로써 공급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공급사를 지원하거나 퇴출시키는 기준으로 활용해 포스코의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급사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두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거나 민원을 야기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합니다. 포스코의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민원을 야기한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최고 영구 제재까지 기하는 등 엄중히 제재해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이 포스코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사의 비윤리 행위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확인,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SRM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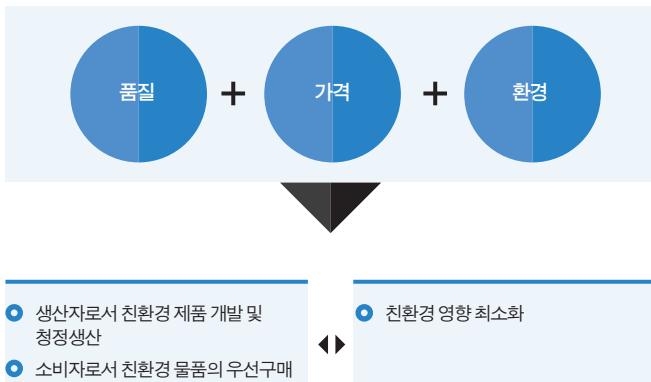
평가항목	세부 내용
신용	신용등급
가격	투찰가격, 견적신뢰도, 적정투찰률
품질	불량률, 불량 금액, 하자율, 하자 금액
납기	지체율, 지체 금액, 평균지체 일수, 장기지체 건수
협조도	입고실적 금액, 사회봉사 실적, 성과공유제 과제 건수, 성과공유제 재무성과 금액, 2~4차 공급사 대금 지급기일, 동반성장 협약 체결, 자재 사용부서 만족도
환경	친환경품목 납품실적 금액, 친환경마크 인증, ISO 14001 인증 등
가점	2~4차 공급사 금융 지원 긴급돌발 지원 도면 제작 안전보건경영 인증 : 2점 혁신활동 실적 : 1점/건 CP 도입 : 0.25점
감점	정도경영실 지적 : -1점 / 건 중대 재해 : -3점 / 건 일반 재해 : -1점 / 건 안전 위반 : -0.25점 / 건 CSR 저촉행위 : -3점 / 건

친환경 자재 구매

포스코는 친환경 자재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는 구매가격의 10% 이내에서 가격 선호율을 적용해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자재가 다른 품목보다 10% 정도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일 용도의 다른 물품에 비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기 1회 윤리교육을 실시해 서플라이 체인이 윤리적으로도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해당 교육 참여는 공급사 성과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친환경 자재 구매 의의



공급사 역량향상 교육

공급사의 역량 향상이 곧 포스코의 역량 향상이라는 믿음으로 공급사 를 대상으로 HRD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 소공급사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우수한 혁신 활동을 전파해 공급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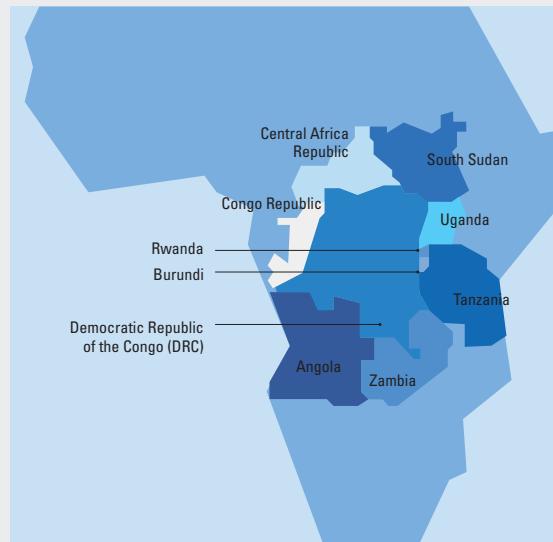
분쟁광물

DR콩고 등 분쟁 지역의 광산을 무장 세력인 반군이 소유, 관리함으로써 광물의 판매 자금이 반군에 유입돼 반인륜적인 분쟁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 세력이 관리하는 광산은 채취 과정에서 아동노동, 성폭행 등 인권 유린도 발생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광물을 분쟁광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생산 시 DR콩고와 인근 국가에서 나오는 분쟁광물인 금, 텉스텐, 주석, 탄탈룸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주석과 텉스텐 합금철인 페로텅스텐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사용한 주석과 페로텅스텐은 모두 중개거래를 통해 수입하였으며 주석의 경우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스테인레스 제품 등에 사용하는 텉스텐 합금철의 원산지는 베트남과 중국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공급사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원칙(p.74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을 가지고 분쟁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분쟁광물 사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원료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 지역의 광물을 사용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계약을 즉시 종료하고 추후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향후 포스코파밀리 내에서도 분쟁광물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사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포스코파밀리 CSR 역량 진단 프로그램과 CSR 체크리스트(p.25 해외 CSR 체크리스트)에 분쟁광물 항목을 추가해 분쟁광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EY ISSUE _ 08

함께 노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의 가치 포스코형 성과공유 모델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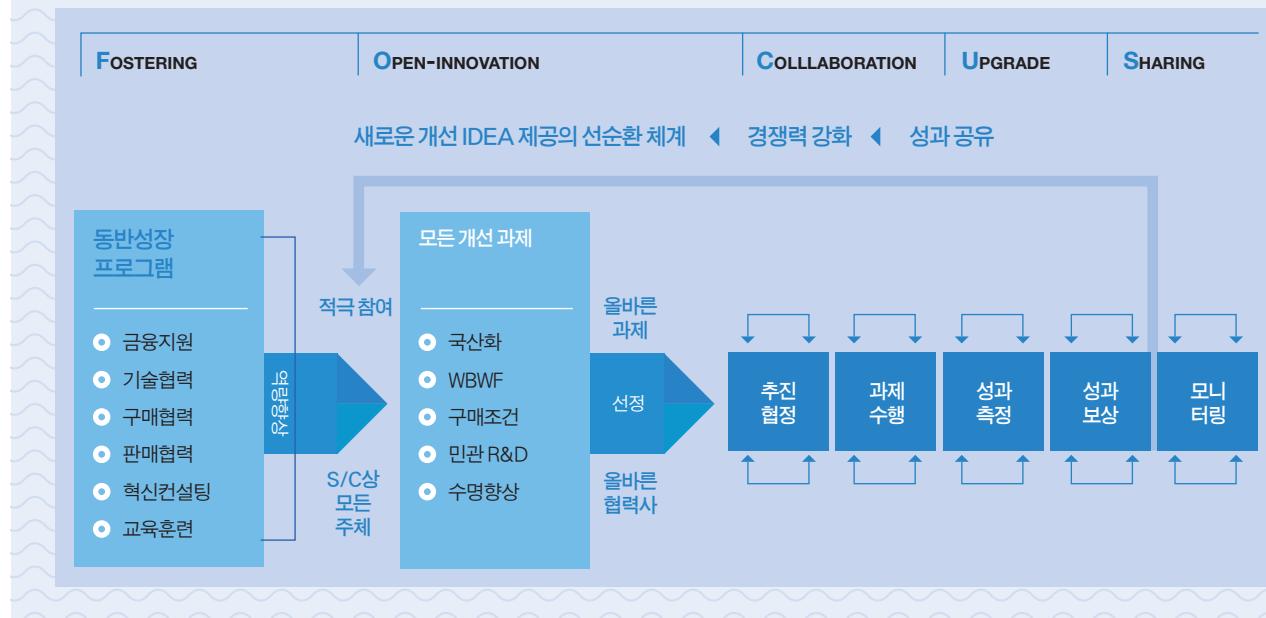
포스코는 2012년 7월 포스코형 성과공유제 운영모델인 FOCUS를 정립하는 한편, CEO 직속 동반성장사무국 산하에 성과공유제 전담팀을 구성해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를 산업계 동반성장의 표준모델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FOCUS는 포스코형 성과공유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포스코와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FOCUS) 의미와 함께 포스코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협력사를 적극 육성(Fostering)하고, 이들과 함께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기반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수명, 납기, 품질 등의 향상(Upgrade) 성과를 사전에 협의된 기준에 따라 공유(Sharing)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FOCUS를 통해 성능 공동개선형, 협력기업 간 협업형 등 7개의 성과공유 모델을 세우고 그 하위 개념으로 25개의 구체적인 협력 유형을 정립해 포스코그룹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이 성과공유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성과공유제의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FOCUS 추진 과정



또한 성과공유제 참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성과공유제 참여 직원에 대해서는 CEO 포상과 연계해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BS(Benefit Sharing) 마일리지로 보상합니다. BS 마일리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부금 또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과공유 과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그 참여폭 또한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제철소를 출입하며 개선 기회를 찾기 쉬운 협력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과공유 과제가 도출 되곤 했는데, 이제는 여타 협력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내부 직원도 온라인을 통해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외주사와 공급사 등 협력기업 평가 시 성과공유제 참여 정도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3년 12월에는 효율적인 FOCUS 운영을 위한 전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에 대한 열린 참여 기회와 동기부여가 대내외적으로 보강돼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 특유의 동반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KEY ISSUE _ 09

2차 협력기업으로의 동반성장 확산 포스코윙크(WINC) 시스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1차 협력기업과의 관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건강한 기업 생태계,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의 온기가 2차 협력기업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2013년 포스코윙크(WINC)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윙크란 포스코의 동반성장 활동을 1차 협력기업에서 2차 협력기업으로 확산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 간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포스코는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신용정보기업 나이스디엔비와 윙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대금결제 기능과 금융서비스 기능, 납품단가 통보 기능, 중소기업 경영지원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으로 대금을 3일 내에 지급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1차 협력기업이 정작 2차 협력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기까지는 평균 60여 일이 소요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윙크를 통해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의 대금결제 현황을 확인하고 2차 협력기업에 대금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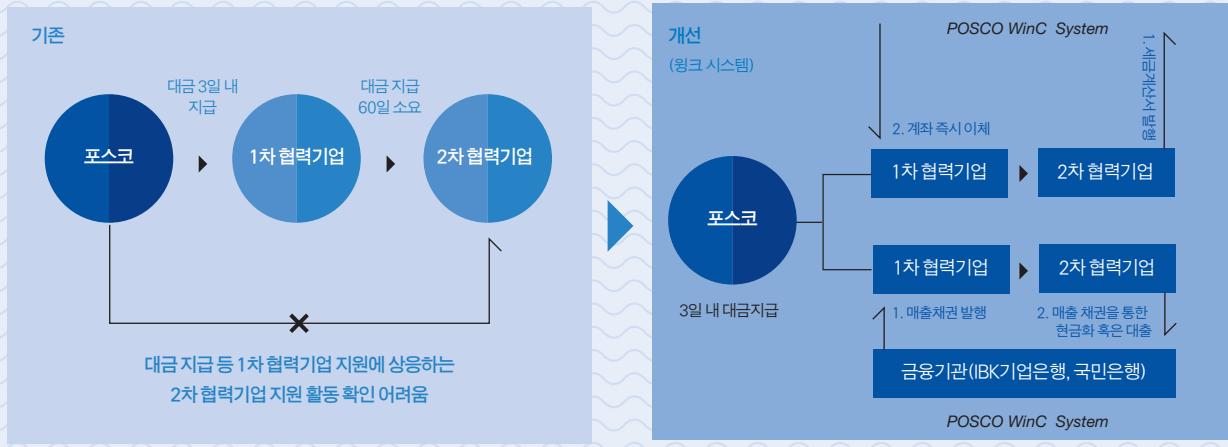
납품을 완료한 후 윙크에서 언제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윙크에 연동된 계좌에서 현금을 이제해줍니다.

1차 협력기업의 현금 결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윙크 시스템에 가입된 1차 협력기업에 신용이나 담보 등 추가 금융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포스코와의 계약만을 근거로 2차 협력기업에 매출채권을 발생시킵니다. 2차 협력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은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현금화되며, 2차 협력기업이 결제일을 기다리기 힘들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기업 채권 수준의 최우대금리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윙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합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윙크에 자가경영진단 프로그램과 매입·매출처 관리를 위한 거래처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1차 협력기업 349개사, 2차 협력기업 404개사 등 총 753개사가 가입했으며, 앞으로도 협력기업 간의 동반성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윙크 가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윙크 시스템 도입 후 개선 현황



EMPLOYEE

직원

CONTENTS

80 안전

- 안전재해 ZERO화
- MEGA-Y 과제 추진
- 안전활동
 - 안전교육훈련
 - 안전성적
 - 불안전한 행동 극복
 -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
 - PSRS 안전진단 컨설팅
 - 스마트폰 안전보건 앱

83 보건

- 직원건강 관리체계
- 건강증진운동
- 산업위생관리
-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보건교육
- 건강증진센터 이용 포스코 패밀리 확대
-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상담
- 의료봉사활동

85 2014년 안전보건 추진전략

86 행복한 일터 만들기

- 행복지수
- 계층별 케어 활동
- 직원과의 신뢰와 소통
- 여성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 보상과 복리후생

89 글로벌 인재 육성

- 포스코 채용 시스템
- 2013년 채용 활동
- 경력단절 기혼 여성의 일자리 창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 인재육성체계

93 KEY ISSUES

- 10: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
- 11: 힐링코칭 프로그램

포스코는 인간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일과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었으며,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직원의 행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안전



포스코는 인간존중의 철학에 입각해 안전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0순위'의 가치로 생각하고, 포스코파밀리 차원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안전경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안전이 모든 직원의 소중한 생명은 물론 가정의 행복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국내외 사업장에서 언제나 안전 원칙과 행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추진전략

글로벌안전보건그룹은 일터가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포스코파밀리 구현을 목표로 안전(교육, 진단&컨설팅, 설비, 시스템), 보건, 재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 중 교육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제거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일반직원 대상 10대 위험요인, 직책보임자 대상 안전리더십 외에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PSM, 안전심리(BBS 교육), 재난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비는 위험이 차단된 안전한 설비 구축을 목표로 ILS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패밀리사 ILS 인증을 확대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IT Solution 개발과 PSRS 활동을 통해 촉착된 노하우를 자산화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진단&컨설팅은 포스코파밀리 맞춤형 안전진단 및 변화관리 지원으로 글로벌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단 툴 업그레이드와 진단요원 육성, PSRS 변화관리 프로그램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간존중 사상 기반의 '건강한 포스코 패밀리' 실현을 위해 직업병의 선행적 예방 활동과 보건경영체계 준수 모니터링 및 Fatal Hazard 개선을 위해 보건 건강위험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분야는 재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체계 정립 및 예방 활동을 목표로 전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종합진단 실시와 재철소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재해 Zero화 Mega-Y 과제 추진

회사별, 지역별로 추진하던 안전보건 활동을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하고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까지 포스코 글로벌 안전보건그룹의 주도하에 안전재해로 Mega-Y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안전재해 제로 Mega-Y는 포항과 광양제철소는 물론이고 계열사, 외주파트너사, 해외법인 등을 포함한 모든 포스코파밀리가 함께한 활동이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3년간 Mega-Y 활동을 통해 구축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바탕으로 안전, 보건, 재난 10개 분야에 대해 총 24개 과제를 도출해 일터가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포스코파밀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Mega-Y 과제 추진 실적

2011 (1차년도)	2012 (2차년도)	2013 (3차년도)
안전재해 ZERO 기반 조성	안전체계 확산	안전,보건,재난 체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기준 재개정 •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 건립(2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밀리 임직원, 일반시민·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 정지 중, 기동 중 ILS 구축확대 • PSRS 안전진단/컨설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 중, 기동 중 ILS 정착 • 글로벌 안전보건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보건, 재난매뉴얼제정 • 재난 발생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28개 과제	35개 과제	13개 과제

안전활동

안전교육훈련 포스코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입문, 리더십, 전문가과정 등 계층별 36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매트릭스를 정립해 모든 직원이 안전을 위한 필수 역량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계층 간 의사소통 활성화와 변화관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를 건립해 교육장과 전시관, 4D 영상관, 체험실습실을 완비함으로써 포스코파밀리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누적
정규과정	11,833	26,205	22,746	60,784
비정규과정	-	1,357	10,377	11,734
특별과정	6,366	7,528	17,807	32,701
직책보임자	574	1,774	1,880	4,228
건설업 기초 안전교육	-	3,409	3,885	7,294
방문	6,823	32,651	27,906	67,380
종합	25,596	73,924	84,601	184,121

안전교육 과정



설비안전 엔지니어링 교육 : 설비안전체계 구축 설비투자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설비 설계와 시공을 진행해 사람의 실수 또는 설비 고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시 안전시설물이 누락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설치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설계기준을 표준화했으며, 이러한 개선 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교육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적(2007~2013년)

재해 건수							() : 사망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11(0)	6(1)	13(1)	13(1)	12(0)	3(1)	10(1)
외주사	7(1)	5(3)	3(0)	1(1)	6(0)	4(1)	4(1)
합계	18	11	16	14	18	7(2)	14(2)

휴업도수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0.32	0.18	0.39	0.38	0.33	0.08	0.26
외주사	0.17	0.12	0.07	0.03	0.15	0.10	0.10
합계	0.23	0.14	0.21	0.19	0.23	0.09	0.18

* 휴업도수율 = (휴업 재해 건수/연 근로시간) X 100만 시간

- 중대 재해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013 연근로시간 = 전체(752,261,650시간), 직영(38,131,414시간), 외주(37,120,236시간)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HSA)에서 정하고 있는 20만 근로시간을 기준 2013년 LTIFR(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 전체(0.03), 직영(0.05), 외주(0.0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삭

불안전한 행동 근절 >> **안전행동관찰** 안전행동관찰(SAO : Safety Acts Observation)은 직책보임자가 현장에서 작업자와의 대화로 안전한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다. 이를 통해 현장의 개선점이나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현장의 불안전한 행동을 개선해주는 안전제도입니다.

안전행동관찰 단계

6단계 대화기법



자율상호주의 자율상호주의는 직책이 없는 일반 직원들이 동료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지적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활동입니다. 지적을 받은 동료는 불안전한 행동을 개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료사랑카드 포스코는 작업 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고, 변경하거나 어길 수 없는 10대 안전철칙을 정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해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10대 안전철칙이나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직책보임자가 동료사랑카드(SIR)를 발급하고, 안전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칭찬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자가 10대 안전철칙을 위반해 동료사랑카드를 1년 이내에 2, 3회 받았을 경우, 부서자의 경고 혹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포스코 직원 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주 직원들이 10대 안전철칙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0대 안전철칙

1. 안전보호구 착용(보안경 등)	6. 작업전 TBM 작업 중 지적 확인
2. 계단통행 시 핸드레일 사용	7. 고소작업 안전벨트 착용
3. 차량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8. 가동설비 임의 접근 금지
4. 건널목 일단정지 및 제한속도 준수	9. 전기작업 전 전원 차단 및 검전
5. 안전장치 임의해체 금지	10.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검지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 재해 현황 분석 결과, 작업 현장에 에너지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포스코파밀리는 안전재해 Zero화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 현장의 위험점(Hazard Point) 제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포스코파밀리는 설비의 에너지원을 사전에 차단 격리, 잠금을 통해 재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정지 중 설비 ILS(Isolation Locking System)’, 조업 중 설비 출입으로 인한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가동 중 설비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 중 설비 ILS는 현장의 재해 원인이 되는 에너지원을 사전에 차단 격리(Isolation)하고 잠금(Locking)하는 것입니다. 설비 정비 · 수리 작업 시 설비가 가동되면 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설비 가동을 막고, 다른 작업자가 인지를 못해 설비를 가동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애초에 에너지원을 차단합니다. 포스코는 설비 위험 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합니다.

가동 중 설비 출입관리 시스템은 가동 설비 출입 시 출입을 통제 ·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동 중인 설비에 임의로 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막도록 가동 중인 설비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위험요소별 Level 1, 2, 3으로 구분해 위험요인이 매우 높은 곳은 Level 1로 설정,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열리면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돼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 보완 활동으로 협착, 물림, 끼임 등 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회전체를 방호 커버로 막고,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고위험 수작업 대상을 발굴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했습니다.

가동 중 설비 출입 시스템

(단위: 건)



PSRS 안전진단 컨설팅 POSCO 안전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 별 안전관리 수준인 안전리더십, 조직, 설비안전, 실행 부문 이행점검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우수한 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안과 체계적인 변화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진단 툴인 PS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SRS 절차는 진단 계획수립 및 팀 구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단 전에 안전활동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검토한 다음 12개

Element별로 설문, 인터뷰, 현장진단 등을 실시하고 분석해 Rating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Rating 결과를 Bradley Curve에 대입해 현 안전 수준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재진단해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그동안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등 포스코파밀리로 제공 대상을 한정해온 안전보건경영체계 진단 및 컨설팅 시스템인 PSRS를 포함과 광양 인근 지역의 기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PSRS 진단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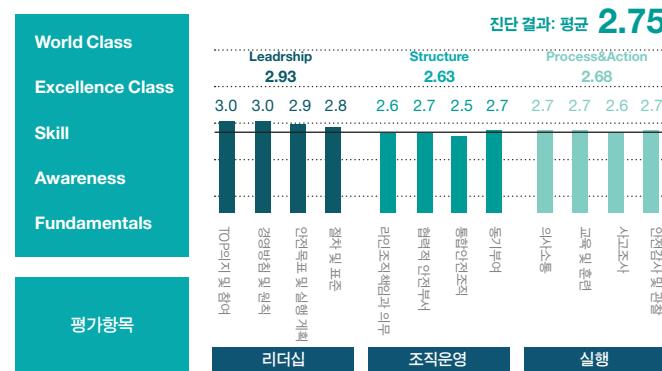


PSRS 지수



* POSCO(14개 부서) → (포항) 제강부 등 6개부, (광양) 하이밀부 등 8개부
외주사(18개 업체) → (포항) 금원 등 5개사, (광양) 광양기업 등 13개사
계열사(3개 업체) → 포스코에너지, 포스코AST, 포스하이메탈
기타 → 안전허브 및 동반성장 중소기업 안전컨설팅 : 총 26개사

PSRS 지수



스마트폰 안전보건 앱 스마트폰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위험(Hazard) 정보를 공유하는 ‘Smart and Fun Safety’를 구현해 안전재해 Zero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건



직원건강관리체계

직원들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하고 누적 관리하는 건강관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 자료에 근거해 산업의학 전문의와 함께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식 식이 습관과 운동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처방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은 건강정보 교육과 주기적인 검사를 제공받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실과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합니다. 건강 이상이 발견된 직원을 위해서는 질병 악화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추적·치료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 외에도 현대인의 최대 사망 원인인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자체 암표지자 검사(4종), 사외위탁 암 검진(12종) 제도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종합검진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형 관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체형 분석기, 디스크 감압치료기, 디스크 재활치료기 등의 시설을 갖춘 물리치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운동

포스코는 직원의 건강이 행복한 일터의 원천이자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금연, 건전 음주, 비만저감, 저염식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래로 전 직원 금연을 통해 금연 제철소 건설을 선포했으며, 이를 계기로 포스코파밀리 전체가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원사랑, 가족사랑의 금연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에 포스코파밀리 임직원은 100%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통해 직원 건강과 가족 행복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출범한 6대 노경협의회의 첫 캠페인으로 ‘술잔 안돌리기, 음주 강요 안하기, 123실천¹’ 운동을 벌였습니다. 회식 문화

도 단순한 음주 위주에서 벗어나 맛집 탐방, 체육·문화 행사 관람 등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생활 8주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 걷기 캠페인, 건강식단 개발, 자전거타기 운동 등 다양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운동실천의 생활화와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MI² 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 임직원 모두가 비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하루 소금 섭취량이 많아 고혈압,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식당 음식의 염분 함유량을 줄이고 저염식습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¹ 123실천 : 1주일에 2회, 3잔/회 미만 음주

² BMI : 비만 지표로 통용되는 체질량 지수

산업위생관리

최적의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작업자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 모두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구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 제조사와 협의해 편의와 성능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과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등의 보건표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기준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제도(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작업환경 측정기관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기관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환경 자체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2013년에 포스코파밀리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통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80여 개의 포스코그룹 계열사, 외주파트너사의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검진 결과를 D/B화해 작업환경 리스크 정보, 직업병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제철소를 시작으로 해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 현지 특성에 맞는 포스코파밀리의 보건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교육

직원의 보건의식 향상을 위해 ‘산업보건’을 주제로 한 e-러닝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는 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 건강진단, 작업환경 관리·개선, 건강장애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뿐만 아니라 계열사 직원 등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교육(e-러닝) 이수 실적

(단위: 명)

2011	2012	2013
1,599(8차)	959(8차)	2,121(상시 수강 가능)

건강증진센터 이용 포스코패밀리 확대

포스코는 포스코 직원에게만 허용하던 사내 의료실 건강증진센터의 이용 권한을 포스코패밀리로 확대(포항 2011년 9월, 광양 2012년 1월)하고, 인력 충원과 시설 증축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이용 권한 확대로 두 제철소에 출입하는 82개의 포스코패밀리 직원이 비용 부담 없이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용 현황(2013년)

(단위: 건)

구분	직영	포스코패밀리
포항	42,185	4,798
광양	27,804	3,308

* 광양제철소 건강증진센터 포스코패밀리 확대 운영 실시 : 2012년 66개사, 2013년 82개사 확대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상담

직원들의 행복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심리상담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직원 가족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담기법의 결과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정밀상담, 약물투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외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심리상담사 주관하에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심리상담 실적

구분	2011	2012	2013
포항	2,524명(715건)	1,883명(992건)	1,337명(809건)
광양	개인상담 391건	개인상담 1,331건	개인상담 905건
	집단교육	가족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368명(13회)	241명(26회)	377명(42회)
	(6월부터 시행)	집단교육 979명	집단교육 387명
		(23회)	(13회)

의료봉사활동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자매마을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건강상담과 진료를 통해 개인이 필요한 약품뿐만 아니라 마을의 응급약품까지 긴급해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방문한 마을 주변의 정화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보건 분야 주요 성과

GWANGYANG 광양

1. Health-up 프로그램 진행

- 건강케어 대상자, 건강주의자 선정 및 지속적 케어관리 실시
건강케어 대상자 : 8개 지표 중 1개 이상 해당자
공복혈당(150↑), 혈압(150/95↑), 심전도, GTP(80↑), r-GTP(150↑), AFP(20↑), LDL-CHO(190↑), TG(400↑)
건강주의자 : 3개 지표 중 1개 이상 해당자
체지방률(남자 26↑, 여자 30↑), r-GTP(78↑), LDL-CHO(160↑)
- 건강이상자 추적관리 집중 실시(건강이상자 지속적 피드백)
선정된 건강이상 대상자 추적 건강검진 실시
건강이상자 지속적 피드백(독려 메일 발송, 개인서신, 가족서신 등)
비만탈출 프로그램 실시
- 비만탈출 대상자 분기별 4회 모집, 어울림센터와 연계 운영 실시

2. Health 樂 콘서트 진행

3. 교대근무자 특수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운영 대책 마련

2014년 보건 분야 주요 계획

POHANG 포항

1. 운동활성화를 통한 Health-up 추진

- Health Surveillance 체계 구축
- 계층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 운영(정상·비만·고도비만)
- Health-up 우수부서 공모 · 포상

2. 고위험 건강이상자 밀착관리

- 연령대별 사회 정밀검진 표준 주기표 설정 · 운영
- 4조 2교대 근무 직원 대상 건강영향 조사

3. 교대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법규 강화)

GWANGYANG 광양

1. 고지혈증 유소견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실시

- 고지혈증 대상자 선별 및 케어 프로그램
- 고지혈증 게시물 배포 및 관련 교육 실시

2. 금화(禁火) 관련 상담 프로그램 시행

- 현장방문교육을 통한 '건강한 마음 만들기' 운동 전개
- 금화 관련 게시물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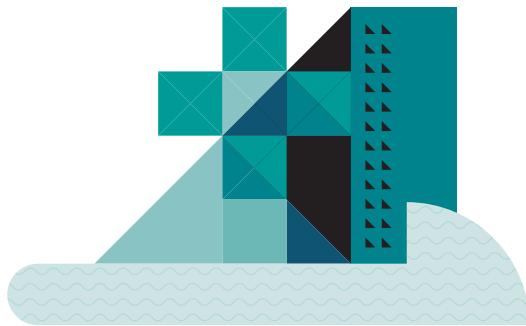
3. 의료 연계 재활운동 프로그램 시행

- 근골격계 질환자 및 수술자 재활운동을 통한 치유 및 운동 세팅활동 시행
- 올바른 이완운동 보급 및 근골격계 질환 방지 활동 시행

4. 물리치료 예약 EP 연계 전산 개발

2013년 작업환경 및 특수검진 기관평가 완료
(A등급: 우수)

2014년 안전보건 추진전략



선진 정부와 주요 철강사들의 안전·보건·재난 분야 트렌드가 국민과 직원의 기본적인 웰빙 및 중대사고 예방으로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포스코파밀리는 Fact Base, Hi-Tech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해 전문역량을 갖춘 직원 육성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작업장 구축 그리고 안전보건재난 체계의 질적인 향상을 2014년도의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는 안전한 행동이 체질화된 직원 육성과 Hazard Free 설비를 구축하고, 보건 분야는 인간존중에 기반한 선행적 보건 활동으로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재난 분야는 재난사고 예방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4년 추진전략 및 체계

안전	보건	재난
안전한 행동이 체질화된 직원 육성과 Hazard Free 설비구축	인간존중에 기반한 선행적 보건 활동으로 직원 삶의 질 향상	전사 차원의 재난사고 예방 프로세스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선수범의 리더와 안전하게 업무하는 직원 육성으로 안전문화 정착 • Fatal Hazard의 전원 참여 발굴 및 근원적 개선으로 중대 재해 Zero화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기반의 선순환적 안전체계 구축 • Hi-Tech 기술을 활용한 Fact Base 인프라 구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Care 대상자 Individual Care 및 직업 병 선행적 예방활동 실시 • 제철소 (국, 내외) 보건 경영 체계 모니터링 및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비만 탈출) 실시 • 작업환경(보건) Audit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의 재난관리 역량 및 비상 대응 능력 강화 • Hazard(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가 Delete/ Control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 전사 재난 관리 시스템 (지침, 표준류) 체계화 및 과학적 재난예방 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 일터가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포스코파밀리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것입니다.

VISION · KPI



일터(Workplace)가 안전하고 삶(Life)이 행복한 포스코파밀리 구현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임직원은 포스코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포스코는 인적 자원 개발체계, 합당한 보상체계, 복리후생 제도 등을 마련해 임직원이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포스코패밀리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포스코는 행복경영의 추진 방향을 포스코 고유의 직원 의식조사인 '행복지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모색합니다. 2011년부터 포스코 해외법인과 포스코그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행복지수는 조직문화와 직원 인식을 조사하는 포스코 고유의 지표로서, 매년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통해 그다음 해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2013년에는 세대 다양성을 고려한 계층별 케어 활동,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직원 몰입도를 제고하는 행복일터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4년에는 도전·창의적 문화 조성 활동과 계층별 니즈를 세부 분석 후 지원하는 맞춤형 직원 케어 활동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행복지수 조사 결과

(단위: 점, 100점 만점 기준)



계층별 케어 활동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행복일터 구현을 위해 세대별 다양성을 고려한 계층별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큰 저근속 사원에게는 '해피워크 소통 워크숍', 일터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가중되는 허리계층 직원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레카 주말가족 프로그램', 그리고 성장 지원이 필요한 여직원에게는 분기별로 '여직원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직원과의 신뢰와 소통

직원 간의 열린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로는 노경협의회가 있으며, 영보드, 주니어보드와 같은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인 'POSCO&'를 마련했으며, 2012년부터 스마트 리더십을 도입해 리더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 노경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1997년 11월 17일 출범한 직원대표기구로 근로자위원과 경영자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임금, 근무제도,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 전사적 관심사항을 협의하며, 회사 운영회의 참석, 경영진과 근로자위원 간 정기·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분기마다 기초위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 정책 관련 설명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산하에 제철소협의회와 부문, 부-실, 과-공장 협의회가 있으며, 과-공장협의회는 노경협의회의 최소 조직단위로 383명의 기초위원이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산하 각급 협의회에서 건의한 안건을 바탕으로 매 분기 말에 정기회의회를 실시해 직원과 회사의 공동 발전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직원대의기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복수년 임금협의(2012~2013년), 1%기부 사랑나눔 운동 등을 추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회사와 직원 간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경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직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2014년에 활동하고 있는 6대 위원의 경우, 2012년 10월에 선출됐으며 2015년 11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영보드 영보드는 젊은 직원들이 회사 전략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경영층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출자사 직원들까지 확대했으며, 2009년부터는 해외법인을 포함한 포스코패밀리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2013년 영보드는 향후 포스코패밀리의 전략에 대한 영보드 차원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불확실성의 시대 지속가능 포스코를 위한 제언', '수익력 극대화를 위한 영보드의 제언', '그룹경영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속성장 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주니어보드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주니어보드는 영보드와 달리 부문별로 운영하는 의견 개진 전달 기구입니다. 부문 차원에서 조직 간 벽을 넘어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니어보드의 역할입니다. 소통 활동은 담당 부문장과 젊은 직원들 간의 반기당 1회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며,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9개 부문 주니어보드에서 자율적으로 테마를 정해 토론 방식이 아닌 문화행사, 간담회 등의 형태로 부문장과 소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선진화를 위한 부서별 피드백 회의 · 지시 · 보고 문화 개선은 일하는 방식의 핵심 요소로 포스코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 '스마트 리더십'* 추진에 이어 2013년부터 보다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일하는 방식 피드백'을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각 부서의 업무 집중시간과 회의 · 지시 · 보고 · 페이퍼리스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해 분기별 추이를 보여주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사의 회의 · 지시 · 보고 문화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사 업무 몰입도도 2013년 4분기 기준 71%로 연초에 비해 26% 개선됐습니다.

* 스마트 리더십 : 리더들의 주요 역할인 지시와 보고, 소통, 업무 수행에 리더의 역할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스마트 리더 실천 약속'에 대한 서명을 받고, 스마트 리더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했습니다.

SNS 포스코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사내외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기업 스토리와 이벤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회사를 더욱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외 블로그 'Hello 포스코'는 오픈 1년 4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 수 200만 명을 기록했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오픈 1년 2개월 만에 12만 명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월 글로벌 블로그와 링크드인(LinkedIn)을 개설해 포스코의 최신 기업 소식과 제품, 채용 정보 등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내 블로그 '포스코&'은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또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합·정리해 임직원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외 블로그 'Hello 포스코'는 일반 대중에게 포스코 기업 소식과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철 이야기, 채용 소식 등을 전달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OSCO, PEOPLE, TOGETHER, CAREER CULTURE, SOCIAL 메뉴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기존 블로그와 유튜브의 콘텐츠를 포함해 다양한 기업 이야기를 일반 대중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화해 많은 사람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소셜미디어는 대중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사회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낸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3 대한민국 SNS대상' 기업 부문 종합대상과 '2013 한국PR대상' 디지털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 대한민국 SNS 대상 기업부문 종합대상



사내 블로그 POSCO &



포스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와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여성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포스코는 여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다양성을 키웁니다. 특히 보육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각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인력의 육성에 도움쓰고 있습니다.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 현황

보육문제 해결

	어린이집 서울, 광양, 포항에 각 120명, 180명, 2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해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 고용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2013년에는 직원들의 보육시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 어린이집을 확장해 보육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女幼) 공간 수유실 기능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인 여유 공간을 두어 여성 인력, 특히 임산부가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법률로 정한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여성 멘토링데이 여직원과 롤모델의 교류를 통해 여성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항, 광양, 서울 각 지역에서 멘토링데이를 진행합니다.
	W Leadership 프로그램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과장급 여직원들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사내와 멘토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간의 소통 채널 사내 온라인 학습동아리 'Women Leadership'을 운영해 여직원 간 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여성인력참여율 82%)

여성인력 성장지원

택형 복리후생, 경조금 지급, 장애인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사내외 휴양 시설과 직원 건강검진, 작업 환경 측정 등 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양시설과 건강시설은 지속적인 신설(2011년 포항·광양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건립, 2012년 고흥수련관 개관 등), 증축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선용 여건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 2012년에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제도를 신설했고, 2013년에는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과 단체보험 도입을 시행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와 함께 전사 차원에서 건전음주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해 직원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단위: 10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출연 금액	62.1	59.1	57.6
금액 누계	757	816	874

인건비 지급 내역

(단위: 10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지불성급여 ¹	1,277	1,367	1,401
퇴직충당금 ²	137	113	135
법정복리비 ³	100	102	90

¹ 지불성급여: 월급여, 상여금, 현금성복리비(증식비, 개인연금보조금, 경영성과금, 격려금) 합계² 퇴직충당금: 일반직원에 대한 당해 연도 퇴직충당금(임원 제외)³ 법정복리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체권보장부담금 합계

연금 지원 금액

(단위: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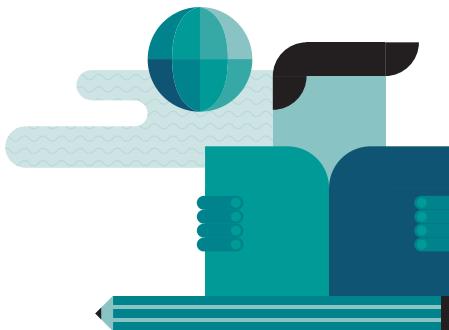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국민연금(회사 부담금)	33.3	35.1	36.5
개인연금 보조금	9.1	9.1	9.7
개인연금 수혜 인원(명)	13,970	14,317	14,736

보상과 복리후생

포스코 임금체계는 직원 개인별 근속과 성과, 회사의 경영 성과 등을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매년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이 자연 상승하도록 만들어 직원들의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차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금제도를 통해 원가절감 실적,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경영성과를 제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성과금 수준을 결정하는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사 간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존의 고정성 상여금 연 400%를 변동성 경영성과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집단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직원들의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 자녀 학자금, 선

선진 임금협의 패러다임 '복수년 임금협의' 한 번의 노사협의를 통해 2년 이상의 임금인상분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년 임금협약'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임금협의 방식인 단년 임금협약 시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노사협의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노사공동 대응력 감소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진적인 임금협의 방식입니다. 포스코는 2007년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복수년 임금협의를 도입해 2007년, 2010년, 2012년까지 모두 세 차례의 복수년 임금협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포스코 이외에 총 25개 계열사에서도 복수년으로 임금을 조정해 복수년 임금협의 방식은 포스코패밀리 고유의 노사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년 임금협의 방식을 통해 매년 반복적인 노사협의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직원과 회사 모두가 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포스코 채용 시스템

포스코의 채용 시스템은 입사 지원 시 학력, 연령, 국적 제한을 폐지한 '열린 채용'을 지향합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구조적 선발 기법이라는 선진화된 채용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선발 기법은 평가 센터(Assessment Center)라는 역량 평가 방식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면접 기법을 활용해 지원자의 분석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포스코는 지원자가 갖춘 현재 능력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채용 1년 전에 포스코의 가치와 인재상, 채용 시 우대사항 등을 사전 공고해 포스코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채용 활동

2013년 포스코는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성공신화를 이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포스코 스칼라십을 운영하며 공개채용, 경력직과 해외 채용을 추진했으며, 특히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군전역장교 채용'과 '챌린지 인턴십'을 신설, 도입했습니다. 군전역장교 채용으로 애국심은 물론 도전정신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춘 장교 출신의 인재를 선발했으며, 챌린지 인턴십을 통해 취업을 위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취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력, 출신교, 학점, 사진 기재란을 없앤 탈스펙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채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창의(발명특허 보유자), 도전정신(벤처창업 경험자), 글로벌(다국어 구사자), 상생(저소득층) 등의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기혼 여성의 일자리 창출

포스코는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기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생산직 주부사원을 채용한 이후, 매년 주부 직업훈련생을 모집해 기혼 여성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직원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여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포스코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기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2014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는 판매 서비스, 홍보 안내, 행정 지원, 시설 관리 등의 직군에도 포함하며,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1,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육아, 퇴직 준비, 질병 등의 이유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경력단절의 불이익 없이 시간선택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 통계

	구분	2011	2012	2013
고용	전체 직원 수(명)	17,553	17,623	17,823
	포항	6,638	6,521	6,556
	광양	6,254	6,217	6,232
	분사/기술연구원/사무소/기타	4,661	4,885	5,044
고용 유형별 직원 수(명)				
	정규직	16,824	16,675	17,005
	계약직 ¹	729	748	827
성별 직원 수(명)				
	남	16,928	16,921	17,045
	여	625	702	778
장애인 고용 수(명)				
	(비율 %)	2.3	2.5	2.5
	(포스코)	253	254	255
	(포스코 휴먼스 워드플러스 부문)	192	220	230
	평균 근속 연수(년)	18.5	18.0	18.5
채용	채용 수(명)	857	818	873
이직/퇴직	이직률(%)	2.94	5.85	2.91
	퇴직(명)	496	1,029	520
	정년퇴직(명)	1	654	-
여성인력	비율(%)	3.6	3.98	4.4
	매니저(G10) ² 이상 여직원 비율(%)	17	21	21
	매니저(G10) 이상 여직원 수(명)	105	146	166
출산/육아	출산휴가 사용자 수(명)	15	56	55
	출산휴가 1인당 평균 사용일 수(일/인)	75.4	71.3	61.7
	출산휴가 후 복직률(%)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자 수(명)	22	61	77
	육아휴직 1인당 평균 사용일 수(월/인)	2.6	4.9	6.2
	육아휴직 후 복직률(%)	100	100	10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명)	244	532	518

¹ 계약직 직원은 퇴직 후 재채용 인력과 변호사, 간호사 등의 전문계약직 인력을 포함한 인원 수

² G10은 과장을 의미(2011년부터 직급 체계 변경)

인재육성체계

포스코는 회사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가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평생학습체계를 통해 필요 한 핵심 역량을 개발해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직무 별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사전 대비하고 미래 생애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사업으로 외주파트 너사, 공급사 등 포스코파밀리 직원들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상 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인재육성 중점추진 분야 및 2014년 중점추진 방향 2013년 포스코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e-러닝 효과성 증대, 주인의식 공감 이해도 증대, 기술교육 성과지수 개선, 중소기업 상생인력 양성지수 강화를 중점추진 방향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4년 포스코의 인재육성 정책은 당면한 경영여건 및 신경영철학의 올바른 이해로 위기극복 실천 마인드 제고, 실행과 혁신에 강한 체질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운영,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 ‘포스코 기술대학’을 통한 창조/융합형 현장 전문인력 육성,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5개 중점 분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역량 개발 포스코 신입사원교육은 핵심 가치 공유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e-러닝을 통해 그리고 입사 후부터 3년 차까지는 연차별 교육로 드맵에 따라 직무교육, 직무훈련(OJT), 과제수행 등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입사 3년 내에 전문가 수준의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 배치 전에는 포스코파밀리 입문교육, 포스코 자체 도입교육 그리고 5주간 기초기술, 현장순환 교육을 받으며 포스코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며, 배치 후에도 6개월간 OJT 수행, 6시 그마 GB 과제수행, 연구논문 작성 등을 하게 됩니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포스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시 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갖춘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직책자 필수 교육 로드맵’을 구축해 사전에 충분한 학습을 거쳐 리더십이 검증된 인재가 직책에 보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통섭적 지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 시각의 차세대 경영리더를 육성하고자 새롭게 직책을 부여받은 승진자 대상의 신임자교육과 상위 직책 수행 전에 선별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과정 등 두 가지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양성과정 학습자에게는 사업발굴형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해결형 액션러닝으로 해결하게 해 경영자 관점에서 제시한 도전 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현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을 위해 임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과 리더계층 영어 합숙과정을 운영합니다. 부장·팀리더급 우수 인재 대상의 Off-Job 글로벌리더교육은 핵심 MBA와 소양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 나갈 주재원들이 상위직 역할 수행이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 주재원 파견 전·파견 중 교육을 운영하며, 파견 직원의 배우자 동반참석 교육을 도입해 주재원 가족의 원활한 현지 조기 적응도 돋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법인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도 비전, 핵심 가치, 혁신활동 등 포스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해외법인 모범사원 교육은 법인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포스코 정신 교육과 제철소 견학을 통해 포스코파밀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직원의 사내강사 육성, 현지 교육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스코문화혁신가(POSCO Culture Innovator) 과정과 현지 인력풀에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부장 양성과정(G-JEDP : Global Junior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 포스코 및 포스코파밀리 직원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향상을 위해 트리즈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즈 대학은 사내대학으로서 엔지니어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트리즈 레벨 1부터 3까지의 단계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부문별 과제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트리즈 인스트럭터(TRIZ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전략 트리즈 과정을 운영해 기획, 전략 수립 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뢰와 소통 교육 강화 경영이슈와 경영철학을 신속히 전파하고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강연과 공연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집합 교육 프로그램인 펌(PIM : POSCO-In-Me) 콘서트를 2013년부터 운영했습니다. 포항과 광양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두 제철소 아트홀에서 개최했으며, 2013년 펌콘서트의 주제는 ‘주인의식’, 부제는 ‘내 안에 포스코가 피어나다’로 정해 주인의식을 생각해보도록 했습니다. 콘서트 프로그램은 동영상, 경영진 강연, 공연, 직원 우수사례 발표와 명사 강연으로 구성했으며, 경영진 강연은 CEO 외 부사장급 이상의 임원, 사외 명사로는 비전, 꿈, 실행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저명인사가 맡았으며 공연팀으로는 뮤지컬, 대중가수, 전문 국악인들이 출연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대공감을 이슈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과 컬처토크 방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해 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임직원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독점적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현장독점적 기술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과 광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술교육의 과정 분류, 과정명 등을 전사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과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전반에 대해 교육합니다. 고졸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사전에 양성하기 위해 2003년도까지 운영했던 직업 훈련교육 제도를 부활시켜 7주간 교양·인성, 현장 기초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또한 우수マイ스터고의 우수 인력을 학교 재학 중 우선 선발해 5주씩 여름·겨울 방학에 현장기술심화교육을 실시한 후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업훈련과 우수マイ스터고 채용 예정자 교육에 직무 훈련(OJT) 프로그램을 추가해 현장 신입사원의 조기 역량 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대출 신입사원은 입사 후, 문리통섭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업부서 배치 이전 18주간 철강기술의 기초가 되는 요소기술, 제철소 공정, 설비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대졸 신입채용의 다른 방식인 ‘포스코 스퀘어’ 채용 예정자는 대학교 재학 3, 4학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총 8주 동안 현장 기술지식과 조직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향후 신입사원교육 기간을 단축해 현업에 조기 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전문지식 위주로 교육하고, 저근속사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현장 기술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현장직원 직무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운전직에서 정비직으로 직무 순환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순환자 정비기초 교육을 제공해 설비 점검과 수리 기본지식을 익히도록 하고, 정비실무 과정을 통해서는 기존 정비 요원의 정비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비 6계통 교육, 부서 맞춤형 교육, 휴무일을 활용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 기술력 제고와 운전-정비 일체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계층은 현장 문제점 개선에 필요한 기계, 전기·계측 설비의 요소기술 교육, 철강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학이론 위주의 전문기술 교육을 신규로 개발해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엔지니어 교육코스 풀 확대, 실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을 통해 엔지니어 기술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2014년에는 포스코기술대학을 개교해 선취업-후진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과 새로운 철강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기술대학은 정부 인가 2년제 전문학사과정으로 철강융합과 1개 학과가 있으며, 포항과 광양 2개 캠퍼스에 각 30여 명의 운전·정비직 현장직원을 양성할 것입니다.

직원 생애설계 지원 직원의 미래 생애설계 지원을 위해 정년퇴직 예정직원에게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와 진로개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GLD(Green Life Design)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정년연장으로 정년 이후 삶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교육 대상자와 운영 프로세스, 지원체계를 보완해 운영 중입니다. Green Life 포털을 리프레시해 가입 대상은 50세 이상 직원과 기퇴직자까지 확대, 제2인생 설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학습 콘텐츠 제공, 개인별 노하우 공유, 네트워크 확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Green Life 예비강좌를 통해 50세 이상 직원들이 초기에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년퇴직 예정직원에게도 e-러닝, 집합교육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구성한 Green Life 교육을 제공해 정년 이후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설계 교육 실적

기간	인원(누적)	연평균 교육 인원	교육일수
2001.10~2013.12	2,684명	383명/년	8일

* 2013년 운영 기준 : 월급제 전 직원 대상 8일 기준

* 2011년은 미실시(정년 연장)

생애설계 교육 내용

구분	워크숍	카운슬링	e-러닝
내용	생애목표 설정(3일) 현장탐방 워크숍(3일) 부부동반교육(2일)	개인별 목표, 수립 컨설팅 창업·재취업 실행전략 수립	생애관리, 재취업, 창업, 재무관리(10과목)
기간	8일	상시	상시

자기주도형 학습체제 정착 포스코는 2000년부터 e-러닝을 도입해 자기주도형 학습체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 주관 e-러닝 최우수 기관에 6년 연속 선정될 만큼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IT를 기반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u-러닝을 시행하고 3,700여 개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Anytime, Anywhere’ 교육을 구현했습니다. 나아가 2012년에는 게임을 활용한 G-러닝 과정을 개발해 Fun 요소를 고려한 액션형 모바일 게임과 롤플레잉(Role Playing) PC게임을 통해 기업윤리, 정보보호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습자 스스로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며, 업무와 학습이 통합돼 상시 학습이 이루어지는 스마트러닝 빅픽처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내외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활용해 모듈 조합 방식으로 개인과 조직에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기기 제한 없이 업무시스템과 통합해 업무와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학습 중 발생하는 정형·비정형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습과 평가에 활용하는 스마트러닝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급 인력을 차세대 리더로 조기 육성하기 위해 e-러닝과 집합교육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포스코 MBA’를 개설했습니다. 미래 리더로서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과 경영 실무 능력 배양을 목표로 경영학, 리더십, 전략고전 등으로 구성한 총 3학기 1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 가속화를 위한 혁신교육 내실화 포스코는 1999년 PI(Process Innovation)를 시작으로 2005년 6시그마 도입을 통한 혁신 인재 양성과 과제 수행, 2006년 포스코형 6시그마 개발·운영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혁신 리더 양성을 목표로 MBB, BB, GB 양성교육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BI(Breakthrough Innovation), CI(Continuous Improvement), PO(Process Optimization) 활동과 더불어 혁신 역량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 중심의 6시그마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 몰입과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실습 비중을 기존 3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높였을 뿐 아니라 사전에 e-러닝 학습, 실제 현업과제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설비를 스스로 보전하는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Operator)' 양성을 위해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QSS 개선리더와 현장 개선 전문컨설팅 인력인 QSS 마스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QSS 도입 이후의 경영여건 변화와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고려해 QSS에 대한 이해도와 Off-Job 과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QSS 개선 리더 교재 개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QSS 마스터 교재 개편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의식교육의 장점과 포스코 고유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변화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영을 위한 HRD컨소시엄 운영 포스코는 2004년 11월 노동부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HRD)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승인받았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1994년부터 외주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포스코파밀리 차원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외주파트너사에 다양한 교육을 지원했으나,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HRD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HRD컨소시엄 교육은 양성교육 과정과 향상교육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양성교육 과정은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천장 크레인 운전, 산업설비 정비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상교육 과정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국가기술자격, 기계, 전기, IT, 6시그마, QSS,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운영해 이들의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RD컨소시엄 사업 실적을 보면 초창기이던 2005년에는 13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총 4,241명의 교육을 실시했으나 2013년에는 428개사, 7만 1,490명에게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 참가가 어려운 회원사 여건을 고려해 2013년에 39개의 e-러닝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컨설

팅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42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0개 집합교육 과정과 40개 e-러닝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HRD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은 질 높은 교육의 무료 수강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성과평가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 직업훈련기관 중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고, 2007년도에는 대통령표창까지 수상했습니다.

HRD컨소시엄 교육지원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회원사 수(개)	377	418	472	428
교육 인원(명)	32,098	42,436	72,766	71,490

* HRD컨소시엄 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남부 한 고용보험료를 제원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지표 포스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육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지표로는 교육인원, 인당 교육시간, 인당 교육비용을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자 만족도, 기술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도(성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 과정 등은 다면평가를 통해 현업적용도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지표를 보면 인당 교육시간이 감소했는데 이는 종전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에서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로 변화된 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합교육을 줄이고 e-러닝을 확대해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시간은 감소한 반면 학습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지표

구분	2011	2012	2013	비고
교육 인원(명)	530,086	432,859	523,184	
인당 교육시간(시간)	252	234	205	집합교육(미래창조 아카데미, 현업 주관, 평생학습, 사이 위탁), e-러닝 기준
총교육비용(억원)	253	178	142	
인당 교육비용(만원)	145	101	80	
학습자 만족도(5점 만점)	4.47	4.48	4.62	

직책별 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구분	부실장	팀리더	파트장	주임	일반
2012	178	198	206	238	222
2013	129	200	188	200	211

KEY ISSUE _ 10

전 세계 포스코페밀리가 함께 사용하는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

지금까지 포스코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안전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페밀리 회사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서로 상이하고 개별적으로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과다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국내외 포스코페밀리가 단일한 안전보건 경영 체계와 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22일부터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은 Multi Language, Multi Time Zone을 구현해 글로벌 단일 시스템 환경(GSI)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서버 DRM을 구축해 포스코페밀리 회사 간 안전·보건 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관련 법 제·개정 사항에도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을 통해 해외 생산기지를 포함한 포스코페밀리의 안전을 포스코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구축해 포스코페밀리의 안전재해 Zero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 특징

GSI 환경

Multi Language, Multi Time Zone 구현

보안체계

자체적인 안전보건 Server DRM 구축

법규 대응

산안법 등의 관련 법규 제개정시 발빠른 대응

안전보건경영

포스코페밀리가 통합된 하나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로



KEY ISSUE _ 11

진정한 힐링과 유익한 코칭을 제공하는 힐링코칭 프로그램

힐링코칭은 직원의 힐링케어와 조직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돋기 위해 2013년에 신설한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 5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7차수의 그룹코칭, 힐링 특강, 1:1 코칭 등을 진행해 4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힐링, 명상, 행복, 균형, 시간관리, 독서법, 글쓰기, 영화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특히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진행한 그룹코칭 교육과정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에 한국코치협회가 선정한 대기업 부문 '코칭문화 혁신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SOCIETY

사회

CONTENTS

95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2013

95 사회공헌체계

사회공헌 비전
전략방향 · 중점영역

96 지역사회

국내 활동
희망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 독거노인 간병인 지원사업
나눔의 토요일
자매마을
사외 강사료 기탁

해외 활동

포스코형 새마을운동
포스코빌리지 조성
긴급 구호

98 글로벌 인재

포스코청암재단 · 교육재단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99 지구환경

클린오션 봉사단

100 다문화

다문화 합동결혼식
다문화카페 '오아시아' 지원
다누리 쿨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

101 문화유산

문화재 기꿈이 봉시단
포스코센터 음악회

101 KEY ISSUES

12: 포스코1%나눔재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1988년 자매마을 활동으로 시작한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은 2003년 '포스코봉사단'을 공식 창단하면서 더욱 발전해왔습니다. 봉사단 출범 10주년인 2013년에는 포스코 사회공헌의 전략방향과 중점영역을 수립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지역과 사회, 국가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2013



5대 영역 사회공헌 비용
(단위: 억 원)

1 지역사회	180
2 글로벌인재	270
3 지구환경	9
4 다문화	4
5 문화유산	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기탁금
(누계 959억 5,000만 원)

100 억 원

2013 사회적 이미지
(2012년: 3.73점)

3.71 점

- 대상: 만 20세~59세 이하의 일반인 남녀 1000여 명
- 지역: 5대 광역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및 27개 거점 도시(포항/ 광양)
- 샘플링 방법: 인구 비례에 의한 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3-Staged 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 조사 방법: 일대일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임직원 자원봉사
(2013년 총 누적 시간)

558,575 시간

인당 연평균 봉사 시간
31 시간

결연 자매마을 수
245 개

포스코1%나눔재단 설립

2013년 11월

기부 참여율
96%

2013년 모금액
45 억 원

(임직원 기부 24억 원 +
회사 매칭그랜트 21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수

1,442 명

직접 일자리
751 명

간접 일자리
691 명

* 직접 일자리: 포스코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력

* 간접 일자리: 포스코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 창출(금전적인 지원도 인력으로 환산해 계산)

for a better world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기업의 사명으로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략방향 · 중점영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5가지 중점영역을 설정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

1. Collaboration

정부 · 전문NGO · 언론기관 등과 협동 강화

2. Business Oriented

포스코패밀리사별 핵심 역량 및 사업의 특성과 연계성 강화

3. Big Difference

타 회사,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 명품 브랜드 프로그램화



포스코패밀리 봉사단 엠블럼



포스코패밀리 봉사단

포스코패밀리 봉사단의 엠블럼은 사회공헌 비전인 'For A Better World'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의 모습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서로 돋는 봉사의 즐거움은 '춤추는 봉사자'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희망은 '별'로 친근하게 표현했습니다. 녹색과 하늘색의 사람은 소중한 포스코패밀리 봉사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며 깨끗한 환경, 지구를 뜻하는 녹색의 원 위에서 즐겁게 어울려 행복한 이상향을 향해 디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포스코블루색은 포스코패밀리 봉사단의 단결력을, 오렌지색은 서로 돋는 따뜻한 마음을, 하늘색은 포스코패밀리 봉사단이 만들어가는 희망찬 내일을 각각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포스코에 지역사회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직원과 제철소의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와의 어려움을 보듬고,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포스코가 지켜온 오랜 전통이자 신념입니다.

국내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포스코는 사회공헌활동을 창업 초기부터 꾸준히 실시해왔습니다. 포항,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와 체육, 문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 창출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포스위드와 포스에코하우징을 합병, 새로 출범한 포스코휴먼스를 비롯해 포스플레이트, 송도에스이 등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사 1사회적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포스코파밀리 차원에서 사회

적기업 제품과 용역의 우선 구매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포항과 광양에서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간병인 지원사업을 펼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수(누계)

1,442

독거노인 간병인 지원사업

지원 현황

간병사 지원

기간 1년(1년 연장 가능)

방법 지역별 공개모집 및 면접심사

급여 주 10시간/ 일급 4만 원
(월 100만 원 수준),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수혜자 지원

선발 지자체 및 유관단체 추천, 심사

지원 간병사 1개조(2명) 1기 구당
주1회/ 4시간 간병 및
가사 서비스

* 3개월 단위(최대 2년간)

인원 현황

	1기	2기	3기	4기
포항	20	20	20	21
광양	15	15	15	16
합계	35	35	35	37

* 1기(2006.5~2008.4), 2기(2008.5~2010.4), 3기(2010.5~2012.4), 4기(2012.5~2014.4)

나눔의 토요일

포스코의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임직원의 다양한 봉사 참여 요구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회사 차원에서 연계해 '나눔의 토요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은 봉사 캠프, 봉사 나들이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며 모두가 즐거운 토요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회적기업

포스코휴먼스
posco humans
www.poscohumans.com

설립일 2013. 1. 4(포스위드, 포스에코하우징 합병)	설립일 2010. 1. 22	설립일 2010. 4. 29
사업 내용 사무지원, 세탁서비스업, IT 서비스업 및 친환경 스틀하우스 건축, 자재 제조	사업 내용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시편가공 및 제품창고 관리 작업 수행, 포스하이메탈 조업지원 외주작업	사업 내용 포스코건설 신사옥 및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청소, 주차관리
위드플러스 부문(구 포스위드) 인원 현황 총 369명/장애인 191명(51.8%)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2008. 4	인원 현황 총 184명/취약계층 97명(52.7%)	인원 현황 총 138명/취약계층 124명(89.9%)
스틸하우스 부문(구 포스에코하우징) 인원 현황 총 60명/취약계층 28명(46.7%) 사회적기업 인증 2010. 10	사회적기업 인증 2011.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2008. 4

포스플레이트
posplate
www.posplate.com

설립일 2010. 1. 22	설립일 2010. 4. 29
사업 내용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시편가공 및 제품창고 관리 작업 수행, 포스하이메탈 조업지원 외주작업	사업 내용 포스코건설 신사옥 및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청소, 주차관리
인원 현황 총 184명/취약계층 97명(52.7%)	인원 현황 총 138명/취약계층 124명(89.9%)

송도SE
Songdo SE
www.songdose.co.kr

설립일 2010. 4. 29	설립일 2010. 4. 29
사업 내용 포스코건설 신사옥 및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청소, 주차관리	사업 내용 포스코건설 신사옥 및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청소, 주차관리
인원 현황 총 138명/취약계층 124명(89.9%)	인원 현황 총 138명/취약계층 124명(89.9%)
사회적기업 인증 2010. 1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2008. 4

(단위: 명)



나눔의 토요일 참여 누적 인원
2006~2013년

579,324

자매마을

1988년 광양 하광마을을 시작으로 '1부서 1자매마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포항, 광양의 총 245개 마을과 학교, 단체를 위해 장학사업, 긴급 복구, 환경 정화, 농어촌 일손돕기 등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강사료 기탁

임직원이 외부에서 받은 사회 강사료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나눔, 포스코 사회 강사료 기탁이 어느덧 시행 7년을 넘었습니다. 기부한 강사료로 매년 교육·의료 지원, 불우이웃 돕기, 저개발국 백신 지원 등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기부 현황

(단위: 1,000원)

2009	2010	2011	2012	2013
46,425	44,296	35,517	53,320	54,945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립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은 전통시장 상인, 용달 사업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소금융비용

(단위: 10억 원)

	2011	2012	2013
출연금액(누적)	10	15	20
대출금액	6.7	7.3	6.9

www.poscommiso.net

해외 활동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은 해외 진출국과 저개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형 지역 사회공헌활동은 현지 역사사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주는 가치 있는 나눔과 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스코형 새마을운동

포스코는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새마을운동을 펼쳐 지역사회와의 확고한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모잠비크 새마을 농업훈련원(Nova Villa)에서는 1년 과정의 새마을 정신교육, 각종 농기계 실습과 농장·양계장 운영, 이론교육 등을 통해 매년 30명의 영농지도자(남/녀 각 15명)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새마을 마을 조성 에티오피아에서는 한도데, 데베소, 아둘랄라마을에 포스코그룹사 퇴직직원과 직원자녀를 새마을 봉사단원으로 파견해, 현지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천형 새마을운동을 전개중입니다.

몽골 영농지도자 양성 몽골에서는 현지 영농인을 위한 선진 농업기술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교육 수료생 중심의 마을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해 실질적인 마을의 변화와 영농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빌리지 조성 포스코는 2011년부터 포스코베트남이 위치한 바리어붕따우성에서 현지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과 주민센터, IT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빌리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2013년까지 총 36세대의 주택을 건설해 현지 주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2014년부터 포스코는 베트남 포스코빌리지 조성 사업을 새로운 CSV(공유가치창출) 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철강 수요 창출로 현지 사업도 확대하는 모범적인 CSV 활동이 될 것입니다. 포스코빌리지 조성에는 포스코는 물론 포스코A&C, 포스코ICT, 포스코특수강 등의 포스코파밀리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85세대의 주택을 건설해 현지 주민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구호

2005년부터 포스코는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국내와 해외 지역의 이재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긴급 구호 키트와 성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 지원 현황

2005	울릉도 태풍, 피카스탄 지진
2006	강원도 폭우, 인도네시아 지진
2007	북한 폭우, 제주도·전남 태풍
2008	인도 폭우
2009	전남·부산 폭우, 대만 태풍, 인도네시아 지진
2010	대구·익산 폭우, 아이티 지진, 파키스탄 폭우
2011	캄보디아 수해
2012	경북·군산·태안 수해, 이란 지진, 필리핀 태풍
2013	경북 수해, 러시아 수해, 필리핀 태풍

글로벌 인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와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는 포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설립 운영부터 대학생 봉사단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청암재단 · 교육재단

포스코는 교육재단과 청암재단을 통해 학교 운영과 장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청암재단 1971년 제철장학회에서 시작한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청암상, 포스코 아시아펠로십, 청암과학펠로십, 지역사회장학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1971년에 출범한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 광양 지역에 총 12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교사를 적극 유치하고 교과 교육과 더불어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인 교육을 실현해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주요 활동 현황

 학교 운영	12 개
 기부금 출연 (1976~2013년)	904 10억 원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이 될 대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2007년에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Beyond)'를 창단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대학생을 선발, 국내외에서 사랑의 짐짓기, 성금 모금,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청암재단 주요 사업

포스코 청암상



창업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포스코 창업정신의 기본인 창의존중, 인재중시, 봉사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시상

2006년 제정해 8년간 8회에 걸쳐 26명의 수상자 시상(2014년 3월 말 기준)

2014년 수상자
(2014.3.26 제8회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 과학상 김범식(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 교육상 기나안농군학교(하남, 원주)
· 봉사상 (사)무지개공동회(대표 천노엘신부)

지역사회 장학



포스코셋별 장학

포항, 광양 지역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장학금 및 대학 입학 시 특별 격려금을 지원하는 우수 인재 장학사업

2006년부터 529명 선발(2013년 12월 말 기준)

포스코비전 장학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는 지역사회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2006년부터 268명 선발(2013년 12월 말 기준)

어민회자녀 장학

포항, 광양 지역 어민회 자녀 장학금 지원
2004년부터 1,538명 지원(2013년 12월 말 기준)

청암과학펠로십



국내에서 연구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분야의 박사과정, POST-DOC(박사 후 연구원), 신진교수급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도록 매년 30명을 선발해 2~3년간 지원하는 사업

2009년부터 57까지 총 150명 지원
(2013년 12월 말 기준)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해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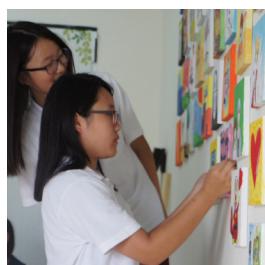
- 2008 인도 델리
- 2009 태국 춘부리
- 2010 인도네시아 반동
- 2011 인도네시아 보고르
- 2012 베트남 티엔장성/ 봉타우성
- 2013 인도 델리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국YWCA와 함께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와이파이 존처럼 학생들 모두가 친한 친구가 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친친와이파이존 운영 현황



주요 프로그램

교사워크숍, 학부모강연, 공감프로그램, 공간비주기, 꿈멘토링

참가 인원

학생 1,890명, 교사 322명, 학부모 477명

참가 학교

서울(대신중, 공릉중), 인천(만수중), 수원(삼일중), 안산(본오중), 포항(대도중), 광양(광영중)

지구환경



임해제철소를 운영하는 포스코는 지역어민들과 함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이가 지구의 해양보호에 앞장서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직원들로 구성된 클린오션 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을 펼쳐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클린오션 봉사단

지역사회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에 스킨스쿠버 동호회원으로 구성된 클린오션 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포항, 광양, 서울, 인천, 창원 등 포스코파밀리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의 바다에서 700여 명의 회원이 해양 폐기물과 불가사리 수거 등 활발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린오션 봉사단 현황

(2009~2013년 누계)

구분	봉사단(명)	활동 횟수	참여인원	수거실적(톤)
포스코 등	포항	447	172	8,827 388
	광양	122	53	3,028 424
	서울	70	22	676 44
합계	639	247	12,531	856
ICT	경기	29	10	66 3
건설	인천	40		498
에너지	인천	18	24	57 27
엔지니어링	인천	19		52
AST	인천	8		40
특수강	창원	22	8	515 13
합계	775	289	13,759	899

청암아시아펠로십



아시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 및 포스코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술·문화 교류 사업

아시아학생 한국유학 장학

2005년부터 27개국 236명 선발
(아프리카 학생 3명 포함, 2014년 1월 말 기준)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

2006년부터 19개국 67명 선발(2014년 1월 말 기준)

아시아 인문사회 연구 지원

2005년부터 14개국 189과제(국내 133과제, 해외 56과제)
연구자 지원(2014년 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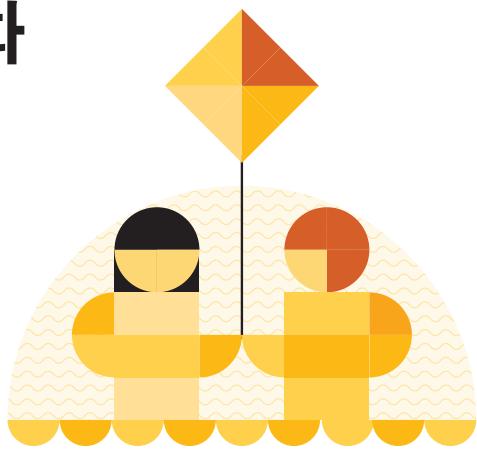
아시아 우수대학 장학

2005년부터 12개국 37개 대학 2,959명 지원(2014년 1월 말 기준)

문예 계간지 'ASIA' 발간 지원

2005년 5월 창간해 분기 1회 총 31호 발행(2014년 1월 말 기준)

다문화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다문화는 국민대통합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포스코는 일찍부터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인식개선 등의 단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합동결혼식

어려운 형편으로 한국에서 정착해 살면서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서울 강남구청과 함께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사내 공간을 활용하되 타국의 친정부모님을 초청해 소중한 결혼식의 의미를 더하도록 했으며, 직원 통역지원 봉사, 카페 오아시아 등을 통한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5개 가정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 중에는 카페 오아시아 포스코P&S 지점에서 일하는 김태희 씨 가족도 포함돼 다문화가정의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더불어 제철소 인근의 다문화가정을 위해 포항과 광양에서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결혼식을 진행해 2013년까지 총 69쌍이 포스코의 지원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문화카페, '오아시아' 지원

카페 오아시아(Cafe OAsia)는 포스코와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가 함께 설립한 고용노동부 인증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소규모 카페가 조합을 이뤄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카페 오아시아는 결혼 이주 여성들 지원으로 고용해 여성들의 자립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적응을 돋웁니다. 공동 구매와 마케팅을 통해 비용

을 절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은 다문화 캠페인과 창업지원 사업에 활용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카페가 다문화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문화 행사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오아시아'

-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 제1호 인증 : 2013. 1. 15
- 2013년 12월 기준 13개 지점에서 29명의 취약계층(다문화여성 포함) 근무 중

다누리 콜센터

포스코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생활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 콜센터에는 결혼 이민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며 중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10개 국어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누리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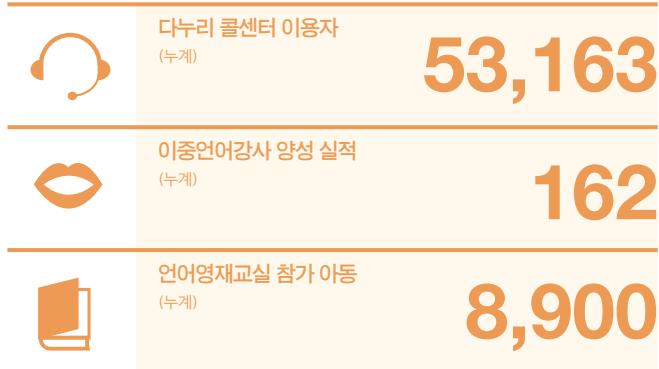
- 1577-5432



이중언어강사 양성

다문화가정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쌍방향 언어와 문화 이해를 돋는 일은 다문화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포스코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과 함께 결혼 이민 여성들을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언어영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명)



문화유산



고유한 전통 문화의 계승과 세계화에 앞장서고 민족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메세나활동을 펼쳐 문화예술의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재 가꿈이 봉사단

포스코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재 가꿈이 봉사단을 통해 우리의 문화 가치를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재 모니터링, 환경 정화, 개보수 작업과 같은 노력 봉사를 넘어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번역하는 등 문화재 알림이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 2013년 한 해동안 163명이 서울 포스코센터 근처 선정릉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임직원의 재능과 연계해 보다 발전된 문화재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센터 음악회

1999년 12월에 시작한 국내 유일의 정기 사옥음악회로 지난 12년간 을 이어오면서 총 142회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도심 속 음악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악, K-pop, 클래식,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개최해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분기별 한 번씩 총 4회의 음악회를 열어 연간 2,550명의 관객과 함께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KEY ISSUE _ 12

1% 나눔으로 더해가는 희망의 온도, 포스코1%나눔재단



96%

1%나눔재단 기부 참여율

45억 원

1%나눔재단 모금액

포스코의 임직원의 작은 나눔이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해 세상 속으로 따뜻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포스코페밀리사의 임원과 부장이 시작한 월급여 1% 기부활동이 점차 일반 직원과 외주 파트너사까지 확대돼 이제는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나눔운동'이 됐습니다. 포스코는 매월 1% 나눔을 실천하는 임직원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고, 기부 성금을 더 의미 있게 쓰기 위해 2013년 말에 '포스코1%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33개의 포스코페밀리사와 102개 외주 파트너사가 동참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사회복지, 해외사업,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포스코1% 나눔재단 개요

일반 현황

- 설립인가
2013. 11. 12(문화체육관광부)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2013. 12. 31(기획재정부 공고)

설립 목적

1%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해 문화 융성, 사회복지 증진 등 공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목적 사업

- 국내 소외계층 사회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해외 저개발 지역 구호활동 및 자립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코1% 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poscofoundation.org

APPENDIX

ABOUT POSCO

포스코 개요

(2014년 3월 31일 기준)

회사명	주식회사 포스코(영문명 : POSCO)
본사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괴동동)
사업내용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대표이사	권오준
설립일	1968년 4월 1일
임직원	1만 7,832 명
자산(연결)	84조 4,550억 원
부채(연결)	38조 6,330억 원
매출(연결)	61조 8,640억 원

포스코 공시자료는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FORM 20-F (<http://www.posco.com/homepage/docs/eng2/jsp/invest/archive/s91b6010020l.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4년 3월 14일 기존 기획재무·기술·성장투자사업·탄소강사업·스테인리스사업·경영지원 등 6개 부문을 철강사업·철강생산·재무투자·경영인프라 등 4개 본부제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분야별로 운영하던 조직을 철강사업 및 생산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한 것입니다. 철강사업본부는 기존 마케팅 조직에 제품 솔루션 기능을 합쳐 신설했으며, 탄소강과 스테인리스 생산 분야는 철강생산본부로 통합했습니다.

조직도

(2014년 3월 14일 기준)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자산	2013(제46기)	2012(제45기)	2011(제44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666,211,065,894	31,566,116,094,575	33,556,910,427,302
매출채권	4,208,561,993,803	4,680,526,392,989	4,598,681,955,647
기타채권	11,492,600,900,137	11,037,973,270,858	11,450,515,069,895
기타금융자산	1,890,423,399,461	1,997,151,796,684	1,723,082,764,349
재고자산	2,970,664,931,851	1,849,281,146,401	1,933,186,741,281
당기법인세자산	9,798,380,584,353	10,584,645,685,380	12,283,643,559,852
매각예정자산	32,416,754,698	17,167,422,298	18,621,093,635
기타유동자산	2,494,487,388	1,190,000,000	329,036,824,809
	1,270,668,014,203	1,398,180,379,965	1,220,142,417,834
비유동자산	52,789,195,619,264	47,699,734,709,486	44,851,927,404,444
장기매출채권	96,999,655,115	142,204,422,240	183,061,234,383
기타채권	797,454,881,764	808,902,637,666	459,601,343,792
기타금융자산	4,465,729,732,069	3,860,965,835,421	4,666,070,890,918
관계기업투자	3,808,693,156,349	3,039,261,200,729	3,831,658,647,591
투자부동산	425,228,677,246	521,191,094,091	527,532,692,971
유형자산	35,760,118,644,438	32,276,379,317,675	28,453,184,150,040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	5,929,839,649,270	5,662,360,480,458	5,244,928,270,686
이연법인세자산	1,139,932,101,097	994,683,876,452	855,603,443,294
기타비유동자산	365,199,121,916	393,785,844,754	630,286,730,769
자산총계	84,455,406,685,158	79,265,850,804,061	78,408,837,831,746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원)

부채	2013(제46기)	2012(제45기)	2011(제44기)
유동부채	20,241,158,836,394	19,775,000,575,320	19,605,356,852,425
매입채무	4,231,322,292,089	4,389,194,668,581	4,397,278,721,880
단기차입금	10,713,645,983,268	10,509,347,724,084	10,791,509,811,214
기타채무	2,128,853,961,141	1,834,903,873,070	1,656,777,612,374
기타금융부채	135,903,767,078	92,741,306,855	154,412,386,974
당기법인세부채	358,929,826,332	559,328,071,201	509,709,016,812
매각예정자산에 직접 관련된 부채	-	-	226,607,095,740
유동충당부채	107,329,339,718	77,830,590,735	69,431,672,708
기타유동부채	2,565,173,666,768	2,311,654,340,794	1,799,630,534,723
비유동부채	18,392,217,818,433	17,061,431,813,960	18,073,560,645,616
장기매입채무	558,676,585	2,592,747,718	382,832,168
장기차입금	15,532,958,670,807	14,412,084,583,629	16,020,207,496,328
기타채무	206,633,797,676	243,922,090,615	276,893,510,468
기타금융부채	260,020,506,940	117,713,110,855	73,666,881,100
확정급여부채	273,159,775,832	345,688,340,728	340,467,261,708
이연법인세부채	1,711,762,697,905	1,461,518,676,249	1,168,096,948,746
비유동충당부채	146,272,008,194	100,098,422,807	109,342,997,350
기타비유동부채	260,851,684,494	377,813,841,359	84,502,717,748
부채총계	38,633,376,654,827	36,836,432,389,280	37,678,917,498,04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2,046,037,070,032	39,454,142,456,236	38,356,349,823,912
자본금	482,403,125,000	482,403,125,000	482,403,125,000
자본잉여금	1,078,265,531,088	1,104,814,139,734	1,150,452,216,471
신증자본증권	996,919,000,000	-	-
적립금	(23,075,788,087)	(88,149,568,821)	405,425,831,163
자기주식	(1,579,123,583,357)	(2,391,406,055,168)	(2,391,406,055,168)
이익잉여금	41,090,648,785,388	40,346,480,815,491	38,709,474,706,446
비지배지분	3,775,992,960,299	2,975,275,958,545	2,373,570,509,793
자본총계	45,822,030,030,331	42,429,418,414,781	40,729,920,333,705
부채와 자본총계	84,455,406,685,158	79,265,850,804,061	78,408,837,831,746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원)

과목	2013(제46기)	2012(제45기)	2011(제44기)
매출액	61,864,649,858,923	63,604,150,874,142	68,938,725,064,391
매출원가	(55,004,590,605,293)	(56,142,892,349,438)	(59,823,850,488,526)
매출총이익	6,860,059,253,630	7,461,258,524,704	9,114,874,575,865
관리비 및 판매비	(3,863,925,389,658)	(3,808,150,777,662)	(3,647,180,705,287)
일반관리비	(2,231,804,528,313)	(2,129,462,542,672)	(2,035,052,438,188)
판매 및 물류비	(1,632,120,861,345)	(1,678,688,234,990)	(1,612,128,267,099)
영업이익	2,996,133,863,972	3,653,107,747,042	5,467,693,870,578
지분법손익	(179,809,378,692)	(22,701,552,936)	50,569,198,857
금융손익	(448,415,099,823)	99,424,829,020	(676,275,674,152)
금융수익	2,380,838,128,437	2,897,062,589,985	3,190,419,470,475
금융비용	(2,829,253,228,260)	(2,797,637,760,965)	(3,866,695,144,627)
기타영업외손익	(421,732,545,938)	(361,344,562,571)	(59,592,503,196)
기타영업외수익	229,073,248,718	448,120,449,046	306,940,819,588
기타영업외비용	(650,805,794,656)	(809,465,011,617)	(366,533,322,784)
법인세차감전이익	1,946,176,839,519	3,368,486,460,555	4,782,394,892,087
법인세비용	(590,996,501,855)	(982,879,617,508)	(1,068,109,046,693)
당기순이익	1,355,180,337,664	2,385,606,843,047	3,714,285,845,394
기타포괄손익	14,269,808,667	(637,922,032,155)	(1,271,909,066,754)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의 세후기타포괄손익	6,224,422,997	(62,527,150,526)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지분법자본변동	(183,836,305,079)	(130,835,401,20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412,346,289,291	(81,471,250,455)	(1,231,757,867,795)
해외사업환산손익	(220,464,598,542)	(363,088,229,968)	1,665,890,568
총포괄이익	1,369,450,146,331	1,747,684,810,892	2,442,376,778,640
당기순이익의 귀속	1,355,180,337,664	2,385,606,843,047	3,714,285,845,394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376,396,068,069	2,462,080,504,484	3,648,136,025,973
비지배지분	(21,215,730,405)	(76,473,661,437)	66,149,819,421
총포괄손익의 귀속	1,369,450,146,331	1,747,684,810,892	2,442,376,778,64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444,261,936,715	1,911,506,128,485	2,530,437,109,686
비지배지분	(74,811,790,384)	(163,821,317,593)	(88,060,331,046)
주당이익	17,409	31,874	47,224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목	2013(제46기)	2012(제45기)	2011(제44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58,135,043,053	7,319,456,884,559	1,691,565,432,550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051,365,642,501	8,488,067,060,460	3,127,904,592,096
가. 연결당기순이익	1,355,180,337,664	2,385,606,843,047	3,714,285,845,394
나. 조정	4,812,617,182,138	4,169,102,638,722	4,264,365,709,891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16,431,877,301)	1,933,357,578,691	(4,850,746,963,189)
2. 이자의 수취	227,988,794,415	238,231,508,387	218,681,750,089
3. 이자의 지급	(797,316,113,951)	(874,710,697,437)	(745,110,881,958)
4. 배당금의 수취	193,008,458,202	178,317,126,400	308,691,667,321
5. 법인세 부담액	(816,911,738,114)	(710,448,113,251)	(1,218,601,694,99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51,669,531,705)	(6,169,003,105,338)	(5,516,866,471,730)
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449,312,164,435)	(3,616,118,362,834)	(4,556,340,264,057)
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901,527,305,204	3,847,682,245,623	5,794,769,591,140
3. 대여금의 지급	(575,342,767,239)	(434,156,117,470)	(962,098,551,992)
4. 대여금의 회수	417,971,246,523	318,744,695,686	896,655,524,600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09,468,867,166)	(307,711,738,283)	(322,045,953,078)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69,363,239,363	700,686,109,577	411,060,952,604
7.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076,763,086,291)	(492,681,338,396)	(740,971,136,417)
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89,532,685,394	18,428,414,005	2,404,099,523
9. 유형자산의 취득	(6,569,612,822,102)	(7,054,543,280,612)	(5,330,967,994,255)
10. 유형자산의 처분	82,151,466,069	272,948,176,493	140,220,788,886
11. 무형자산의 취득	(543,665,728,601)	(448,214,090,789)	(574,752,905,508)
12. 무형자산의 처분	5,429,147,514	10,945,455,201	55,899,133,508
1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26,808,972,526	1,268,545,420,196	-
14.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9,258,005,958)	(128,279,986)	(450,126,000)
15.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31,295,120,000	19,565,567,551	-
16. 연결실체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취득	5,728,791,380	(98,879,942,700)	(437,463,566,476)
17. 연결실체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처분	5,961,716,669	13,040,859,608	-
18.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154,015,780,555)	(187,156,898,208)	107,213,935,792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32,335,704,101	(907,627,135,356)	4,899,885,370,149
1.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5,098,702,228,156	3,007,017,294,752	7,068,322,390,971
2.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2,845,957,033,088)	(1,884,140,729,454)	(1,746,487,479,712)
3. 단기차입금의 순차입	86,474,735,228	(1,412,137,769,989)	51,808,260,987
4. 배당금의 지급	(648,579,538,851)	(751,908,275,301)	(770,857,695,000)
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1,495,387,200,000	-	-
6.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26,087,935,625)	-	-
7. 자기주식의 취득	-	-	(61,296,116,240)
8. 자기주식의 처분	14,018,712,180	-	164,383,990,266
9.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358,377,336,101	133,542,344,636	194,012,018,877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10,765,614,635)	(160,982,206,523)	3,052,402,075
V. 현금의 증가(I + II + III + IV)	(471,964,399,186)	81,844,437,342	1,077,636,733,044
VI. 기초의 현금	4,680,526,392,989	4,598,681,955,647	3,521,045,222,603
VII. 기말의 현금	4,208,561,993,803	4,680,526,392,989	4,598,681,955,647

연결 자본변동표

(단위: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자배지분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적립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소계		
2011.1.1(기초자본)	482,403,125,000	1,101,561,340,860	1,507,287,980,232	(2,403,262,926,338)	35,887,695,722,371	36,575,685,242,125	1,961,481,495,629	38,537,166,737,754
자본의 변동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3,648,136,025,973	3,648,136,025,973	66,149,819,421	3,714,285,845,394
지분법자본변동의 변동			(12,276,219,543)			(12,276,219,543)	1,036,300,656	(11,239,918,887)
매도가능증권평가			(1,227,049,924,212)			(1,227,049,924,212)	(4,707,943,583)	(1,231,757,867,795)
손익의 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			146,622,252,228			146,622,252,228	(144,956,361,660)	1,665,890,568
보험수리적 손익의 변동					(24,995,024,760)	(24,995,024,760)	(5,582,145,880)	(30,577,170,64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금					(577,746,585,000)	(577,746,585,000)	(16,830,599,777)	(594,577,184,777)
중간배당금					(193,111,110,000)	(193,111,110,000)		(193,111,110,000)
연결대상기업							247,482,765,051	247,482,765,051
변동으로 인한 변동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20,694,596,358)					(20,694,596,358)	266,642,325,899	245,947,729,541
등으로 인한 변동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이자								
자기주식의 취득					(61,296,116,240)	(61,296,116,240)		(61,296,116,240)
자기주식의 처분	69,153,100,165				73,152,987,410		142,306,087,575	142,306,087,575
기타	432,371,804		(9,158,257,542)		(30,504,322,138)	(39,230,207,876)	2,854,854,037	(36,375,353,839)
2011.12.31(기말자본)	482,403,125,000	1,150,452,216,471	405,425,831,163	(2,391,406,055,168)	38,709,474,706,446	38,356,349,823,912	2,373,570,509,793	40,729,920,333,705
2012.1.1(기초자본)	482,403,125,000	1,150,452,216,471	405,425,831,163	(2,391,406,055,168)	38,709,474,706,446	38,356,349,823,912	2,373,570,509,793	40,729,920,333,705
자본의 변동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2,462,080,504,484	2,462,080,504,484	(76,473,661,437)	2,385,606,843,047
지분법자본변동의 변동			(112,973,332,574)			(112,973,332,574)	(17,862,068,632)	(130,835,401,206)
매도가능증권평가			(86,660,871,354)			(86,660,871,354)	5,189,620,899	(81,471,250,455)
손익의 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			(292,014,779,448)			(292,014,779,448)	(71,073,450,520)	(363,088,229,968)
보험수리적 손익의 변동						(58,925,392,623)	(58,925,392,623)	(3,601,757,90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금					(579,333,330,000)	(579,333,330,000)	(19,750,873,733)	(599,084,203,733)
중간배당금					(154,488,888,000)	(154,488,888,000)		(154,488,888,000)
연결대상기업							35,869,835,731	35,869,835,731
변동으로 인한 변동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41,924,322,978)					(41,924,322,978)	715,148,695,532	673,224,372,554
등으로 인한 변동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이자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의 처분								
기타	(3,713,753,759)		(1,926,416,608)		(32,326,784,816)	(37,966,955,183)	34,259,108,815	(3,707,846,368)
2012.12.31(기말자본)	482,403,125,000	1,104,814,139,734	(88,149,568,821)	(2,391,406,055,168)	40,346,480,815,491	39,454,142,456,236	2,975,275,958,545	42,429,418,414,781

연결 자본변동표

(단위: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적립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소계		
2013.1.1(기초자본)	482,403,125,000	1,104,814,139,734	(88,149,568,821)	(2,391,406,055,168)	40,346,480,815,491	39,454,142,456,236	2,975,275,958,545	42,429,418,414,781
자본의 변동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1,376,396,068,069	1,376,396,068,069	(21,215,730,405)	1,355,180,337,664
지분법자본변동의 변동			(166,787,157,119)			(166,787,157,119)	(17,049,147,960)	(183,836,305,079)
매도가능증권평가			412,453,110,395			412,453,110,395	(106,821,104)	412,346,289,291
손익의 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			(180,839,443,388)			(180,839,443,388)	(39,625,155,154)	(220,464,598,542)
보험수리적 손익의 변동				3,039,358,758	3,039,358,758	3,185,064,239		6,224,422,99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금				(463,466,664,000)	(463,466,664,000)	(30,544,067,773)	(494,010,731,773)	
중간배당금				(154,489,810,000)	(154,489,810,000)			(154,489,810,000)
연결대상기업						40,505,875,034	40,505,875,034	
변동으로 인한 변동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31,416,726,451)				(31,416,726,451)	373,962,620,431	342,545,893,980	
등으로 인한 변동								
신종자본증권		996,919,000,000				996,919,000,000	498,468,200,000	1,495,387,200,000
신종자본증권 이자				(24,160,837,138)	(24,160,837,138)	(6,228,450,693)	(30,389,287,831)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의 처분	5,347,757,593			812,282,471,811		817,630,229,404		817,630,229,404
기타	(479,639,788)		247,270,846		6,849,854,208	6,617,485,266	(635,384,861)	5,982,100,405
2013.12.31(기말자본)	482,403,125,000	1,078,265,531,088	996,919,000,000	(23,075,788,087)	(1,579,123,583,357)	41,090,648,785,388	42,046,037,070,032	3,775,992,960,299 45,822,030,030,331

외부검증인의 검증보고서



RESPECTED
TRUSTED
PROFESSIONAL **SAMIL**

주식회사 포스코 경영자 귀중

본 검증인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회사”)의 POSCO REPORT 2013(이하 “보고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증범위 및 검증대상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정보에 대해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 2008 (이하 “AA1000APS”)의 3가지 원칙, 즉 포괄성 · 중요성 · 대응성 적용 여부
- 보고서 ‘POSCO KPI’(7페이지), ‘ESG DATA’(8에서 9페이지)에 수록된 검증 대상 비재무정보(이하 “지속가능경영 데이터”)가 ‘About this Report’에 있는 ‘보고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본 검증인은 ‘POSCO KPI’에 포함된 재무자료(7페이지)와 ‘ESG Data’에 포함된 재무자료(8페이지)가 각각 회사의 감사 받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이, 검증대상정보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명백한 오류나 중요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 사항이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검증 대상 이외의 다른 정보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수행한 검증 업무

본 검증인은 ISAE 3000(1)과 AA1000AS(2)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ISAE 3000의 제한적 검증은 AA1000AS(2008)에서 정의된 검증의 중간수준(Moderate level)과 일치합니다. 본 검증인의 검증업무는 AA1000AS(2008)에서 Type2로 정의된 검증업무입니다.

1. AA1000APS의 3가지 원칙, 즉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내부보고 및 데이터 집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 인터뷰
2. 포항 본사, 포항제철소, 서울사무소 및 ESG 데이터 통합대상 포스코파밀리사 사업장 9곳을 직접 방문하여 지속가능경영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이해
3. 위험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및 기준, 지속가능경영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등과 관련된 문서 검토
4. 보고기간의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주요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의 설계 및 운영의 적합성 평가
5. 질문과 분석적 검토를 기본으로 검증대상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검증 수행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수행

경영진과 검증인의 책임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산출 및 AA1000APS 3가지 원칙의 준수를 위한 평가기준의 설정, 동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측정 및 이를 보고서에 보고하는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본 검증인의 책임은 수행한 검증절차에 따라 경영진에게 결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Revised)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issued by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2)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 issued by AccountAbility

이 검증보고서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성과 및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한도 안에서, 본 검증인은 수행한 업무 또는 검증보고서에 대해 경영진 이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의 고유한계

비재무적 성과 정보는 재무적 정보보다 검증 대상의 성격과 정보의 결정에 대한 산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더 많은 고유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련성, 중요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질적인 해석은 경영진이 적용한 추정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E 3000에 따르면 제한적 확신의 업무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검증업무와 비교하여 검증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합리적 확신의 검증업무보다 낮은 확신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본 검증인은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회사의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 및 회사가 제공한 관련문서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검증업무의 범위는 2013년 성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본 검증인의 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증인의 의견

이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본 검증인의 수행업무와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 검증인의 검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AA1000APS 원칙 적용에 대한 검증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괄성

- 회사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 및 고객사,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와 임직원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회사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이슈를 수렴하는 절차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요성

- 회사는 이슈 도출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를 확정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회사의 이슈 도출 프로세스상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 회사는 이슈 도출 프로세스를 통해 파악된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본 검증인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고서상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대응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2013년 검증대상 데이터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사의 보고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증인의 권고사항

검증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동 검증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증절차를 수행한 결과, 본 검증인은 하기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 회사가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경영의사 결정 시 신속히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거버넌스의 강화를 권고합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회사의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의 수행과 정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속가능경영 추진 영역별로 핵심지표의 목표, 목표 달성을 수준 및 향후 목표 달성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성과의 보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확대된 지속가능경영 데이터가 향후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데이터 수집·관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삼일회계법인

전무. 정 세연

삼일회계법인

www.samil.co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 (140-702) 서울용산우체국사서함 266호 (140-600)

삼일회계법인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PwCIL)의 한국 회원사입니다.

PwCIL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들입니다.

포스코 웹사이트 www.posco.co.kr 에서는 포스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PDF 파일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sustainability@posco.com

tel 02-3457-0198

address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대치동)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design DESIGNPLUS

print (주)동인 AP

POSCO



WWW.POSCO.COM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WE SUPPORT



본 보고서는 삼립인증 국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했습니다.